

中國古中世史學會 제8회 學術會議

古中世 동아시아의 地名 변천과 境界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23일(토)

장소 호텔아카데미하우스 대화의집

주최 중국고중세사학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中國古中世史學會

프로그래밍

2013년 11월 22일(금)

- 13:30~13:45 대회등록
13:45~14:00 개회 및 축사
- 윤재석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경북대)
 - 윤병남 (동북아역사지도편찬팀 편찬위원장, 서강대)
- 14:00~14:10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작업 전반에 대한 개요 설명
- 이석현 (동북아역사지도편찬팀, 서강대)

[제1부] 先秦 시기

사회: 김정렬 (송실대)

- 14:10~14:20 先秦 시기 작업 보고
- 민후기 (연세대)
- 14:20~15:10 고고학과 역사지리의 새로운 결합
- 발표 심재훈 (단국대)
- 15:10~16:00 春秋·戰國時代 지명 고증과 지도 제작
- 발표 송진 (경북대)

16:00~16:10 휴식

[제2부] 秦漢·三國 시기

사회: 임병덕 (충북대)

- 16:10~16:40 漢~唐 경계선 복원 작업 보고
- 김용찬 (서울대)
- 16:40~16:50 秦漢·三國 시기 작업 보고
- 발표 정면 (한양대)·유영아 (한림대)
- 16:50~17:40 秦漢 시기 영토 확장과 제국 질서
- 발표 김경호 (성균관대)
- 17:40~18:30 漢代 地方 行政地名에 대한 再考
- 〈동북아역사지도〉에 표출된 漢代 郡縣 地名을 중심으로 -
- 발표 김진우 (고려대)

18:30~19:30 저녁식사

[제3부] 隋唐五代 시기

사회: 박근칠 (한성대)

19:30~19:40 隋唐五代 시기 작업 보고

- 최재영 (한림대)

19:40~20:30 수당시기 역사지도의 구성과 구역 획정에 관한 探論

- 河南道를 중심으로 -

- 발 표 류준형 (영남대)

20:30~21:20 수당오대시기 지명의 변천과 경계

- 발 표 김종섭 (서울시립대)

21:20~22:00 『東北亞歷史地圖』 隋·唐 前期 부분의 현황과 과제

- 7세기를 중심으로 -

- 발 표 이기천 (서울대)

2013년 11월 23일(토)

[제4부] 兩晉南北朝 시기

사회: 이주현 (한남대)

10:00~10:10 兩晉南北朝 시기 작업 보고

- 홍정아 (서강대)

10:10~11:00 兩晉南北朝 시기 역사 지도 속 경계와 지명

- 발 표 김성희 (한양대)

11:00~11:50 위진남북조 지리 관련 문헌

- 발 표 최진열 (서울대)

12:00~13:00 점심식사

[종합토론]

사회: 김택민 (고려대)

13:00~16:00 • 김병준 (서울대), 김성한 (조선대), 신성곤 (한양대),
정하현 (공주대), 최해별 (이화여대)

16:00 폐회식

목 차

[先秦 시기]

- 고고학과 역사지리의 새로운 결합 심 재 훈 1
春秋·戰國時代 國의 경계와 지명 고증 송 진 7

[秦漢·三國 시기]

- 秦·漢初 領土擴張과 帝國秩序
- 『東北亞歷史地圖』의 지명표기와 관련하여 - 김 경 호 21
漢代 地方 行政地名에 대한 再考
- <동북아역사지도>에 표출된 漢代 郡縣 地名을 중심으로 - 김 진 우 49

[兩晉南北朝 시기]

- 兩晉南北朝 시대 역사지도 속 境界와 地名 김 성 희 57
위진남북조 지리 관련 문헌 최 진 열 65

[隋唐 시기]

- 수당시기 역사지도의 구성과 구역획정에 관한 探論
- 河南道를 중심으로 - 류 준 형 71
수당오대시기 지명의 변천과 경계 김 종 섭 81
『東北亞歷史地圖』 隋唐 前期 부분의 현황과 과제
- 7세기를 중심으로 - 이 기 천 91

고고학과 역사지리의 새로운 결합

심재훈*

1982년 출간된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驤 主編)이 중국사 연구자들에게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역사 연구의 진전과 고고학 성과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상의 신기술 도입과 같은 다양한 여건 변화가 이 저작의 부족한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 지난 수년 동안의 노고 끝에, 비록 古中世에 치중하기는 하지만,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이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주로 현재까지 진행된 先秦 부분을 商과 西周시대 역사지도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까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작업성과: 『中國歷史地圖集』과의 비교

동북아역사지도의 先秦 부분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商과 西周는 전체와 중심부 지도 각각 1부씩 총 4장, 春秋와 戰國시대는 각각 전체 형세도 1부와 黃河 상류, 중류, 하류 3부, 長江 유역 1부를 포함한 5부씩 총 10장이다. 이는 『中國歷史地圖集』(이하 『지도집』)이 상과 서주의 전체와 중심부 지도 1부씩에 서주의 도읍지(宗周, 成周)가 추가된 총 5장과 춘추 및 전국의 경우 全圖 1부씩과 형세도(전국) 1부 이외에 국별 지도 각각 5부와 6부씩 총 19장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도집』이 춘추전국 지도를 秦/晉, 齊/魯, 楚/越 등과 같이 인접한 국별로 나누어 구분한 것과 달리, 동북아역사지도는 황하와 장강 수계에 따라 분리한 것에 기

* 단국대학교

인한다. 당시의 역사 상황과 국별 경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별 보다는 수계를 따른 권역별 분류가 오히려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상과 서주의 경우 두 지도에 표시된 지명 혹은 정치체명의 수량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 시기 전도의 경우 『지도집』에 표시된 항목이 70~80여곳에 불과한 반면, 동북아역사지도는 대략 250여 곳이 표시되어 있다. 서주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도집』의 편찬이 사실상 1967년에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¹⁾ 이러한 양적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난 50여년에 걸친 갑골문과 金文을 통한 새로운 역사지리 연구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산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 내실 있는 역사지도 제작을 위해 연구진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풍성한 결과를 동북아역사지도의 첫 번째 성과로 꼽고 싶다.

2. 고고 유지와의 연계

譚其驤은 『지도집』의 가장 큰 두 한계 중 하나로 고고 조사 등을 통해 고찰된 고대 城址나 遺址 등이 지리 확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지도집』의 상주시대 지도 작성에도 당시까지의 고고학 성과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중국의 방대한 고고학 성과를 고려할 때, 이 글의 제목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듯, 주요 고고 유지와 역사지리의 결합은 동북아역사지도의 선진 부분의 가장 큰 성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國家文物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각 省, 자치구, 직할시 별로 『中國文物地圖集』 편찬이라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여, 31책의 分卷과 全國主要文物 分卷 1책을 발행했다. 각 지역에서 편찬한 지도집은 市와 縣 단위의 문물지도와 함께, 개별 문물들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 전시기를 포괄할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도 방대하여, 활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동북아역사지도의 선진 부분에는 각 시기별로 중요한 고고 유지들이 전래문헌이나 출토문헌에 등장하는 지명들과의 연계 속에서 제시되어 있어서, 그 정황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 현재까지 公刊된 중국 先秦 역사지도들 중 고고학과 역사지리가 결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고 유지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연구진이 소요했을 시간과 노력에도 찬사를 표하고 싶다.

1)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第一冊(北京: 地圖出版社, 1982), 前言.

3. 商周 지리 고증의 불확실성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정확히 고증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전래문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갑골학자들이 갑골문의 지명 고증에 주로 활용하는 “同版關係”(동일 판상에 나타나는 다른 卜辭들에 명시된 지명들을 같은 지역으로 파악) 역시 그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지도와 『지도집』에 제시된 일부 정치체는 그 위치 설정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예컨대, 『지도집』은 상 후기의 갑골문에 상의 강적으로 등장하는 鬼方과 土方, 土方의 위치를 각각 內蒙古 남부와 山西省 북부로 비정했지만, 동북아역사지도에서는 각각 陝西省 중부와 山西省 서북부, 河北省 중부로 확정하고 있다. 『지도집』의 鬼方과 土方에 대한 위치 비정이 너무 북쪽으로 치우진 점을 감안하면, 물론 이들에 대한 동북아역사지도의 선택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鬼方을 陝西省 동북부와 山西省 서북부에 분포한 李家崖文化의 주인공의 보는 견해가 현재에도 유력하게 남아있는 만큼, 상주시대의 지명고증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지도에 제시된 출토문헌 상의 지리 확정이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한계 역시 명시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세부 수정 사항

짧은 시간 동안 동북아역사지도에 제시된 지명들의 위치를 꼼꼼하게 검토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는 따라서 필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과 중요하지만 누락된 지명이나 유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상의 경우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상의 지명 확정이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일부 주요 고고 유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지도의 경우 陝西省의 二里崗 문화 유지로 제련 흔적이 발견된 藍田의 懷眞坊과 대형 건축터와 청동 作坊까지 발견된 老牛坡는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 왕국의 남방 거점으로 알려진 湖北省 盤龍城 유지와 商式과 지역 특색을 지닌 청동기들이 출토된 江西省 吳城과 新淦 역시 누락되어 있다. 山東省에 제시된 지명 혹은 정치체명 중 醜와 薛은 각각 蘇埠屯과 前

掌大 遺址와 관련이 있다. 두 유지의 大墓들에서도 많은 청동기가 출토되었고, 특히 前掌大에서는 史字 명문을 지닌 청동기들이 다수 출토되어 이 지역을 史氏와 관련 있는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중심부 지도의 경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鄭州商城 인근의 中商 문화인 小雙橋와 새롭게 갑골문이 발견된 殷墟의 花園莊 유지가 추가되면 좋을 듯하다. 山西省의 垣曲商城이 중심부 지도에서는 빠져 있고, 東下馮遺址나 大辛莊遺址(山東)의 경우처럼 유지 명이 두 번 입력된 단순 실수도 가끔씩 눈에 띈다.

서주의 경우 역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전체 지도의 경우 주요 고고 유지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秦의 초기 근거지인 甘肅省 西陲(犬丘)와 동일 지역인 禮縣 大堡子山의 秦公大墓와 건축 유지와 최근 발굴된 湖北省 隨州 葉家山의 曾國墓地와 羊子山의 噩國墓地, 서주 중기의 城址와 대형 묘들이 발굴된 山東省 高青縣 陳莊 유지가 추가되면 좋을 듯하다. 陝西省 서북부나 甘肅省에 근거지를 둔 서주 후기의 강적 獫狁도 누락되어 있다. 위치 재검토가 요망되는 지명들도 눈에 띈다. 陝西省 동부로 비정된 鄭^①과 棫林은 최근 鳳翔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만큼 재고할 만하고, 彘簋(集成 4322) 명문에서 戎과의 전투가 벌어진 지점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지명에 대해서 裘錫圭뿐만 아니라 楊伯峻이 『春秋左傳注』에서 ‘襄公 16년’에 나타나는 동일한 지명을 河南省 葉縣으로 비정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山東省 동부의 萊는 龍口 남쪽의 歸城遺址로, 眞 역시 동북쪽의 萊陽 일대에서 관련 기물이 출토되었으므로,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山東省의 丁公遺址와 城子崖城址 등 신석기 이래의 유적을 서주시대까지 굳이 포함시켜야 할 지도 의문이다.

서주 중심부 지도도 수정할 부분이 눈에 띈다. 陝西省 寶鷄市 서남쪽 獮國墓地와 관련하여 獮가 누락되어 있고, 그 묘들이 발굴된 茹家莊遺址 인근의 竹園溝遺址도 빠져 있다. 역시 獮國遺地의 한 부분을 이루는 紙坊頭遺址도 그 위치를 寶鷄 서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張家坡西周墓地는 井(邢)氏의 묘지로 추정되므로, 井(邢)을, 최근 발굴되어 지도에 명시된 山西省 서남부의 橫北墓地和 大河口墓地 역시 각각 棚과 霸의 유지로 추정되므로, 그 정치체명을 병기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陝西省 서부의 散은 散氏盤 명문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면, 그 명문에서 散과 토지분쟁이 있었던 듯 역시 그 인근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주의 경우 필자가 평소부터 관심을 가져온 山西省 서남부의 정치체나 고고 유지

들의 위치 비정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들 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 하나 하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망된다.

5. 추가 사항

첫째, 동북아역사지도의 상과 서주 부분은 주로 황하 수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요한 강들이 부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중심지 지도의 경우, 예컨대 山西省 서남부 정치체들이 주로 위치한 汾河 유역이나 남쪽 淮夷의 지역인 淮水 수계를 쉽게 추적해가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주요 강들이 잘 표시되면 좋을 듯하다.

둘째, 譚其驤의 『지도집』이 현재 중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반면, 동북아역사지도의 중국 선진 부분은 그 북방 한계가 河北省이나 山西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마도 북방 지역은 한국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도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물론 이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관점에서 시도되는 만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하고, 오히려 동북아역사지도의 특징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商周의 양식을 지닌 기물들이 발견된 일부 지역들을 중원의 왕조와 무관한 지역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商末 周初의 청동기들이 대량 발견된 大凌河 유역의 喀左와 和尚溝, 山灣子 등은 插圖를 사용해서라도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전체지도와 중심지 지도 사이의 구분은 상당히 적절해보이지만, 고고 유지의 경우 어떤 원칙으로 집어넣었는지 궁금하다. 특히 商代 전체 지도에 명시된 고고 유지는 상당히 소략해 보여, 보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6. 餘論

지금까지 소략하게 마나 商周 역사지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첫째, 연구팀이 상과 서주 시대 역사지도 작성에 활용한 주요 자료들에 대해 설명해주면, 이 지도 작업의 성과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이미 앞서서도 명시했듯이, 상주 지명의 위치 확정에 대해 이론의 소지가 상

당히 클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는지, 더 나아가 다른 중요한 각각의 설들을 지도에 함께 명시해줄 방법은 고민해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셋째, 이미 6년에 걸친 작업 과정을 거쳐 상당한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색인 작업을 비롯한 후속 사업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春秋·戰國時代 國의 경계와 지명 고증

宋 眞*

오늘날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정치적 경계인 국경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한계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국경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엄밀하지 않았고, 대개 인접국 간에 비교적 넓은 국경지대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형성하였다. 국가의 지배 형태가 발전하고 군주의 통치가 모든 영토에 미치면서 국경은 점차 국경선의 형태로 변하였다.

중국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세력권을 구분하는 경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고, 정치권력의 세력 범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다. 춘추시대 周 왕실의 권위가 몰락하고 列國 간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각 제후국의 세력 범위는 끊임없이 변하였다. 가령 『史記』 「吳太伯世家」에 보이는 변경에서의 영토 분쟁은¹⁾ 춘추·전국시대 각국의 경계가 그 세력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각국의 위치와 세력 범위는 지도상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東北亞歷史地圖』 사업팀에서 제작한 춘추·전국시대 역사 지도는 다변하였던 분열의 시대를 지면에 표현해야 하는 난제를 오랜 시간 고심하며 풀어낸 결과물이다. 특히 춘추·전국시대 상황을 자세히 전하는 문헌 기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시기 중국 전역의 행정 지명 및 인문·자연 지명을 지도에 표기한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시기 지도와 달리 이 시기 지도에는 인문·자연 지명 및 주요 고고 유지도 표기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 수년간의 제작 과정을 짧은 시간동안 완전하게 검토하는 일은 어렵고, 대신 이 시기 國의 경계와 행정 구역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1)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卷31 「吳太伯世家」, p.1462, “九年,……楚邊邑卑梁氏之處女與吳邊邑之女爭桑, 二女家怒相滅, 兩國邊邑長聞之, 怒而相攻, 滅吳之邊邑. 吳王怒, 故遂伐楚, 取兩都而去.”

1. 춘추시대 國의 경계

춘추시대 衛 獻公이 망명에서 돌아와 환국할 때 장면은 당시 國의 공간이 크게 도성과 그 외부 지역으로 구분되었음을 보여준다. 衛 獻公이 돌아왔을 때 衛나라 사람들은 境과 道, 그리고 ‘門’에서 각각 獻公을 맞이하였다. 獻公은 자신을 境에서 맞이한 大夫와는 손을 잡고 말을 나누었고, 道에서 맞이한 자에게는 수레에서 揖을 하였으며, ‘門’에서 맞이한 자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다.²⁾ 이렇게 춘추시대 衛國의 공간은 境을 그 외연으로 삼아 중심에 도성이 있는 구조로서, 다른 제후국의 역시 대체로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춘추시대 國의 경계는 크게 정치적 중심지인 도성의 경계와 그 외곽에 있는 境 혹은 封疆의 경계로 나눌 수 있다.

춘추시대 도성의 구조를 한 가지 형태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각 국의 도성은 內城과 郭의 기능을 하는 外城으로 이루어졌다.³⁾ 춘추시대 도성의 함락은 곧 망국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도성은 國體를 보존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 공간이었다. 만약 지도상 춘추시대 제후국을 표기한다면 도성을 중심으로 그 위치를 비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심지인 도성과 달리 국의 외연에 해당하는 封疆은 일정한 지역 범위로 표기하기 어렵다. 춘추시대 열국 간의 세력 범위는 끊임없이 변하였는데, 각국의 봉강 역시 수시로 바뀌었다. 趙孟(趙 文子)이 魯의 叔孫豹를 변호하기 위해 楚國을 설득하는 아래의 내용은 당시 각국 간 봉강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① “邊境[疆場]의 뉘는 때로 저 나라 때로 이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어찌 고정불변하겠습니까? 王과 覇者의 명령으로 그 封疆을 확정하여 관리를 설치하고 表旗를 세우며 (封疆에 대한) 制令을 정하여 범하면 처벌하지만 한결같은 수는 없습니다. …… 명령을 내리는 王이 없게 되면서 제후들이 서로 다투어 영역을 확장하고 盟主가 바뀌니 어찌 또한 한결같겠습니까? …… 封疆의 侵削은 어느 나라인들 없겠습니까? … 菑의 疆에 대한 일에 대해 楚에서 간섭하지 말고 제후들도 번거롭게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莒國과 魯國이 鄆 땅을 놓고 다투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실로 그 나라 社稷에

2) 『春秋左傳』(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1981) 襄公 26년(B.C.547), p.1113, “甲午, 衛侯入。書曰‘復歸’, 國納之也。大夫逆於竟者, 執其手而與之言。道逆者, 自車揖之。逆於門者, 頷之而已。”

3) 다만, 현재 확인된 춘추시대 도성 유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回’자형의 도성은 비교적 그 수가 적다(五井直弘, 『中國古代の城郭都市と地域支配』, 名著刊行會, 2002, pp.91~98).

큰 해가 없다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⁴⁾

이 사건은 제후들이 虢에서 회합을 하는 중에 魯의 季武子(季孫宿)가 莒를 공격하여 鄆을 차지한 일이 발단이 되었다. 楚의 公子 圍는 맹회 중에 타국을 침범한 일은 신성한 맹약을 모독한 일이라고 비난하며 魯의 사자를 죽이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당시 변경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변경의 읍은 그 소유가 일정하지 않았다. 둘째 변읍의 소유가 변하여 봉강을 다시 정할 때는 주왕이나 盟主의 명령에 따르거나 상대방 국가끼리 결정하였다. 셋째 봉강을 결정한 후 그 범위를 표시하는 表旗를 세우고 관리를 두어 관리하였다. 즉, 조맹은 서주 이래 변읍은 인접국 간에 그 소유가 일정치 않으며 그 경계인 봉강은 수시로 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춘추시대 봉강은 기본적으로 변읍에 속한 토지의 경계를 의미한다. 봉강에 대한 조맹의 지적과 같이 춘추시대 열국 간에는 隙地⁵⁾ 변읍의 소유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물론 주변국을 공격하여 새로 취한 땅을 자국의 소유로 편입시키는 일 역시 자주 발생하였다. 때문에 당시 봉강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봉강은 인접 국 간의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후들이 정계하기도 했지만, 상대국을 무력으로 취한 후 직접 정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疆)’ 혹은 ‘봉’을 하여 정계를 할 때는 일정한 표지를 만들어 그 봉강을 정하였다. 『管子』 중 괘의 바깥에 토랑(土闌)이 위치한다고 하며, 토랑은 지대가 높으면 구(溝)를 파고 낮으면 제(隄)를 쌓은 후 가지가 서로 엮히는 형극(荊棘)을 심는다고 하였는데,⁶⁾ 이 토랑은 『周禮』의 봉인(封人)이 만든 제후국의 경계와 동일한 형태이다. 서주시기 전의 경계를 표시할 때 수목(樹木)을 봉의 기점으로 삼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후 전국시대 秦의 봉읍을 분봉할 때 일정한 봉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표시하였다. 즉, 서주시대나 전국시대에도 토지나 봉지는 자연지형이나 수목·흙으로 만든 루(壘)로써 봉을 만들어 정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춘추시대 봉강 역시 변읍에 속한 토지의 경계로서, 서주 이래 자연지형 및 인공적으로 만든 구·제 혹은 수목 등을 기점으로 토지의 범위를 표시한 정계

4) 『春秋左傳』昭公 元年, p.1206, “疆場之邑, 一彼一此, 何常之有? 王·伯之令也, 引其封疆, 而樹之官, 舉之表旗, 而著之制令, 過則有刑, 猶不可壹. ……自無令王, 諸侯逐進, 狎主齊盟, 其又可壹乎? ……封疆之削, 何國蔑有? ……莒之疆事, 楚勿與知, 諸侯無煩, 不亦可乎? 莒·魯爭鄆, 爲日久矣, 苟無大害於其社稷, 可無亢也.”

5) 杜正勝, 「周秦城市的發展與特質」, 『歷史語言研究所集刊』51-4, 1980, pp.643~644 참조.

6) 『管子』(黎翔鳳 撰, 『管子校注』, 中華書局, 2004) 卷57 「度地」, p.1051, “管仲對曰……內爲之城, 城外爲之郭, 郭外爲之土闌, 地高則溝之, 下則隄之, 命之曰金城. 樹以荊棘, 上相穡著者, 所以爲固也.”

형태로 볼 수 있다.

봉강은 국에 속한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경계이자, 국의 외연으로서 일종의 ‘국경’으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齊 桓公은 燕 莊公이 전송을 하다가 제의 경(境) 안까지 들어오게 되자, 연 장공의 행위가 무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연에 속하게 한 후 구를 파서 경으로 삼았다.⁷⁾ 제 환공이 구를 파서 연과의 경을 표시한 방법은 봉강의 형태와 동일하며, 제와 연의 경은 각국의 ‘국경’에 해당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춘추시대 국의 외연은 변경의 주요 거점인 몇 개의 변읍과 그에 속한 토지의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당시 국의 외연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부 지역 모두가 일국의 소유로서 단일한 관할 권역에 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衛 莊公이 성에 올라 교 지역에 戎族이 거하는 마을[戎州]을 발견하고는 용주를 멸하였던 일은⁸⁾ 제후국 내부에 용과 같은 독자적인 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춘추시대 공실의 비읍에 대한 지배력은 공고하지 않았고, 국의 경 내부에는 국에 속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봉강을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는 배타적인 성격의 경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도로 표현할 때 봉강 이내 지역을 춘추시대 제후국의 세력 범위로 확정하거나, 봉강을 기준으로 제후국의 국경을 일정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

2. 전국시대 國의 경계

전국시대 이후 國의 공간 구조에 보이는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례적 공간과 정치적 공간의 분리이다. 전국시대 군주의 집정 공간인 宮은 종묘에서 분리되었고, 나아가 종묘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宮의 조정이 세속 군주의 治所로 부상하면서 국가의 주요 의식은 이제 종묘가 아닌 조정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군현지배의 등장이다. 전국시대 군현지배의 등장은 이전의 神이 관장한다고 인식되었던 國의 공간이 세속 군주의 명령과 법제에 따라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전국시대 군현지배 등장 이후 춘추시대 존재하였던 수많은 소국들은 멸망하여 주요 國의 현이나 관할 단위로 편제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각국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7)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p.1488, “燕莊公遂送桓公入齊境. 桓公曰, ‘非天子, 諸侯相送不出境. 吾不可以無禮於燕.’ 於是分溝割燕君所至與燕.”

8) 『春秋左傳』 哀公 17, p.1710, “初, 公登城以望. 見戎州. 問之, 以告. 公曰, ‘我, 姬姓也, 何戎之有焉?’ 翦之.”

이전에 國과 國 간에 존재하던 隙地와 같은 제3의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국은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전국시대 각국의 경계 역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중심지 및 관할 구역의 범위를 표시한 내부경계와 국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외부 경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전국시대 지방행정 구역을 온전하게 파악하여 표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戰國 秦이나 楚의 郡·縣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전국시대 秦·楚 지역에서 작성한 행정문서가 발견된 덕분이다. 따라서 전국시대 각 國의 대내외 경계는 대략적인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 군현지배의 등장과 각국의 내부 경계

춘추후기부터 晉·楚·秦 등 주요 國의 강역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군주의 직할지 역시 도성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楚의 강역이 팽창하는 과정을 보면,⁹⁾ 楚의 핵심구역은 楚의 國都인 郢을 기점으로 方城에 이르는 지역까지 타원형 형태로 형성되었다. 춘추중기부터 楚의 핵심구역은 方城을 기준으로 內·外로 나뉘었다. 武~文王 시기에는 타원의 남방부인 方城內 요지에 縣을 설치하였고, 成~穆王 時期에는 타원의 북방부인 方城外 지대 외곽에 직할 縣을 설치하였다. 물론 이후 楚에서 秦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등장하지 못하였지만, 春秋時代 장기간의 영역 확대로 楚王의 근거지이자 정치적 중심지는 國都인 郢에서 方城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咸陽을 중심으로 형성된 秦의 內史 역시 전국시대 秦의 강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주의 직할지가 國都 주변 지역까지 확장된 결과이다. 秦王의 직할지인 縣은 國都 주변 지역부터 설치되었고 咸陽 주변에 縣이 설치되었던 지역은 이후 秦·漢時代 제국의 京畿 지역으로서 황제 권력의 핵심 근거지가 되었다.

한편 전국시대 각국의 군현지배 등장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점령 지역을 중앙의 직할지로 삼는 재편 과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전국시대 秦은 商鞅變法 이후 授田體制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산되어 있던 촌락을 鄉城 내부로 집주시킨 후 관리를 파견하여 지배하였다. 鄉城 내부는 다시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里로 나누어졌고 모든 民은 이러한 里의 내부에 거주

9) 春秋·戰國時代 楚國의 疆域 변화과정과 그 성격은 ‘朴倬任, 「戰國時代 楚國 統治體制 研究-縣邑 支配體制의 展開와 楚文化-」,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p.25-49’ 참고.

하였다.¹⁰⁾

비록 전국시대 각국의 내부 지역의 공간 편성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秦의 경우는 다음에서 보듯이 國 내부 공간의 관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惠文公) 4年(B.C.334), 周 天子가 卿大夫 辰을 시켜 文·武王에게 올린 胙를 보낸 해 겨울 11月 辛酉日에 大良造인 庶長 游가 命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鄠邱에서 瀟水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杜를 취하여 右庶長 馯의 宗邑으로 삼으라.”라고 하였다. 이에 瓦書를 만들고 司御인 不更 顓을 시켜 宗邑을 봉하게 하였다. (瓦書에) 이르기를, “子子孫孫 (이 땅을) 宗邑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顓은 (惠文公) 4年 겨울 11月 癸酉日에 (定界하여) 宗邑을 봉하였는데, (그 境界는) 桑障의 封 以東으로부터 北으로 桑堰의 封까지 이르렀으며 (모두) 1里 20轄이었다. [空欄 3行] 大田의 佐인 敖童 未, 史 初가 (처리하였다.) 卜이 (標木을) 심고[蠶] 史 羈가 手하고, 司御 心·志는 封을 묻었다. [背面]¹¹⁾

③ 근처 郡·縣의 境界가 서로 접하는데 (接界한) 縣이 둘 이상일 경우, □으로써 살펴보기 위하여 卒史와 담당자[主者]에게 命하여 지도를 들고 御史에게 이르게 하면, 御史는 지도를 校勘하여 다시 합하여 輿地圖를 만든다. 만약 相符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점이 있으면 郡守이하 담당자[主者]¹²⁾

우선 ②는 惠文王 4年(B.C.334)에 右庶長 馯에게 宗邑을 분봉하고 그 일을 흠을 구워 만든 瓦에 기록한 문서이다. 右庶長 馯의 봉지는 杜縣에 속한 곳으로서, 瓦書에는 그 界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宗邑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鄠邱에서 瀟水에 이르는 지역이며, 그 定界 형태는 桑障의 封을 서쪽 경계로 삼고 桑堰의 封을 북쪽 경계로 삼았다. 서쪽 경계의 기점인 ‘桑障’에서 ‘障’은 ‘墩’字로 볼 수 있으며, ‘墩’은 흠을 쌓았거나 언덕이 높이 솟아 평지에 堆가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북쪽 경계

10)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性格에 대해서는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縣의 組織과 그 活動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31, 1989’ 참조.

11) 釋文은 宗邑瓦書의 實物을 검증한 후 釋讀한 다음의 釋文을 따랐다. 郭子直, 『戰國秦封宗邑瓦書銘文新釋』, 『古文字研究』 14, 1986(2005年 重刊本), p.180, “四季, 周天子使卿夫=(大夫)辰來致文武之 酢(胙). 冬十壹月辛酉, 大良造庶長游出命曰: 「取杜才(在)鄠邱到于瀟水, 以(以)爲右庶長馯宗邑。」 乃爲瓦書, 卑司御不更顓封之, 曰: 「子=孫=, 以(以)爲宗邑」 顓以(以)四季冬十壹月癸酉封之, 自桑障之封以(以)東, 北到于桑堰之 [正面] 封, 一里廿轄. [3行 空白] 大田佐敖童曰未, 史曰初, 卜蠶, 史羈手, 司御心, 志是蠶(埋)封. [背面]” 釋文 중 ‘四季’는 ‘四年’의 誤讀이다.

12) 陳偉 主編, 『里耶秦簡牘校釋』 第1卷, 武漢大學出版社, 2012, p.118, 8-224+8-412+8-1415, “其旁郡縣與(接)界者毋下二縣, 以□爲審, 卽令卒史主者操圖詣御史, 御史案讎更并, 定爲輿地圖. 有不讎·非實者, 自守以下主者”

의 기점인 桑堰에서 堰은 河水 언변에 쌓은 방죽을 의미한다. 곧 大良造 游가 선포한 命에 따르면 宗邑의 범위는 鄆邱에서 濡水까지인데, 司御 顓은 실제 봉지를 定界 하면서 桑障에 封을 만들어 鄆邱의 경계기점으로 삼고 桑堰에 封을 만들어 濡水の 경계기점으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대로 『周禮』의 封人이 封疆을 만드는 방법이나 춘추시대 封疆을 표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瓦書 뒷면에 기록된 관리와 담당자의 이름은 실제 경계를 표시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표지에 標記한 후 경계 지점인 桑障과 桑堰에 각각 封을 세워 경계 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국시대 秦에서는 군주의 命에 따라 봉지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한 후 분봉하였다.

③은 비록 어느 시기에 작성한 문서인지 분명치 않으나, 里耶秦簡이 遷陵縣이 설치된 秦王 25년부터 秦二世 시기까지의 공문서이므로 전국시대 및 통일 秦에서 縣의 경계 관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秦에서 縣을 설치한 후 그 관할 범위인 경계를 표시하였고 縣廷에서 지도를 그려 관할 구역을 관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1986년 甘肅省 天水縣 放馬灘 秦墓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秦에서 제작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放馬灘 秦墓는 그 묘장 연대가 기원전 239년 혹은 238년으로 추정되는데, 墓에서 출토된 지도에는 여러 城邑과 河川·溪谷 및 關所 등이 표기되어 있고 특히 大城에 邽丘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秦의 邽縣의 疆域을 그린 지도로 볼 수 있다.¹³⁾ ②에서 분봉한 지역은 杜縣에 속한 땅이었고 책명할 때 界限이 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중앙에서 杜縣의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전국시대 秦에서는 縣이나 封邑의 경계를 정할 때 堆나 堤防에 封을 만들어 경계의 기점으로 삼았으며, 郡·縣의 관리는 그 범위를 지도로 그려 중앙에 보고 하였다. 이는 춘추시대 卿大夫의 采邑이 공실의 직접적인 지배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반면, 전국시대에 이르면 군주의 직할지인 郡·縣은 물론 封君의 봉지 역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그 범위를 劃定하여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국시대 郡은 漢代와 같이 縣의 상급 행정 기구가 아니었다. 전국시대 郡은 모두 변경에 설치되었고, 郡을 설치한 주요 목적은 변경 수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蘇秦이 楚 威王에게 合縱策을 유세하면서, 楚의 영역을 西로는 黔中郡·巫郡이

13)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縣의 組織과 그 活動을 中心으로」, p.36 참고.

있고, 東으로는 夏州·海陽이 있으며, 南으로는 洞庭·蒼梧가 있고, 北으로는 汾陘의 塞와 郟陽이 있으며 사방 5千里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疆域을 설명하면서 변방 要塞인 汾陘의 塞와 함께 黔中郡·巫郡과 같은 郡名이나 여러 지명을 언급한 것은 각 지명이 楚를 방비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周의 城渾이 新城 땅을 지나다가 楚에서 주력하여 방어해야 할 지역은 江南이나 泗水 연안이 아니라 秦의 宜陽과 마주하고 있는 新城 땅이라고 말하며, 新城을 郡의 중심지[主郡]로 지정하면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는 당시 秦과 接境하고 있었던 楚에서 新城을 거점으로 삼아 秦의 변경인 宜陽을 막고 있었으며, 新城과 宜陽은 각각 자국의 변경에 해당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新城을 郡의 중심지[主郡]로 지정하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당시 郡은 변경에 위치하였고 변경의 要地는 郡의 중심지[主郡]로서 변경 수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전국시대 郡을 지도에 표기할 때 縣과 마찬가지로 治所에 점을 찍는 형태로 표현해서는 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현재 지도상에 표현된 郡名은 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영역국가의 등장과 각국의 국경

전국시대 사료에는 각국 간의 界가 서로 접하고 있다[壤界]는 표현이나 사방으로 어떤 나라와 境을 맞대고 있는가[接境]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인다. 이는 춘추시대와 달리 각국의 영역이 서로 접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趙 武靈王이 胡服을 착용할 것을 결정한 후 公叔 成에게 개혁의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④ “(武靈王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동으로 황하와 薄洛水(漳水)가 흐르고 있어 제·중산국과 함께 沿하고 있으나 舟楫의 器具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常山에서 代·上黨에 이르기까지 동으로 燕·東胡의 境이 있고, 서로는 樓煩·秦·韓의 邊이 있으나 騎射의(병사로) 방비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寡人은 舟楫의 器具를 모으고 물가에 사는 民을 모집하여 黃河와 薄洛水(漳水)를 지키고자 하며, 胡服으로 같이입은 騎射들로서 燕·三胡·樓煩·秦·韓의 邊을 수비하고자 합니다.”¹⁴⁾

무령왕이 수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은 동쪽의 황하·漳水 연안과 북쪽으로 燕

14) 『戰國策』 卷19 「趙」 2, p.1048, “今吾國東有河·薄洛之水, 與齊·中山同之, 而無舟楫之用. 自常山以至代·上黨, 東有燕·東胡之境, 西有樓煩·秦·韓之邊, 而無騎射之備. 故寡人且聚舟楫之用, 求水居之民, 以守河·薄洛之水, 變服騎射, 以備其<燕>參胡·樓煩·秦·韓之邊.”

·東胡의 境과 접하고 있거나 樓煩·秦·韓의 邊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내용상 이곳은 水兵과 騎兵을 배치하여 수비해야하는 趙의 변경을 가리키며, 당시 趙는 齊·中山國과 黃河와 漳水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었다. 무령왕이 언급한 ‘燕과 東胡의 境’과 ‘樓煩·秦·韓의 邊’에서 境과 邊은 ‘燕·三胡·樓煩·秦·韓의 邊’에서 모두 邊이라 표현한 점에서 보듯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서, 당시 趙는 사방으로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국경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을까? 국경[境]이 접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에서는 국경에 亭·鄣의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상비병을 배치하여 수비하였다. 秦 惠文王(B.C.337-311) 때 張儀는 秦과의 連橫策을 魏王에게 유세할 때 魏의 영토에 대해 사방이 평지로서 모두 다른 제후국과 接境하고 있어 接境 지역의 亭·障에는 10만 이상의 병사가 수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당시 接境 지역에 亭·障 등의 수비시설을 설치하고 상비군을 배치하였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張儀는 韓 襄王에게 유세하면서 韓의 병사는 厮徒와 負養하는 자를 포함하여 30만이 넘지 않는데, 그 중 徼·亭·鄣·塞를 수비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하였다. 張儀가 언급한 徼·亭·鄣·塞는 전국시대 각국에서 설치하였던 邊境의 주요 수비시설이다. 그리고 蘇厲는 周 赧王(B.C.314-256)에게 秦의 白起가 魏[梁]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지시킬 것을 권하면서, 秦의 白起가 병사를 이끌고 塞를 나와서 東周·西周 사이를 지나 魏[梁]를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 때 秦의 塞는 東周·西周사이와 韓을 거쳐 魏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殽塞 혹은 伊闕塞를 가리키며, 이 邊塞를 넘으면 바로 兩周를 지난다는 점에서 秦의 境에 설치되었던 要塞에 해당한다. 이처럼 변경의 塞는 국경의 일부로서 楚의 국경[境]에 있던 黽塞[澠隘之塞]와 같이 敵國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어시설이었다.

徼·亭·鄣·塞와 같은 수비시설 외에 변경에 위치한 關·河口 역시 변경 수비의 주요 거점이자, 국경의 일부였다. 예컨대 甘魚의 河口는 符離의 塞와 함께 楚를 방어하는 주요 거점이었고, 張儀가 齊 湣王에게 連衡策을 유세하면서 언급한 齊의 河關과 博關 역시 변경 방어의 주요 지점이었다. 이런 關·河口는 강역을 구분하는 주요 기점이자, 국경에 위치한 통로로서 國門에 해당하였다. 趙 武靈王이 原陽 땅을 쳐서 파하고 그곳을 胡服을 입힌 騎馬兵을 훈련하기 위한 邑으로 삼은 후 牛贊의 반대 의견에 대해 답한 다음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⑤ 武靈王은 말하기를, “...옛적에 先君이신 襄主께서는 代와 땅이 접하게 되자 境에 城을 쌓아 그 (境界를) 封하고는 ‘無窮之門’이라 칭하여 후대 멀리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를) 희 망함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重甲을 입고 長兵을 들고서는 險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牛贊에게 胡服을 입게 하고 騎兵을 인솔하여 胡의 땅에 들어가게 하자, (그는) 遺遺之門을 나가 ‘九限의 固’를 넘고 ‘五徑의 險’을 끊으며 榆中까지 이르러 千里의 땅을 개척하였다.”¹⁵⁾

무령왕은 우선 趙孟(襄子: B.C.475-425) 때 代와 땅이 접하게 되자 境에 城을 쌓아 ‘封’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흔히 ‘封’은 ‘疆’과 함께 쓰여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행위를 나타내거나 定界의 표시를 의미한다. 예컨대 燕王 喜는 趙로 망명한 昌國君 樂間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書信 중에서 나라의 封疆을 집의 담장[垣牆]에 비유하였는데, 여기서 封疆은 집의 담장과 같이 나라의 경계를 일정하게 구획한 표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지는 때로 松柏을 심은 塞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武靈王은 趙孟이 城을 쌓아 代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음을 말한 것인데, 이때 城은 의미상 趙의 봉강에 해당한다. ‘無窮之門’이라는 이름은 城의 門에 붙인 이름으로 보이며, 이 門은 사실상 代 지역으로 통하는 국경의 門에 해당하였다. 牛贊이 胡服을 입고 胡의 땅으로 出征할 때 통과한 ‘遺遺之門’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지만, ‘無窮之門’과 같이 타국으로 통하는 邊塞 혹은 邊關의 門으로서 일종의 國門이었다. 즉, 변경에 위치한 關·河口는 徼·亭·鄣·塞와 같이 변경의 주요 거점이자 국경을 출입할 때 통과할 수 있는 國門에 해당하였다.

『荀子』 중 한 나라의 변경에서 入國하는 과정을 보면 ‘疆場→境의 關所→(入境)→田地 및 城邑’의 순서로서,¹⁶⁾ 여기서 입국의 기준이 되는 국경의 關所는 國門에 해당한다. 楚 肅王 4년(B.C.377)에 蜀이 楚의 茲方을 취하자 楚에서는 扞關을 설치하여 蜀의 공격을 막았던 것처럼 邊關은 변경 수비의 주요 기점이자, 국경을 통과하는 國門이었다. 甘茂가 秦에서 도망하여 齊로 가려고 할 때 函谷關을 나온 것이 곧 秦을 출국하는 의미하였던 것 역시 변경의 관문은 곧 國門에 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전국시대 변경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각국에서 변경에 장성을 쌓아 수비

15) 『戰國策』 卷19 「趙」 2, p.1079, “王曰, …昔者先君襄主與代交地, 城境封之, 名曰無窮之門, 所以昭後而期遠也. 今重甲循(脩)兵, 不可以險險. …至(王)遂胡服率騎入胡, 出于遺遺之門, 踰九限之固, 絕五徑之險, 至榆中, 辟地千里.”

16) 『荀子』 卷6 「富國」 10, p.192, “觀國之治亂臧否, 至於疆易而端已見矣. 其候徼支繚, 其竟關之政盡察, 是亂國已. 入其境, 其田疇穢, 都邑露, 是貪主已.”

를 위한 방어선으로 삼고, 인접국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기원전 361년 魏의 서쪽 경계가 秦과 접하게 되자 魏에서는 장성을 쌓아 秦과의 경계로 삼았다. 당시 魏의 장성은 남쪽으로 華州의 鄭縣에 이르고, 西北으로 渭水를 지나 洛水(漆沮水) 가의 동쪽 언덕에 달했으며, 北쪽으로는 上郡 鄜州의 땅까지 이르렀다. 齊에서는 泰山 근처 蓋縣에 장성을 쌓아 방비하였는데, 盧縣에도 장성이 있어 동쪽으로 東海에 이르렀다고 한다. 齊 장성의 주요 기점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齊의 長城은 대체로 濟水의 平陰에서 시작하여 泰山의 북쪽을 지나며 최종적으로 琅邪臺에서 동해와 이어지는 형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長城은 齊의 邊境이 아니라 사실상 臨淄와 邊境의 가운데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국시대 魏·楚·韓의 장성이 대개 接境 지역에 위치한 것과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齊의 장성 중 일부는 邊境에 위치하였다. 齊 宣王이 山嶺 위에 장성을 쌓아 동쪽으로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 濟州까지 1000餘里에 달하며 장성으로써 楚를 방비하였다는 내용은 좋은 예이다. 곧, 齊의 장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변경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하였고, 특히 楚의 강역 확대로 齊와 접경하게 되자 그 곳에 장성을 쌓아 楚와의 방어선으로 삼았다. 張儀는 齊의 界限으로서 濟水·黃河와 같은 자연 지형과 함께 邊境에 만든 壕溝[鉅坊(巨防)]나 장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齊의 疆域이 확대되면서 내지가 된 장성이 아니라, 琅邪와 莒 東北쪽과 같이 변경으로서 楚와 접경하는 지역의 장성을 지칭한 것이다.

요컨대 한 나라의 정치·군사적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강역으로 보고 강역의 외연을 국경이라 하였을 때, 전국시대 각국의 국경은 塞·亭·鄣·長城 등 변경의 수비 시설이나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關·梁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시대 기록에서 국경은 일반적으로 境이라 칭하였다. 다만, 때로 境 대신 界나 疆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境은 군대가 주둔하거나 각국 대표자들이 회담을 하는 邊境[疆場]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秦이 東周를 파하고 伊闕에서 魏와 싸워 魏의 장군인 犀武를 죽인 후 勝勢를 타고 魏의 境에 주둔하고 있자 魏에서는 公孫衍을 시켜 秦과 講和하기를 원하였는데, 이 때 秦의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魏의 변경 지역이었다. 또 商於에서 秦과 楚의 大臣이 密約을 한 것과 같이 境에서 각국의 대표자가 회견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도 境은 변경 지역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전국시대 각국의 국경은 郡·邊邑 등 변경의 주요 지역의 외연을 연결한 경계로서, 주요 거점에는 塞·亭·鄣·長城 등의 수비시설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關·梁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

고 병사가 주둔하거나 담당 관리가 배치되어 변경의 수비와 치안을 관리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국시대 각국의 국경을 지도에 표기할 때 생기는 문제는 당시 각국의 강역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이 없는데다 각국의 국경이 수시로 변했다는 점이다. 춘추시대와 달리 국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도상에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옳지만,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강역을 정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국경선을 긋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 사업팀에서는 기원전 280년¹⁷⁾을 기준으로 각국의 강역을 선으로 표현하였다. 대개 전국시대 강역은 譚其驥가 主編한 『中國歷史地圖集』과 같이 기원전 350년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본 사업팀에서 기원전 280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각국의 국경을 선으로 그을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3. 지명 확인과 지도상 표기 문제

『東北亞歷史地圖』에 표기된 지명을 검수하기 위해 본인은 譚其驥가 主編한 『中國歷史地圖集』(第1冊)과 楊守敬이 편찬한 『春秋列國圖』 및 『戰國疆域圖』에 보이는 지명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긴 몇 가지 의문이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을 추출할 때 이용한 문헌 자료는 어떤 것인가이다. 현재 춘추 전국시대 관련 문헌 기록은 한정되어 있고, 각 지도를 편찬할 때 이용한 문헌 자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지도에서 표기한 지명은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경우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인이 검수를 맡은 춘추시기 장강 유역 지도(007_4_C004_4)는 譚其驥의 지도에 비해 훨씬 많은 지명이 표기 되어 있다. 이는 楊守敬의 지도와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시대 지도 역시 다른 지역은 대체로 譚其驥 및 楊守敬의 지도에 표기된 지명과 겹치지만 황하 以南 지역 및 장강 유역(011_4_C007_4)의 경우 다른 지도에 보이지 않는 지명이 다수 확인된다. 또 전국시대 지도를 譚其驥의 지도와 비교할 때 표기된 지명에서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을 그린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했다. 물론 楊

17) 기원전 280년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는 秦의 白起가 趙를 공격하여 光狼城을 취하였고, 秦의 司馬錯가 楚를 공격하여 黔中郡을 빼앗자 楚에서 漢北·上庸의 땅을 秦에 할양한 일을 들 수 있다.

守敬의 지도에서 확인되는 지명도 많았지만, 비교적 유사한 문헌을 근거로 작성되었을 역사 지도의 지명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아울러 譚其驤 楊守敬의 지도에 표기된 지명 중 누락된 지명이 꽤 보이는데, 楊守敬의 지도에서 언급된 지명은 문헌 기록에 언급되는 지역이므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두 가지 지도와 비교했을 때 확인되지 않거나 위치가 다른 지명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지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지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시대 두 지도에 보이지 않는 지명>

지도 번호	해당 지역	지명
011_1_C007_2	황하 중류	沮陽, 雁門郡, 武垣縣, 石邑, 安陽, 臯落, 廣武, 鹿, 城濮, 馬陵, 幾, 武始, 邢
011_1_C007_3	황하 하류	右北平郡, 河北, 徐州, 常, 琅邪郡 (啓陽→開陽, 昌→昌國)
011_1_C007_4	장강 유역	新易, 六, 陵 (武城→南武城, 繁易→繁陽)

<위치 비정이 다르거나 검토가 필요한 지명>

지도 번호	해당 지역	다른 위치	행정지명↔ 史爲樂
011_1_C007_1	황하 상류		(행)昆陽→(史)昆陽
011_1_C007_2	황하 중류	菑, 胸	(행)權←(史)權, (행)狼孟→(史)狼孟, (행)武安→(史)武安, (행)列人←(史)列人, (행)肥→(史)肥下
011_1_C007_3	황하 하류	郚, 留	(행)齧桑→(史)齧桑

<검토가 필요한 인문·자연지명>

지도 번호	해당 지역	지명	
		위치 비정 문제	명칭 표기
011_1_C007_1	황하 상류	焉氏塞, 甘泉山, 函谷關	涇→涇水
011_1_C007_2	황하 중류	雁門水, 修水, 湖灌水	教山→教水?, 盟津→孟津
011_1_C007_3	황하 하류	三山(바다에 표기)	
011_1_C007_4	장강 유역	扞關	

(기타 ‘秦皇宮’, ‘博浪沙’는 秦代 관련 지명이므로, 전국시대 지도에서는 생략해도 좋겠다.)

끝으로 史爲樂 사전에 근거하여 표기한 지명 중 반드시 표기해야 할 행정 지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현재는 인문·자연지명과 구분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다. 그리고 인문·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적절한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長城(魏·齊·燕·秦長城, 楚方城)이나 강·못(澤) 등은 모두 행정 지명과 같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秦·漢初 領土擴張과 帝國秩序

- 『東北亞歷史地圖』의 지명표기와 관련하여 -

金慶浩*

1. 秦의 영역 확장과 里耶秦簡

『史記』 「秦本紀」와 「楚世家」의 서술 내용에 의하면 B.C.280년을 전후하여 진은 초 지역을 공략하여 鄢·鄧 일대를 점령하고 초의 도성인 郢을 함락시킨 후, 南郡과 黔中郡을 설치한 기사가 보인다. 서술편의를 위하여 관련 기사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A) 『史記』 秦本紀 昭襄王

- ① 27년(B.C.280) “(司馬)錯攻楚 徙罪人遷之南陽 白起攻趙 取代光狼城 又使司馬錯拔隴西 因蜀攻黔中 拔之”,
 - ② 28년(B.C.279) “大良造白起攻楚 取鄢鄧 赦罪人遷之”
 - ③ 29년(B.C.278) “大良造白起攻楚 取郢爲南郡”
 - ④ 30년(B.C.277) “蜀守若伐楚 取巫郡 及江南爲黔中郡”
- B) 『史記』 楚世家 頃襄王 22년(B.C. 277) “秦復拔我巫 黔中郡”

리야진간의 기사에는“黔中郡”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南郡의 명칭이 J1⑩5와 ⑩6에 각각 “今洞庭兵輪內史及巴 南郡, 蒼梧, 輪甲兵當傳者多節傳之”라고 진의 郡名으로 명기되어 있어 상기 인용한 기사 시기 이후에도 리야 고성 일대는 진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 20년(B.C.227) 4월2일 南郡 郡守 騰이 本郡 소속의 각 縣、道에게 반포한 『睡虎地雲夢秦簡』 「語書」의 내용이나 「編年記」 19년의 기사, “□□□□南郡備敬(警)” 등은 비록 진이 남군지방을 지배한지 50여 년이 되었어도 當地의 楚人勢力은 여전히 그 鄉俗을 견지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 성균관대학교

있으며, 동시에 楚國 역시 이 지역을 奪回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南郡지역은 反秦의 동향이 있었을지라도 秦 昭襄王 28년 이후 통일시기까지 남방지역 통치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더구나 江漢地域일대에서 관중 지역의 封土堆와 墓道가 없는 秦墓양식을 띠고 있는 묘들이 다수 확인되며,¹⁾ 湖北 襄樊市 부근의 鄧城유지를 비롯한 餘崗·蔡坡·山灣·鄭家山 묘지에서도 전국시대 후기 秦 移民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²⁾ 남방지역에서의 秦墓의 확인 뿐만아니라 더욱이 진시황 24년(B.C.223) 王翦이 “破楚 虜其王負芻”한 다음해 진시황 25년(B.C.222) 里耶秦簡의 紀年이 시작하고 있는 점은 더더욱 진의 남방지역 지배의 철저함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A)-③의 기사처럼 楚는 도성을 함락당하였지만, 2년 후 기원전 276년에 失地를 회복하였다. 이 사실을 『史記』 「秦本紀」와 「楚世家」에서는 각각 “(秦 昭襄王 31년) 楚人反我江南”· “(23년) 襄王乃收東地兵 得十餘萬 復西取秦所拔我江旁十五邑爲郡 距秦”라고 명기하고 있다. 『사기』의 기사에 의하면 楚가 수복한 지역은 “江南”과 “江旁十五邑”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역을 알 수는 없다. “江南”과 “江旁十五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李學勤의 견해³⁾처럼 里耶秦簡 발견이후, 里耶古城을 秦 遷陵縣治로 이해하여 기원전 280년과 277년 진의 침공으로 이 일대가 秦의 黔中郡에 편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⁴⁾ 그렇다면 과연 『史記正義』가 주석한 “黔中郡反歸楚”의 기술을 부정하고 “江南”과 “江旁十五邑” 지역은 湖南지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沅江 중류 호남성 서부에 위치한 澱浦縣 馬田坪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묘장의 실태를 이해한다면 상기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 24호묘에서는 鼎·簋·盤·匱·勺 등으로 구성된 秦式 銅容器를 비롯한 銅鏡 등이

* 본 원고는 제8회 중국고중세학회 학술회의(주제 : 고중세 동아시아의 지명 변천과 경계)의 발표를 위하여 작성된 발표문입니다. 필자의 동의없이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陳平, 「淺談江漢地區戰國秦漢墓分期和秦墓的識別問題」, 『江漢考古』 1983-3.
- 2) 黃尚明, 「湖北襄樊市區附近的秦移民遺存探討」, 『考古與文物』, 2006-1.
- 3) 李學勤, 「初讀里耶秦簡」, 『文物』2003-1, p.76.
- 4) 郭沫若, 『中國史稿』 第二冊, 人民出版社, 1979, p.104. ; 張正明, 『楚史』, 湖北教育出版社, 1995, p.249 등에서 기원전 280년 이후 호남성 일대가 이미 진의 영토가 되었다고 서술한 것이나 “江旁十五邑”을 黔中郡이 아니라 호북성과 강서성 북부로 주장한 것은 모두 『史記正義』가 주석한 “黔中郡反歸楚”의 기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 5) 『里耶發掘報告』(湖南省考古文物研究所 編著, 岳麓書社, 2006), pp.237~238. 이하 리야고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내용은 모두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출토되었지만, 楚式의 銅器나 陶禮器을 부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연대가 24호묘와 동일한 시기로 추정되며 巴式兵器를 부장한 巴墓 8座가 역시 동일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즉 秦墓와 巴墓가 동일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司馬錯이 蜀으로 入攻하여 黔中郡을 세운 것이 좋은 사례이다(“司馬錯自巴涪水因 取巴楚蜀商於之地 爲兵黔中郡“, 『華陽國志』 「巴志」)이다. 또한 『湖南通志』 唐人「十道志」를 인용한 기사, “楚子滅巴, 巴子兄弟五人, 流入黔中, 漢有天下, 名曰西、辰、巫、武、沅等五溪, 各爲一溪之長, 故號五溪蠻.” 즉 진이 파를 멸망시킨 후, 그 가운데 일부분의 巴人이 秦人과 함께 黔中으로 出征한 것이며, 후에 새로운 점령지에 머무르면서 五溪의 長이 된 것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里耶古城 1호 우물에서 출토된 銅矛나 麥茶墓地 M334에서 출토된 銅劍 등은 모두 巴人의 유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 A), B)의 진의 남방 침공 전선이 리야지역으로 파급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이 문제는 전국시기 말기인 B.C.278년부터 B.C.221년 진이 六國을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호남지역의 귀속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何介鈞은 호남지역의 초묘의 분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沅水유역 절대 대부분의 지역은 전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楚國의 手中에 있었으며, 常德 등지에서 출토된 鼎盒壺로 조합된 초묘는 진이 검증을 점령하기 이전이 아닌 이후 시기에 해당하며 전국말기까지 존속하여 원수 유역의 상덕 등지는 여전히 초국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주장은 전국 말기 細高足鼎·細頸球形腹壺·扁球形敦(또는 盒)으로 대표되는 호남 묘장의 陶禮器 조합을 초문화 전통의 내적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長沙·常德과 호남성 전 지역에서 진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는 묘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대량 귀족의 묘장은 모두 전형적인 초묘라는 『리야발굴보고』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이러한 고고 사실은 里耶麥茶墓地의 발굴에서 재차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리야 맥차묘지는 전형적인 陶禮器 조합(AⅡ·BⅡ鼎·AⅡ壺·敦 혹은 盒)과 동일 시기에 동일한 형태로서 존재하였으며 장사와 다른 호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규율성을 보이고 있어 里耶와 호남 대부분의 지역 역사와 일체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江陵 失陷이후, 많은 楚人들이 호남으로 이주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맥차묘지에서는 진문화의 요인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6) 何介鈞, 「湖南晚期楚墓及其歷史背景」, 『楚文化研究論集』(第二集), 湖北人民出版社, 1991, pp.122~123.

A)와 B)의 기사에서 黔中지역이 진인에게 함락당했지만 2년 후인 B.C.276년 초인이 실지를 탈환하고 계속 초인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시황 25년(B.C.222)부터 보이는 里耶秦簡의 내용은 진시황 24년(B.C.223) 초 멸망 이후, 비로소 초지역이 진에게 편입된 사실을 의미한다.

1-1. 郡縣의 설치와 지배

리야진간 J1⑩5簡에는 史書에는 보이지 않는 洞庭郡을 비롯하여 巴郡·南郡·蒼梧郡 등의 郡과 遷陵縣을 비롯한 酉陽縣·竟陵縣 등의 縣名은 물론이고 里名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군현명의 확인은 진시황 24년(B.C.223) 초를 멸망시킨 이후, 신속하게 이 지역에 동정군--천릉현의 군현조직을 설치하고 인근 군현행정조직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전국말기까지는 楚 黔中郡에 소속되어 초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었을 리야고성 역시 진이 초를 멸한 이후에 설치한 동정군과 천릉현으로 편입된 것이다. 戰國 楚의 지방통치조직은 鄉野 가운데의 지역조직인 邑과 敵·⁷⁾或체제와 城邑 가운데의 지역조직인 里체제, 그리고 封君의 食邑 또는 관리의 俸邑으로 구성된 州로 구분할 수 있다.⁷⁾ 더욱이 邑·里·州의 통치를 관할한 관리들은 『包山楚簡』 “尙之已里人青辛(31)”, “新都人尊逃(16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楚國의 縣·邑·里 지역 출신의 민들이 담당하고 있었다.⁸⁾ 따라서 里耶秦簡에 보이는 ‘縣一里’의 조직, 특히 陽陵縣에서 遷陵縣으로 파견한 戍卒을 기록한 J1⑨1에서 J⑨12까지의 12개 簡牘의 내용 중 陽陵縣 관할하의 里名の 확인—仁陽(J⑨2、9), 下里(J⑨3、5), 孝里(J⑨4), 視陽(J⑨6、7), 逆都(J⑨8), 戚作(J⑨10), 谿里(J⑨11)—은 기원전 222년 초 지역을 점령한 이후 신속하게 기존의 행정제도를 대신한 진의 군현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즉 전국 초국의 黔中郡 관할하의 邑·里·州로 대변되는 지방조직을 一元的인 군현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아울러 리야진간에 보이는 인명과 관직—司空(J⑧133, J⑧134, J⑨1)·郵人(J⑧153)·主戶(J⑧155)·鄉嗇夫(J⑧157) 등—은 초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楚人에서 秦人으로 교체를 반영한 것이다.

점령지에 대한 행정제도의 개편과 호구의 파악이 곧 이 지역에 대한 지배의 철저를 의미한다면, 리야진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縣級 행정단위의 구체적 업무의 내용들은 진의 통치방식이 옛 楚 지역에 관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遷陵以郵

7) 陳偉, 『包山楚簡初探』(武漢大學出版社, 1996) 제3장 「地域統治系統」, pp.67~107.

8) 陳偉, 『包山楚簡初探』(武漢大學出版社, 1996) 제4장 「名籍與身分」, p.109.

行洞庭”(J⑥2)의 내용은 주지하듯이 천릉현에서 동정군으로 문서를 “以郵行”의 방식으로 上達한 내용이다. 즉 睡虎地雲夢秦簡「語書」“別書江陵布 以郵行”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서전달제도의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 J⑧133의 내용처럼 진시황26년 3월 13일(甲午)에⁹⁾ 등기할 수 있었으며 27년 8월 19일(壬辰) 완결된 獄案에 대해 모두 文書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或逕(速) : 廿六年三月甲午, 遷陵司空(得)、尉乘 卒算(算)簿. 廿七年八月甲戌朔壬辰, 酉陽具獄, [獄]史啓 啓治所獄留□, 敢言之·封遷陵留.”) 이와같이 천릉현에서 “以郵行”의 방법으로 동정군으로의 直報는 옛 초 지역에 설치한 縣級 행정단위에서도 천릉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洞庭郡과 遷陵縣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리야진간의 기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遷陵已計: 卅四年餘見 弩臂百六十九. 凡百六十九. 出弩臂四輪益陽. 出弩臂三輪臨沅. 凡出七. 今八月見弩臂百六十二. (J⑧152)
- 2) 今洞庭兵輸內史及巴、南郡、蒼梧, 輸甲兵當傳者多節傳之(J⑩5)

1)의 기사는 弩臂를 인근 현인 益陽(『漢書』「地理志」, “長沙國下有益陽縣”, 현재의 湖南省 益陽縣)과 臨沅(『漢書』「地理志」, “臨沅屬武陵郡”, 현재의 湖南省 常德 부근)으로 운송한 내내용이며, 2)의 내용은 동정군에서 인근 지역으로 무기를 운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기한 천릉현으로의 파견된 수졸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J⑩1에서 J⑩12까지의 간독 내용을 종합한다면, 천릉현은 군사적·정치적 중심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릉현은 상급 기관인 동정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J⑩1~12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卅三年四月辛丑朔丙午 司空騰敢言之: 陽陵宜居士伍(伍)毋死貨 餘錢八千六十四……四月己酉陽陵守丞尉敢言之……(以上 正面)卅四年六月甲午朔戊午陽陵守慶敢言之……卅五年四月己未朔己丑 洞庭假尉儻謂遷陵丞 ……(以上 背面)”의 J⑩1簡 正·背面에서는 4개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록된 날짜는 문서가 郡과 縣사이에서 전달되는 시간과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서는 내용은 진시황 33년 4월6일 陽陵

9) 簡文에는 3월의 曆朔이 기재되지 않지만 徐錫祺《西周(共和)至西漢曆譜》(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7-이하 徐錫祺, 《曆譜》)에 따르면, 秦始皇26년 3월의 朔日은 辛巳日이므로 甲午日은 3월 13日이라고 할 수 있다.

司空이 貨錢 8,064가 있는 陽陵縣 관할하에 있는 宜居지역 母死라는 사람이 동정군에 수졸로 징발되었는데 어느 현에서 복무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양릉현에 요청한 내용이다. 이러한 보고가 陽陵守丞이 司空의 보고에 근거하여 洞庭郡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다. 守丞으로부터 요구가 있는지 3일만인 4월9일 동정군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사안은 이 해에 처리되지 않고 그 다음 해인 34년 6월13일 양릉현에서 동정군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35년 4월 7일에 양릉현으로부터 받은 공문들을 일괄처리하여 천릉현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리야진간에서 확인되는 문서전달 방식은 縣에서 縣으로의 전달(西陽→遷陵, ⑨984), 縣에서 管轄 部署로 전달(遷陵守丞→少內, J1⑧156)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上達形式의 문서전달이라도 縣의 下部機構에서 縣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예를 들면 J1⑧152(縣의 少內守→遷陵縣), J1⑧134(司空守→縣), J1⑧157(啓陵鄉夫→縣), J1⑨981(田官守→縣), J1⑩9(啓陵鄉→縣)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군현으로 보고하는 上計文書인 J1⑧133의 ‘卒算簿’와 천릉현 자체의 ‘帳簿’인 J1⑧147 등도 縣級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里耶秦簡은 秦代의 행정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통일 제국의 정보 시스템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며, 전통중국의 지방행정은 縣이 중심이 된 군현지배가 사회의 근간이 된 것이다.¹⁰⁾ 더욱이 ‘郡—縣’을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의 통치질서 뿐만아니라 縣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의 행정시스템의 단면은 군현통치의‘橫的’ 통치 질서를 반영한 것이다.

1-2. 里程簡의 내용과 南方統治

리야진간의 내용은 秦의 중앙정부와 郡의 政令이 時宜適切하게 遷陵지역에 도달하고 천릉에 도달한 문서가 다시 향리로 下達되거나 혹은 洞庭郡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上達하는 경우를 반영하고 있다.¹¹⁾ 원활한 문서의 上行下達은 각 지역에 대한 원만한 통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郵를 비롯한 문서전달 시스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J1⑧157에서 확인되는 진시황 32년(B.C.215) 정월 17일 啓陵鄉畜夫가 成里의 里典과 郵人을 임명한 사실이나 睡虎地雲夢秦簡 「行律」의 관련 규정은 모두 진의

10) 藤田勝久, 「里耶秦簡の情報システム—秦代の郡縣制をめぐって」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人文科學編), 第23號, 2007, p.63.

11) 胡平生, 「讀里耶秦簡札記」 『簡牘學研究』(第4輯), 甘肅人民出版社, 2004.

문서전달제도의 실재를 반영한 것이다.

문서전달과 관련하여 리야진간에서 里程簡으로 소개된 J1⑩12, J1⑰14, J1⑯52簡은 진의 문서전달 및 지방통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J1⑩12에 소개된 里程은 “高陽—武垣—饒陽—樂成—武邑—信都—武□—宜成(第2欄)”으로 각 지역의 현재 지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의 河北省 高陽縣에서 남쪽으로 河北省 清河와 山東省 동북부 臨清 사이에 이르는 지명임은 틀림없다. J1⑰14에 소개된 里程은 “□陽—頓丘—虛—衍氏—啓封—長武—僞陵(第1欄)”으로 대체로 현재의 河南지역의 북부에서 남부 許昌縣 東部에 이르는 지역으로 총 7,720리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따라서 J1⑯52 第2欄의 “焉—鎬—江陵—孱陵—索—臨沅—遷陵”에 이르는 4,440리에 이르는 도로를 ‘從的’으로 고찰하여 보면 진의 京師(內史)지역을 중심으로 서북과 서남지역의 동쪽 간선도로망이 구축된다. 이러한 사실은 里耶秦簡의 시기보다 조금 후인 漢初시기 張家山漢簡 「行書律」의 “南郡江水以南 至索(?)南水 廿里一郵”, “北地·上隴西, 卅里一郵”, “復蜀·巴·漢(?)中·下辨·故道及雞[命+|]中五郵”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郵路의 설치 역시 內史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먼 南郡지역(현재 湖南一帶)와 西北과 西南지역에 각각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史記』 「秦始皇本紀」 가운데 秦始皇 즉위 초 秦의 直轄領域을 서술한 내용 역시 內史를 중심으로 西南(巴郡·蜀郡·漢中郡), 東南[南陽郡(宛)·南郡(鄧)], 北(上郡以東, 河東·太原·上黨郡), 東(至滎陽, 滅二周, 置三川郡)의 네방향으로 구획하여 直轄 郡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秦代의 지역구분은 內史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張家山漢簡 「二年律令·津關令」에 보이는 五關—扞關·鄖關·武關·函谷關·臨晉關—이 南北을 軸線으로 형성되어 “關中”과 “關外”의 경계 구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¹²⁾

진의 수도인 咸陽에서 楚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關中—武關—宛—江陵’의 路線임에도 불구하고 J1⑯52簡에 보이는 “焉—鎬—江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道路를 개설한 것은 J1⑩12와 J1⑰14간에 보이는 지명과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里程簡 J1⑩12, J1⑰14, J1⑯52簡은 현재의 河北省에서 湖南省에 이르는 중국의 영역을 東과 西로 양분하는 경계선과 戰國時代 燕國에서 楚國에 이르는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망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의 지역을 關內와 關外로 구분한 五關 지역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12) 王子今·劉華祝, 「說張家山漢簡《二年律令·津關令》所見五關」, 『中國歷史文物』2003-1期.

사실은 里程簡의 의미가 단순한 郵路上에 보이는 지명을 표기한 것이 아니다. “關東六國”의 의미가 戰國時代 秦과 六國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反秦의 움직임에 대한 방어선의 역할과 內史지역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특히 이 노선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遷陵縣은 J1⑩5와 J1⑩6의 “今洞庭兵輸內史及巴、南郡、蒼梧、輸甲兵當傳者多節傳之.”의 기사 내용처럼 민족적·문화적으로 이질적이었던 남방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의 강화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2. 漢初의 영역 확장과 二年律令

漢5年(B.C.202) 12월, 項羽가 패배한 후 漢王 劉邦은 황제로 추대되고 제후왕들을 封建하고 있다. 즉 같은 해 2월 汜水의 북쪽에서 황제로 추대된 이후,¹³⁾ 고조는 韓信 등을 封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史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황제는 “義帝께서 後嗣가 없다.”라고 하시며, 齊王 韓信은 楚지역의 풍속을 잘 알기 때문에 楚로 이주시켜(徙) 楚王으로 임명하고 下邳를 도읍으로 삼았다. 建成侯 彭越은 梁王으로 삼아 도읍을 定陶에 정하였다. …(중략)… 淮南王 黥布·燕王 臧荼·趙王 張敖의 封號는 모두 예전과 같게 하였다.¹⁴⁾

무엇보다도 상기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齊王 韓信이 초지역의 습속을 잘 알고 있다는 명분으로 楚王으로 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漢書』 「高帝紀·下」에서는 “초지역은 이미 평정되었고 義帝는 後嗣가 없으니 초지역 사람들을 ‘存恤’하고자 제후왕을 정하였다. 齊王 韓信은 초 지역의 풍속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다시 楚王으로 삼아 淮北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下邳를 도읍으로 삼았다.”¹⁵⁾라고 하여 초왕으로의 임명 배경을 “초지역 사람들을 ‘存恤’하고자(欲存恤楚衆)” 함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초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후술함). 이와같은 제후왕의 封建으로 인하여 고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同姓의 제후들이 무려 백 여인에 다다랐고 이들이 세력이 천자를 참람했다는 사실¹⁶⁾과 이와는 달리 漢은 단지 15郡만을 통치하

13) 『史記』 권8 「高祖本紀」 p.379, “(五年) 甲午, 乃即皇帝位汜水之陽.”

14) 『史記』 권8 「高祖本紀」 p.380.

15) 『漢書』 권1 「高帝紀·下」, p.51.

16) 漢初 초기의 제후국에 대해서는 五井直弘, 「中國古代帝國の一考—前漢における封建諸侯につい

였다는 기사는 고조시기의 불안정한 정치적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⁷⁾

『史記』 「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 언급된 漢이 직접 통치한 15개 郡은 【표1】 1)~4)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는 秦·漢初 郡縣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二年律令』 「秩律」¹⁸⁾에 보이는 郡名의 내용은 『史記』의 不明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였으니 “그 가운데 공주와 열후의 식읍을 포함한다(公主列侯頗食邑其中)”의 부분이 바로 「秩律」에 보이는 縣의 분포상황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 좋은 예이다.¹⁹⁾ 먼저 한초의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할 군명이 보이는 기사를 종합하면 【표1】와 같다.

【표1】 『史記』·二年律令에 보이는 지역 분포

出典	地域郡名
『史記』秦始皇本紀	1)秦地, 2)巴·蜀·漢中, 3)南郡(宛, 郢), 4)河東·太原·上黨(上郡以東) 5)三川(東至滎陽)
『史記』漢興以來諸侯王年表	1)三河·東郡·潁川·南陽, 2)自江陵以西至蜀, 3)北自雲中至隴西, 4)內史
『二年律令』秩律 ²⁰⁾	1)內史, 2)漢中·巴·廣漢·蜀, 3)北地·上·隴西·雲中, 3)河東·(太原)·上黨·河內, 4)河南·南陽·南·潁川·東
『二年律令』行書律	1)南, 2)北地·上·隴西, 3)巴·蜀·漢中

【표1】에 보이는 郡名을 莊襄王이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한 시점의 「秦始皇本紀」 기사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1)秦地의 경우는 內史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모두 보인다. 行書律의 경우 역시 해당 법령이 중앙에서 전달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역시 그

て, 『漢代の豪族社會と國家』名著刊行會, 2001; 周振鶴, 『西漢政區地理』, 人民出版社, 1987 등을 참조.

17) 『史記』 권17 「漢興以來諸侯王年表」 pp.801~802. 특히 한이 직접 통치한 지역을 “三河·東郡·潁川·南陽, 自江陵以西至蜀, 北自雲中至隴西, 與內史 凡十五郡 而公主列侯 頗食邑其中.”이라 표기하고 있다.

18) 「秩律」은 『史記』에 보이지 않는 漢代 초기의 관료조직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漢書』百官公卿表나 地理志에 해당하는 中央 및 地方官制와 관련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山田勝芳, 「張家山第二四七號漢墓竹簡 『二年律令』と秦漢史研究」, 『日本秦漢史學會會報』3, 2002)

19) 藤田勝久, 「張家山漢簡「秩律」と漢王朝の領域」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人文科學編)』(제28호), 2010, p.23. 한편 金龍濂,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중 秩律 地名 譯註」 『中國古中世史研究』제17집, 2007에서는 「秩律」地名은 郡에 따라 배열되었으며, 그 郡들은 다시 內史와의 위치관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귀속됨을 논증하였다.

20) 『二年律令』 「秩律」의 지역구분은 金龍濂, 위의 논문(2007), p.388의 <표10>의 순서에 따랐다.

지명은 확인된다. 2)巴·蜀·漢中 지역은 『史記』 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서는 “自江陵以西至蜀”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모든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南郡지역은 「秩律」의 경우에는 江陵지역 인근이므로 이 역시 모든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4)河東·太原·上黨지역과 5)三川지역은 漢興以來諸侯王年表와 行書律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시 「二年律令」 行書律의 264簡~268簡의 관련 내용을 다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南郡 江水이남에서 索南水에 이르기까지는 20里마다 1郵를 둔다(264簡)
- ② 北地·上隴西지역에서는 30里마다 1郵를 설치한다.(266簡)
- ③ 巴·蜀·漢中·下辨·故道 및 雞·劔에 속한 5郵(268簡)

행서울에 근거한 漢初의 郵路는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대략 3개의 방향임을 알 수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河東·太原·上黨·三川 지역으로의 郵路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아마도 한초 중앙권력의 미약함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중앙 권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秩律」에 「行書律」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二年律令」 단계에서 반영된 지역은 漢初에 직할 지역이 15郡에 불과하였다는 『史記』 漢興以來諸侯王年表의 기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같은 한초의 정황은 선제시기와 비교하여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敦煌懸泉置漢簡 II0111④:3簡에는 전국의 지역명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元康四年五月丁亥朔丁未，長安令安國·守獄丞左·屬禹敢言之 謹髡鉗亡者田敖·力等三人年·長·物·色，去時所衣服 調移左馮翊·右扶風·大常·弘農·河南·河內·河東·潁川·南陽·天水·隴西·安定·北地·金城·西河·張掖·酒泉·敦煌·武都·漢中·廣漢·蜀郡……²¹⁾

II0111④:3의 주요 내용은 前漢 宣帝 元康4年(B.C.62) 5월 21일에 長安令 安國을 비롯한 관리들이 髡鉗의 형벌을 받고 도망한 田敖 등 3인을 잡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신장, 휴대물품, 피부색, 도망할 때 입고 있는 옷 등을 전국 각지에 통보한 수배령이다. 전국 각지에 수배령을 내릴 때 일관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있다. 그 순서는 a) 동남방향: 三輔

21) 胡平生·張德芳, 『敦煌懸泉置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 2001, p.21.

地域(左馮翊·右扶風·大常) → 司隸部(弘農·河南·河內·河東) → 豫州 및 荊州 北部(潁川·南陽), b)西北(혹은 河西) 방향: 涼州刺史部(天水·隴西·安定·北地·金城·西河·張掖·酒泉·敦煌), c) 서남방향: 益州刺史部 북부(武都·漢中·廣漢·蜀郡) 등의 순서로 기입하고 있다. 행서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河東 등의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안에서 통보한 수배령과 같이 전국에 긴급히 통고해야 문서들 역시 이들 지역에 설치된 郵路를 이용하여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서울에는 河東·太原·上黨 등의 지역명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二年律令』 津關令에 보이는 五關의 위치에 주목하여 보자.

制詔御史가 扞關·鄖關·武關·函谷關·臨晉關 및 諸塞의 河津에 令을 내리기를, 黃金·黃金으로 만든 祭器 및 銅을 出(出關)하지 못하도록 禁함에, 犯令이 있다(制詔御史其令扞<扞>關鄖關武關函谷【關】臨晉關及諸其塞之河津禁毋出黃金諸奠黃金器及銅有犯令)²²⁾

五關의 위치는 정리소조의 견해에 의하면, 扞關은 巴郡(현 四川 奉節 동쪽), 鄖關은 漢中郡 長利縣(현 湖北 鄖縣 동북), 武關은 弘農郡 商縣(현 陝西 商州 동), 函谷關은 弘農郡 農縣(현 河南 靈寶 서남), 臨晉關은 左馮翊(현 陝西 大荔 東朝邑鎮 동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실질적인 지배지역을 추측케 하는 자료이다. 진관령의 기사에 따르면 한초 중앙정부에서는 五關을 통한 인적·물적자원의 關外 반출을 철저히 봉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기 인용한 기사에 보이는 황금의 반출 금지 뿐만 아니라 진관령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馬 반출 금지 기사가 확인된다.

…議하여, “民을 금하여 사사로이 말을 사서 扞關·鄖關·函谷關·武關 및 모든 河·塞의 津·關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議 禁民毋得私買馬以出扞<扞>關鄖關函谷【關】·武關及諸河塞津關)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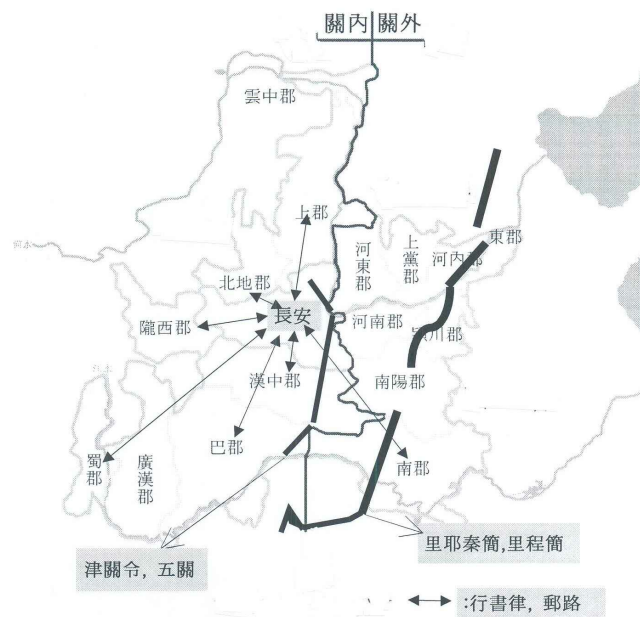
漢初 扞關·鄖關·武關·函谷關·臨晉關은 교통의 요지이자 관중을 둘러싼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히 武關·函谷關·臨晉關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²⁴⁾ 상기의 법령은 關

22) 『二年律令』 津關令, p.206.

23) 『二年律令』 津關令, p.207.

24) 『漢書』 권1 「高祖紀」 pp.21~22, “八月, 沛公攻武關, 入秦” 應劭注: “武關, 秦南關, 通南陽.” <<漢書>> 荊燕吳傳: “吳王之初發也, 吳臣田祿伯爲大將軍. 田祿伯曰: 兵屯聚而西, 無它奇道, 難以立功. 臣願得五萬人, 別循江淮而上, 收淮南·長沙, 入武關, 與大王會, 此亦一奇也.”

中區域²⁵⁾으로부터 여타 지역으로의 黃金·黃金祭器·銅·馬 등의 물품 반출을 금하는 詔書로서 『新書』의 관련기사에 의하면 이들 五關은 동남부의 長沙國과 淮南國, 동부의 淮陽과 楚, 동북부의 代와 趙 등 한초 제후왕국과 인접하여 제후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형세이었다.²⁶⁾ 따라서 이와같은 한초의 형세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長安지역을 중심으로 한 ‘疆幹弱枝’ 정책을 통한 京畿지방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며, 五關지역내의 모든 물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전국을 통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漢初 五關의 지리적 위치가 里耶秦簡 里程簡에 보이는 里程보다도 그 경계선이 서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한초의 정치적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²⁷⁾



(【그림 1】 참조.)

따라서 行書律의 郵路가 五關 지역 내로 국한되어 10里, 20里, 30里 마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도 장안을 중심으로 한 京畿지역 통치의 강화를 위한 행

25) 漢初 關中 지역의 津關과 形勢에 대해서는 楊建, 『西漢初期津關制度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0, pp.55~64 참조.

26) 『新書』 「壹通」 “所謂建武關·函谷關·臨晉關者, 大抵爲備山東諸侯也. 天子之制在陛下, 今諸侯多其力, 故建關而備之, 若秦時之備六國也.”

27) 漢初 中央政府와 諸侯國의 관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二年律令 「賊律」1~3簡, 「捕律」150~151簡 및 奏讞書 17~27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적 수요에 따른 조직 개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제국 질서의 구현

무제 이전 시기까지 각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은 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적 요소로서 감지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B.C. 3세기 무렵부터 하서 지역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여 한의 서북 변경을 위협한 흉노에 대해서, 한은 타협과 양보를 중심으로 한 화친책 즉 ‘변경의 안정’과 ‘歲幣의 보장’을 통해서 변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²⁸⁾ 또한 한초에 外臣이 되기를 약속한 朝鮮²⁹⁾과 南越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자 文帝시기에는 이에 대한 정벌까지 논의할 정도였지만,³⁰⁾ 이 시기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하’ 질서의 구현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³¹⁾

文·景帝시기 吳楚7國 반란의 진압과 경제적 안정, 文學之士의 등용과 같은 사회 변화는 점차 주변민족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무제 즉위 초, 국가 경제의 풍요로움은 본격적인 천하질서의 구현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史記』 권30 「平準書」의 기사를 검토해 보자.

이로부터[自是之後] 嚴助, 朱買臣 등은 東甌를 (江淮地方으로) 끌어들이고 兩越의 일에 개입하면서, 江淮地域은 소란스러워졌으며 많은 軍費가 소모되었다. 唐蒙과 司馬相如是 西南夷로 통하는 길을 열었는데, 산을 뚫어 千餘里에 달하는 길을 통하게 하여 巴蜀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나 巴蜀의 백성은 그 일로 고달팠다. 彭吳가 穢와 朝鮮으로 통하는 길을 뚫어 滄海郡을 설치하자, 燕齊지방의 백성이 잇달아 봉기를 일으켰다. 王恢가 馬邑에서 계락을

28) 『史記』 권110 「匈奴列傳」 pp.2894~2895, “漢亦引兵而罷 使劉敬結和親之約. 是後韓王信爲匈奴將及趙利·王黃等數背約 侵盜代·雲中…(중략)…是時匈奴以漢將衆往降 故冒頓常往來侵盜代地. 於是漢患之 高帝乃使劉敬奉宗室女公主爲單于闕氏 歲奉匈奴絮繒酒米食物各有數 約爲昆弟以和親 冒頓乃少止.”

29) 『史記』 권115 「朝鮮列傳」 p.2986,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30) 『史記』 권25 「律書」 p.1242, “歷至孝文即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後且擁兵阻隄 選孺觀望…(중략)…征討逆黨 以一封疆.”

31) 武帝이전 시기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화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華夷觀에 입각한 賈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漢書』 권48 「賈誼傳」 p.2240, “凡天子者 天下之首何也? 上也. 蠻夷者 天下之足何也? 下也. 今匈奴媼媼侵掠 至不敬也 爲天下患 至無已也 而漢歲致金絮采繒以奉之. 夷狄征令 是主上之操也; 天子共貢 是臣下之禮也. 足反居上 首顧居下 倒懸如此 莫之能解 猶爲國有人乎?”).

꾸미자 匈奴는 화친을 끊고 北邊을 침략하여 소란을 일으켰기에 전쟁은 계속되고 병사가 갑옷을 벗지 않으니 天下百姓이 그 노역에 시달리고 전쟁의 참화는 나날이 심해졌다.(p.1421)

상기 인용한 기사의 내용 중, 처음 구절인 “이로부터[自是之後]”란 무제 즉위 초기의 경제적 안정을 의미하며,³²⁾ 이와같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은 무제로 하여금 종래 굴욕적인 관계에 처해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西南夷, 朝鮮, 兩越, 匈奴 즉 ‘四夷’에 대하여 더 이상 화친이 아닌 적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더욱이 주변 민족을 통합하여 ‘一統’을 이루려는 무제의 강력한 의지는³³⁾ 인용 기사의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주변민족과의 전쟁과 ‘一統’을 향한 무제의 의지는 邊郡의 설치로 완성되었다. 즉 주변 민족의 거주지역에 대한 변군의 설치는 곧 ‘중국’을 확장함과 동시에 주변민족의 滅絶을 의미한다.³⁴⁾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주변민족을 멸절해서라도 한의 지배영역으로 편입시키려 한 것은 內郡의 존립과 안정된 천하질서를 위해서는 두 지역이 결코 분리된 지역이 아닌 ‘하나’의 존재라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듯 하다. 이러한 내용은 『鹽鐵論』 권8 「誅秦」의 기사 중 ‘중국’과 변경을 사람의 팔다리와 몸통에 비유하여 변경이 없으면 國內가 해를 당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⁵⁾ 『염철론』의 기사 내용은 일단 ‘중국’과 주변민족의 대등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사기』와 『한서』 「무제기」 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변민족에 대한 침입 기사는 무제로 하여금 주변민족은 정복과 통합의 대상이었지 결코 대등한 유기적 관계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천하 질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 민족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면 이들로 하여금 ‘내군’과의 일치됨을 강요한 것이다. 즉 무제의 군사적 팽창이 지배영역의 확대³⁶⁾를 통한 ‘天下=華’ 질서의 확대를 의미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배 또는 정복은 ‘化外’의 세

32) 『史記』 권30 「平準書」 p.1420, “都鄙廩庾皆滿 而府庫餘貨財 京師之錢累巨萬 貫朽而不可校.”

33) 『漢書』 권6 「武帝紀」 p.173, “今中國一統而北邊未安 朕甚悼之.”

34) 『史記』 권112 「主父偃傳」 p.2961, “廣中國 滅胡之本也.”

35) 『鹽鐵論校注(定本)』(中華書局, 1992, 이하 『鹽鐵論』) 권8 「誅秦」 p.488, “中國與邊境 猶支體與腹心也. 夫肌膚寒於外 腹腸疾於內 內外之相勞 非相爲助也. …(중략)…故無手足則支體廢 無邊境則內國害.”

36) 『潛夫論』 권5 「救邊」 p.260, “武皇帝攘夷柝境 面數千里 東開樂浪 西置燉煌 南踰交趾 北築朔方 卒定南越 誅斬大宛 武軍所嚮 無不夷滅.”

계에서 ‘王化’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강제적인 조치로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바로 변군의 설치를 의미한다.

『漢書』 권28 「地理志」의 내용에 따르면, 武帝 年間に 西北邊의 옛 匈奴地域에 9개, 西南夷 거주지역에 7개, 南方의 옛 越지역에 9개, 東北邊 東夷 거주지역에 5개 등 31개의 邊郡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秦이 멸망하자 九原郡이 다시 匈奴에게 점령당하고³⁷⁾ 南海·桂林·象郡 또한 南越에게 복속된 이후,³⁸⁾ 무제이전 까지 1개의 邊郡도 설치하지 못한 사정과 비교하면, 무제시기 변경지역에 대한 漢의 확고한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군의 설치는 염철논쟁의 大夫측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즉 『鹽鐵論』의 아래의 기사는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武帝는 百越을 평정하고 나서 (이 지역을) 園圃로 만들었으며 羌胡를 물리치고 나서 (이 지역을) 苑囿로 삼았다. 진기하고 괴이한 異域의 물건들이 後宮에 (가득) 찻으며 良馬와 駿馬가 마굿간에 가득하였다. 匹夫(중예) 좋은 수레와 말을 타지 않은 자가 없었고 民間에서는 꿀과 유자를 배불리 먹었다 이로부터 보건대 邊郡의 이로움 역시 풍요로웠다³⁹⁾
- ② 異域의 물건들이 국내로 유입되면 나라의 쓰임이 풍요로워지고 이로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으면 民의 쓰임이 넉넉해 진다⁴⁰⁾

①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邊郡’이란 百越과 羌胡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무제가 이 지역을 평정하고 나서 園圃와 苑囿로 삼았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그만큼 利가 풍요로운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②의 기사 내용처럼 邊郡에서 생산되는 異物들이 內郡으로 유입된다면 나라의 쓰임이 풍요로워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즉 ①과 ②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른바 ‘邊郡의 利’란 西域으로부터 들어 온 明珠·文甲·通犀·翠羽·蒲梢·龍文·魚目·汗血之馬, 獅子나 猛犬등을 비롯한 사방에서 들어온 진기한 異物과⁴¹⁾ 鐵⁴²⁾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

37) 『史記』 권110 「匈奴列傳」 p.2887~8, “中國擾亂 諸秦所徙適戍邊者皆復去 於是匈奴得寬 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38) 『漢書』 권28 「地理志·下」 pp.1628~1630에 보이는 交州에 屬하는 諸郡【南海·鬱林(桂林)·蒼梧·交趾·合浦·九真·日南(象)】 들은 모두 “武帝元鼎六年開”라고 하여 같은 시기에 漢의 영토로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鹽鐵論』 권3 「未通」 p.190.

40) 『鹽鐵論』 권1 「力耕」 p.28.

41) 『漢書』 권96 「西域傳·下」 p.3928, “聞天馬·葡萄則通大宛·安息. 自是之後 明珠·文甲·通犀·翠羽之珍盈於後宮 蒲梢·龍文·魚目·汗血之馬充於黃門 鉅象·師子·猛犬·大雀之群食於外園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군의 개척은 그 목적이 정치적·군사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경제적 이유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志』 「東夷傳」 韓條 注에 인용된 『魏略』의 기사 내용인 戶來 등 1,500여 인이 辰韓지역에서 벌목을 하다가 진한인에게 잡혀 노예로 종사하였다는⁴³⁾ 사실에서 주변민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욕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⁴⁴⁾

설령 주변 민족에 대한 경제적 욕구의 실현이 강하다할지라도 그 실현 여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흉노의 제압이 가장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元狩2年(121 B.C.) 昆邪王은 4만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來降하였고 漢은 이 지역에다가 屬國과 武威·酒泉郡을 설치하여 새로운 영토로 편입한⁴⁵⁾ 것을 필두로 한은 새로이 개척한 河西 地域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4개의 郡을 설치한 것이다. 무제 연간에 설치된 하서4군의 주요 목적은 『史記』 권123 「大宛列傳」(p.3170)에 인용된 酒泉郡 설치목적 즉 “酒泉郡을 설치하여 서북(지역)의 국가와 교류[通]하고자 하였다(初置酒泉郡以通西北國)” 라는 기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천군의 설치 목적은 “通西北國”이 분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漢書』 권73 「韋賢傳」(p.3126), “西伐大宛 并三十六國 結烏孫 起敦煌 酒泉 張掖 以隔婁羌 裂匈奴之右肩”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흉노의 “右肩”을 자르는 것, 즉 匈奴와 羌의 연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史記』 권110 「匈奴列傳」(p.2913)의 기사인 “是時(元封三年) 而西置酒泉郡 以隔絕胡與羌通之路”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張掖郡의 건립으로 흉노와 강(강)의 연계 역시 단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이처럼 하서 변경지역에 대한 한의 확고한 지배는 무제가 이루고자 하는 천하의 ‘大一統’에 한걸음 나가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한 것처럼 무제연간 西南夷와 南越, 그리고 朝鮮에 대한 지배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서남이와 남월지역에 대한 군

殊方異物 四面而至”.

42)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條, p.853,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又以供給二郡.”

43)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條, p.851, “至王莽地皇時 廉斯鎰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樂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44) 김한규, 『韓中關係史』 I (아르케, 1999), 제2장 「漢郡縣이 遼東에 設置된 시기의 韓中關係」 p.151

45) 『漢書』 권8 「武帝紀」 p.176, “(元狩 2年 秋) 匈奴昆邪王殺休屠王 并將其衆合四萬餘人來降 置五屬國以處之. 以其地爲武威·酒泉郡.”

46) 『鹽鐵論』 「西域篇」 p.499, “建張掖以西 隔絕羌胡 瓜分其援”

현지배의 계기는 위에서 서술한 하서지역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배의 상황을 전하는 다음의 기사에 주목해 보자.

- ① 漢連出兵三歲 誅羌 滅兩粵 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 且以其故俗治 無賦稅⁴⁷⁾
 ② 武帝平之 內屬桂陽 民居深山 濱溪谷 習其風土 不出田租⁴⁸⁾

위의 두 기사는 武帝이후 異民族 거주지를 포함한 新設된 邊郡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지역의 習俗에 따라 다스리고 賦稅나 田租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즉 해당지역에 郡縣體系가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來降한 이민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한 물리적 강제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⁴⁹⁾ 예를 들면 高祖가 三秦의 땅을 평정한 이후, 渠帥 7姓에게 徭役을 면제하고 租賦를 납입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들 외의 者들에게는 每年 賣錢을 1인당 40錢을 납입케 한 사실은⁵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기사의 공통적인 내용은“無賦稅”, “不出田租”, “不輸租賦”등과 같은 세금의 면제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①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제가 연속적인 출병을 통해 羌과 兩越을 멸하고 나서 그 습속에 따라 통치하며 조세를 거두지 않은 番禺以西에서 蜀南에 이르기까지 설치한 17개의 初郡에서 시행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경감과 같은 우대 조치는 漢 武帝가 邊郡을 개척할 시기까지 시행된 듯하다. 왜냐하면 무제시기 이후에는 주변민족에 대한 조세 우대 조치보다는 불공평한 조세 징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기사가 빈번히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후한대의 기사인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의 주요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7) 『漢書』 권24 「食貨志·下」 p.1174.

48) 『後漢書』 권76 「衛颯傳」 p.2459.

49) 田繼周, 「秦漢王朝의 民族政策」(『中國歷代民族政策研究』 青海人民出版社, 1993) ; 山田勝芳, 『秦漢財政收入の研究』(汲古書院, 1993)에서는 漢化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漢人에 비하여 낮은 稅를 부과하고 蠻夷에 대한 優待措置 뿐만아니라 懷柔政策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50) 『後漢書』 권86 「南蠻西南夷列傳」 p.2842, “至高祖爲漢王 發夷人環伐三秦 秦地既定 乃遣環巴中 復其渠帥羅·朴·督·鄂·度·夕·龔七姓 不輸租賦 餘戶乃歲入賣錢 口四十.” 이와 관련하여 高祖11年(B.C.196) 8월에 南郡의 夷道 潛와 丞 嘉가 屯에 징발되어 가는 도중, 도망한 蠻夷 毋憂에 대한 罪狀을 廷尉에게 의논한 江陵張家山247號漢墓出土竹簡「奏讞書」(《奏讞書》(江陵張家山漢簡整理小組, 「江陵張家山漢簡《奏讞書》釋文(一)」, 『文物』 1993-8)에 의하면 賣錢은 56錢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後漢書』의 기사인 賣錢 40錢은 秦地 평정의 功에 의해서 16錢이 減해진 기사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華陽國志』 권1 「巴志」 “漢興 亦從高祖定亂 有功. 高祖因復之 專以射虎爲事. 戶歲出賣錢口四十. 故世號白虎復夷.”)

- ①安帝 원초2년(115) 澧中蠻은 군현에서 요역과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지 않자 (이에) 원한을 품고 마침내 允中 등 여러 종족 2천 여명을 결속하여 城을 공격하고 長吏를 살해하였다…(중략)…順帝 永和元年(136) 무릉태수가 上書하여 만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인에 비하여 租賦를 증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논의한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였다…(중략)…그 해 겨울 澧中·濃中蠻이 貢布가 옛 규약과 다르자 항의하였다가 마침내 향리를 살해하고 종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다음 해 봄, 蠻夷 2만 명이 充城을 둘러싸고 8천 여명이 吏道에서 노략질하자 무릉태수 이진을 파견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p.2833)
- ②和帝 영원13년(101) 巫縣지역 蠻夷 許聖 등은 郡에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지 않자 원한을 품고 마침내 마을에 진을 치고 반란을 일으켰다(p.2841)

①의 주요 내용은 安帝 元初2年(115) 군현이 종래처럼 공평하게 세역징수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澧中蠻이 이천 여 인의 만이들을 결집시켜 현성을 공격하고 장리를 살해한 사건이다. 또한 順帝 永和元年(136) 무릉태수가 만이에게 징수하는 租賦를 증가해야 한다는 상소의 내용에 대해 찬성하였다는 점과 만이들이 납부하는 貢布가 예전의 규약과 다르자 鄉吏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다. 이와 같이 한 초에는 蠻夷에 대해 慰撫 혹은 優待的인 ‘차별’적 대우를 취하였지만 후한시기에는 만이들이 불만을 품고 관리를 살해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상반된 상황이 전개된 까닭은 무엇인가?

장가산한간 주언서 案例1에서 확인한 蠻夷에 대한 두 종류의 조치 가운데 律令의 직접적 지배의 관철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후한시대 만이들이 거주한 지역에 한초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법령의 실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湖南省 張家界市 근처 古人堤遺蹟에서 발견된 후한시대 簡牘의 내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⁵¹⁾ 발견된 간독은 총 90片으로 간독의 文字 가운데에는 後漢의 “永元”·“永初”의 연호가 보인다. 바로 이 시기는 상기한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의 南蠻 반란시기와도 일치하는 시기이다. 또한 간독 내용 중 주목을 끄는 것은 漢律과 漢律 목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14簡 正面에 보이는 「賊律」 조문의 일부 내용과 29簡 正面에 기록되어 있는 「盜律」과 「賊律」의 목록이다.⁵²⁾ 간독에 보이는 율령이 시행된 시기가 呂后2年 (B.C.184) 이라 추정되는 「이년율령」과 “永元”·“永初”라는 후한의 연호가 확인된 古人堤簡牘의 법률 집행의 시간적 차이는 무려

51) 古人堤遺蹟 및 簡牘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석문은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研究所, 「湖南張家界古人堤遺址與出土簡牘概述」, 『中國歷史文物』2003年 2期.

52)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研究所, 「湖南張家界古人堤簡牘釋文與簡注」, 『中國歷史文物』2003年 2期, 76쪽, p.79.

300여 년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 의한 군현지배질서가 만이지역에도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군현 지배의 관철은 古人提漢簡의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里耶秦簡』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秦이 楚지역을 점령한 이후, 곧바로 습속과 문화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一元的 제국 질서를 강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조치는 비단 南蠻지역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四夷지역을 모두 동일한 방식의 군현질서로 실시했을 것이다.

반면에 조선에 대한 군현지배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더욱 고려된 듯하다. 한의 조선에 대한 군현지배의 시작은 점차 강성해지는 조선 세력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되었다. 즉 『사기』 권115 「조선열전」의 관련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惠帝·高后시기 : 漢의 外臣→ 한으로부터 병기와 재물을 받음→주변 민족의 복속. 2) 武帝 元封 2년(109 B.C.) : 조선 右渠王의 세력 증대와 황제의 조칙을 받들지 않음. 3) 元봉 3년(108 B.C.) 조선 정벌, 4郡 설치

『사기』 「조선열전」의 기사에 의하면 漢4郡 설치의 주된 원인은 조선 우거왕이 외신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한의 군현지배는 한4군 설치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무제 元朔元年(128 B.C.)에 28만여 인이 내항하자 蒼海郡을 설치하였다가 원삭3년(126 B.C.)폐지한⁵³⁾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後漢書』에서는“濊君 南閭 등이 우거왕을 배신하여 28만 명을 이끌고 遼東에 內屬했다는 기사” 만을 보충 삼입하여 창해군 설치와 폐지와 관한 이해를 돕는 듯하다.⁵⁴⁾ 그 결과 상기 기사 역시 창해군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창해군이 설치된 원삭원년(128 B.C.)에서 한4군이 설치된 원봉3년(108 B.C.)까지의 20년 동안 한의 대외 관계를 검토하면 한의 조선에 대한 군현지배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서』 「무제기」에 의하면 원삭(128~123 B.C.) 및 원수연간(122~117 B.C.)에는 매년 흉노와 전쟁을 치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창해군이 폐지된 원삭3년의

53) 『漢書』 권6 「武帝紀」 pp.169~171, “東夷濊君南閭等 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중략)…三年春罷蒼海郡.”

54)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p.2817, “元朔元年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경우,“(元朔)三年春 罷蒼海郡…(중략)…秋 罷西南夷 城朔方城(p.171).” 이라 하여 서남 이에 대한 군현지배도 폐지하고 흉노와의 접경지역인 삭방군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흉노와의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인 원수2년(121 B.C.)에는 무위군과 주천군을 설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한의 주요 관심 지역은 하서일대였다. 따라서 하서변경으로의 군비물자의 수송⁵⁵⁾이나 이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⁵⁶⁾ 등은 무제로 하여금 동시에 ‘사방’을 천하질서로 편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수2년 조선의 우거왕이 한의 조칙을 받들지 않은 것은 이와같이 한의 세력이 하서일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元鼎5年(112 B.C.) 남월의 반란과 西羌과 흉노의 협공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 해인 원정6년 조선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군현지배의 시행 기사는 한의 ‘一統’ 실현의 마지막 지역이 조선을 비롯한 동북지역임을 시사한다.

원삭 및 원수연간 흉노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공격—사실 元光6年(129 B.C.) 衛靑을 비롯한 公孫敖, 公孫賀, 李廣 등의 출정이 흉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시작이다⁵⁷⁾—은 한초 이래로 성립되었던 흉노와의 관계를 역전은 물론이고 하서 변경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元鼎年間(116~111 B.C.) 및 元狩年間(110~105 B.C.) 흉노에 대한 전 시기와 같은 공세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史記』의 관련 기사에 먼저 주목해 보자.

- ① 대장군은 선우를 포위한 지 14년 후에 죽었다. 그 동안 흉노를 다시 공격하지 않은 것은 한의 軍馬가 적은데다가 마침 남쪽으로는 東越과 南越을 공격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조선을 정벌하고 강족과 서남이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흉노를 공격하지 못하였다.⁵⁸⁾
- ② 이 때 한은 동쪽으로는 예맥과 조선을 정벌하여 郡을 두었으며 서쪽으로는 酒泉郡을 설치하여 흉노와 강족의 통로를 끊었다. 한은 또한 서쪽의 月氏, 大夏 등과 국교를 맺으며

55) 佐原康夫, 「居延漢簡に見える物資の輸送について」, 『東洋史研究』50-1, 1991을 참조.

56) 『史記』 권30 「平準書」 관련기사에 의하면 武帝期를 전후한 경제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文·景帝시기의 “**廩庾皆滿**(p.1420)“의 상태에서 무제의 대외 정벌과 邊境徙民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인한 “**府庫益虛**(p.1422)“의 상태로, 계속되는 흉노와의 전쟁, 황하의 붕괴와 이에 따른 재해의 발생, 투항한 흉노에 대한 지원과 朔方이남의 新秦中 건설 등으로 인한 “**縣官大空**(p.1425)“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盛**“에서 “**衰**“로의 과정이라 이해하고 있다.(拙稿, 『史記』·『漢書』에 서술된 경제관과 그 사상적 배경, 『中國史研究』32집, 2004를 참조.)

57) 『漢書』 권6 「武帝紀」 p.165, “(元鼎6年) 匈奴入上谷 殺略吏民. 遣車騎將軍衛靑出上谷 騎將軍公孫敖出代 輕車將軍公孫賀出雲中 驍騎將軍李廣出雁門.”

58) 『史記』 권111 「衛靑傳」 p.2940.

公主를 (시집보내) 烏孫王의 처로 삼아 흉노의 서쪽 나라의 도움을 차단하였다.⁵⁹⁾

먼저 ①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흉노와의 전쟁이 일단락되자 한의 군사적 예봉은 兩越, 朝鮮, 西南夷로 향하고 있다. 또한 ②에 보이는 주천군의 설치가 궁극적으로 흉노와 강족 및 서역과의 관계 단절이라면, 조선 지역에 건설한 군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漢書』 권73 「韋賢傳」의 기사 내용이 敦煌, 酒泉, 張掖을 비롯한 ‘하서4군’의 설치 목적이 “裂匈奴之右肩”을 의미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漢4郡’의 설치 목적을 “斷匈奴之左臂”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⁶⁰⁾ 조선의 정벌은 사실상 흉노 세력의 근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조선 지역의 군현설치는 흉노에 대한 배후 압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⁶¹⁾ 동시에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한 조선에 대한 지배의 관철이기도 한 점에서 兩越이나 西南夷에 대한 군현지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4. 『동북아역사지도』에 반영된 진한시기 영역 표기 및 문제점 :

4-1. 포괄적인 문제점

■ 지도의 범위 및 형태

먼저 본 지도 작성의 공간적 범위인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지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동북아역사지도』라면 중국만이 아닌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월남, 인도차이나 반도 등까지 다루어야 함에도 본 지도에는 중국만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서 제작된 중국역사지도와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일본, 몽골, 서역 지역은 포함시켜야 동북아역사지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이하 『지도집』) 보다도 좁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각 지도의 주제 선정에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담기양 『지도집』 진한부분은 모두 35부분(진5, 서한15, 동한1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 원칙도 행정단위를 기초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진한의 행정구역 혹은 지명의 위치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9) 『史記』 권110 「匈奴列傳」 p.2913.

60) 『漢書』 권73 「韋玄傳」 p.3126,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61) 權五重, 『樂浪郡研究』(一潮閣, 1992) 제1장 「樂浪郡의 設置背景」 p.30에서 한의 조선 원정과 군현설치는 흉노에 대한 우회적인 공격형태라고 이해한다.

이에 반해 『동북아역사지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진한시기 주요 연대를 기준년도와 포괄년도를 중심으로 지도를 작성한 것인데,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담기양 『지도집』에 비해 상당히 공을 들인 부분은 縣에 대한 상세한 위치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상세한 지명을 입력한 나머지 오히려 가독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한 듯 하다.(EX : 「전한형세도 기원전 208-2년」)

■ 郡, 省 표기의 일관성 문제

현재의 행정구역을 표기하였지만 일관된 표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 중원지역의 省에는 ‘성’ 글자 빼고 산둥, 산시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동북쪽에 있는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은 ‘성’까지 표기하고 있다. 또한 진한식의 행정구역인 郡은 요동, 요서, 상산 등으로 ‘군’ 빼고 이름만 표기하고 있지만, 요동군과 요동은 서로 다른 의미와 위치를 나타내므로 郡 표기를 요동으로만 하였을 경우 요동과 요동군이 혼동될 수 있다. 더욱이 군명이 한 글자인 경우는 ‘郡’을 표기하고 있다. 예를들면 南郡 등의 명칭이다. 따라서 ‘郡’ 글자 표기가 필요하다.

■ 지명 표출의 범위

지명을 縣단위 까지 표출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알아 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현대지명을 표기한 노란색은 색이 흐려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명의 표기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형세도에서는 큰 단위인 州(13주), 郡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현의 위치는 세부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이 가독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명 표기 위치의 불일치

대표적인 경우는 三輔의 위치이다. 삼보의 위치를 표기한 것은 「무제시기 한왕조 기원전141-기원전88년」(경조윤 누락017_C012_1; _2는 경조윤 표기), 「전한형세도」(이상 좌풍익과 경조윤 위치 바뀜, 확인요), 「전한대 경기구역 기원전 208-2년」(황열배치), 「신왕조의 행정 구역 기원전88-22년」(_01:경조윤 누락, _02:좌풍익과 경조윤 위치 바뀜), 「후한형세도 23-220년」(정확함) 등이다. 전한에서 후한에 이르는 시기에 특

정지역의 위치가 변동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일 주제와 시기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표기의 유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 중국어 표기 문제

산동성 → 산둥성, 광둥성 → 광둥성, 안휘성→안웨이성(?)

■ 수계, 강, 호수 등의 명칭 표출 필요

고대사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영역이 나누어짐

패수, 요수, 동정호, 태행산맥 등

■ 한반도 북부에 조선(?) 표기

- 현재의 북조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빨간글씨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현재지명으로 보임. 그렇다면 한국도 표기 필요

- 한반도 북부에 현대지명 평양, 단동, 신의주, 개성 표출 필요

■ 한반도 남쪽에 존재했던 마한, 진한, 변한 등과 고구려, 옥저 등의 諸國도 표기 필요

■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군들은 () 안에 연대 표기 필요

4-2. 제작 지도별 문제점

4-2-1 : 「진의 통일」

■ 제작 시점을 기원전 230 ~ 기원전 209로 설정하고 지도의 제목을 「진의 통일」로 해놓고 포괄연도를 230년부터 잡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 진제국의 영역이 표시되지 않았음

■ 동북아 역사지도라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표시 필요

- 진시황의 진격도

- 진시황제의 순행로 등도 표시 필요
- 진장성
- 전국시대의 장성

■ 요동, 요서 등

요동, 요동군인지 명확한 구분 필요

진대에 이미 요동군 설치되었기 때문에 요동군과 요동은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

■ 군, 현명 생략하여 혼란

당시에 존재했던 행정구역인 만큼 군과 현을 붙여 표기

< 한서 / 지리지 >

遼西郡 秦置有小水四十八 并行三千四十六里 屬幽州

臨兪 兪水首收白狼 東入塞外 又有侯水北入兪 莽曰馮德 (兪는 水+兪)

루 下官水南入海 又有碣石水賓水 皆南入官 莽曰選武

遼東郡秦置屬幽州

無慮

望平 大遼水出塞外 南至安市入海 行千二百五十里 莽曰長說

安市 西安平 莽曰北安平

- 요동, 요수, 갈석산, 의무려산의 위치 (『한서』 「지리지」)
- 산해관의 위치
- 산동 → 산똥
- 타이산산 (?)
- 함양의 크기 확대
- 서안을 표기

■ 현재의 도시와 역사적인 진대의 도시의 색깔 구분 필요

→ 빨강색과 검정색 구분 ex) 룡서현의 狄道는 현재의 도시

■ 룡서군 적도표기 獮道→狄道

袍罕의 위치 - 위쪽으로 이동해야

4-2-2 「전한형세도」

■ 현도군의 위치

현도는 이 기간에 3번을 이동하는 것으로 사서에 보이기 때문에 현도의 위치를 한 군데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현도의 위치를 세 곳에 표기하고 ()안에 置廢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한 표기임.

■ 서쪽의 서역도호부

- 돈황군 옆에 옥문관, 양관 등의 관도 표기
- 전체적으로 關 누락 ; 관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 아울러 「이년율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五關이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함(제작한 지도상에 표기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표기된 지명이 너무나도 상세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
- 창하이호 → 서해가 아닌지 확인
- 西海郡 표기 누락

4-2-3 「무제시기의 한왕조 ; BC141 ~ BC88년」

■ 북방, 서방지역에 있던 이민족

한 무제 시기 북방지역에 존재했던 부여, 옥저, 흉노, 선비 등 표출 필요

■ 북방지역에 있었던 부여

- 진번(BC 104- BC 82년) 표출 누락
- 임둔군에는 BC 82에 치폐되므로 연도 표시 필요
- 삼한 마한, 진한, 변한 표출 필요
- 서쪽 룡서군 우측에 金城郡 누락
- 太原郡 누락 (담기양13-14참조)

- 거록군
- 郁林郡 누락
- 合浦郡 위치 확인
- 상해 좌측 丹揚郡 → 丹陽郡
- 홍콩 香港 표기 필요
- 釣魚島 표기 필요
- 현도군의 위치
BC 75년경 이동
따라서 한 무제 시기에는 압록강 주변에 위치
- 산맥

4-2-4 「후한형세도 23-220」

- 瀋陽 표출 필요
- 후한서동이열전에 나오는 이민족들 표기 필요
부여, 옥저, 읍루, 동예, 진한, 마한, 변한 등
- 上郡 → 上
- 南郡 → 南 으로
두글자여서 군을 붙였다면 탁군, 오군 등도 붙여야 함
- 하이난에 朱崖洲 표기
- 단동 표출 필요
- 난주

■ 정확한 위치확인

- 朔方郡의 위치 확인 (담기양 40-41)
- 安定郡의 위치 확인 ; 좀더 위로 북위 35도 정도
- 호수이름 표기 누락

4-2-5 「후한말기의 형세도 ; AD 184~220, 기준연도 199」

- 중산국, 태원군, 안정국 누락
- 鉅鹿 중복 표기

- 漢昌郡 확인 필요, (210-)으로 표기

『삼국지』 「오서」 <오주전>

15년(210), 예장을 분할하여 과양군(陽郡)을 만들고, 장사군을 나누어 한창군(漢昌郡)을 둬

연도 표기 기준연도인 19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江夏郡 누락
- 항농군(恒農郡) → 홍농군(弘農郡); 확인 필요
漢寧郡
- 삭방군의 위치 확인 필요

漢代 地方 行政地名에 대한 再考

- <동북아역사지도>에 表출된 漢代 郡縣 地名을 중심으로 -

김진우*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동북아역사지도』 중 前漢~新~後漢왕조 시기 지방 행정 지명 세부도에 대해 검수 작업을 진행한 결과이다. 해당 지도는 「前漢 時期의 경기 기원전 208~2년」, 「新왕조 중심부의 행정구역 기원전 88~22년」, 「後漢 時期의 경기 23~220년」 및 「前漢 時期의 산둥반도 기원전 208~2년」, 「後漢 時期의 산둥반도 23~220년」, 「前漢 時期의 중원 남부 기원전 208~2년」, 「後漢 時期의 중원 남부 23~220년」, 「前漢 時期의 북방 기원전 208~2년」, 「後漢 時期의 북방 23~220년」, 「前漢 時期의 요동 기원전 208~2년」, 「後漢 時期의 요동 23~220년」, 「前漢 時期의 장강 유역 기원전 208~2년」, 「後漢 時期의 장강중상류 23~220년」, 「後漢 時期의 장강하류 23~220년」 등 모두 14장이다. 검수 작업은 『漢書』地理志와 『後漢書』百官志를 기본 자료로 하면서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驤 主編)제2책의 해당 지도와 직접 비교를 통해 지명 위치와 경계선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동북아역사지도』의 兩漢 시기 행정지명 세부도 검수 결과

『漢書』地理志에 따르면 漢은 秦의 36郡을 계승하여 한 고조 이래 전국에 걸쳐 郡·國을 설치하는데 武帝시기에 새로운 邊郡의 설치와 함께 그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다. 이후로 크고 작은 廢置가 이어지지만 元帝 初元3년(기원전46년) 오늘날의 해남도에 해당하는 珠崖郡이 폐지되면서 한왕조의 郡·國 총수는 103개(三輔지역을 제외하면 郡 80개, 王國 20개)로 고정되어 큰 변화 없이 『漢書』地理志가 기준 하는 平帝 元始

* 고려대학교

2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郡·國 이하의 행정단위는 縣·邑 1314개, 道 32개, 侯國 241개로 『漢書』地理志는 기록하고 있어서 모두 1587개에 달하고 있다.

후한은 건국 초 光武帝가 郡·國 10여개 縣·邑·道·侯國 4백 여 개를 줄이지만, 이후 다시 增置되면서 郡·國의 총수는 전한과 거의 비슷해져 『後漢書』郡國志가 근거하는 順帝 永和 5년(140년)을 기준으로 郡·國의 총수는 105개가 된다. 다만 하급 행정단위인 縣·邑·道·侯國은 총 1180개로 전한에 비해 1/3 정도 감소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상 간단히 살펴 본 兩漢 시기 지방 행정지명을 지도로 표출한 『동북 아역사지도』의 해당 지역 별 세부도를 譚其驥의 지도와 비교하면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한시기 군·국 103개, 현·읍·도·국 1587개, 후한시기 군·국 105개, 현·읍·도·국 1180개를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당시 지방군현을 內郡과 邊郡지역으로 구분해서 內郡에 해당하는 「전한시기의 경기」, 「후한시기의 경기」, 邊郡에 해당하는 「전한시기의 요동」, 「후한시기의 요동」 지도에 대해서는 전수 검수를 진행했으며, 그 외의 지역 세부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선별해서 일부 군현에 대한 표본 검수를 하면서 지도의 명칭이나 경계선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그 구체적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內郡지역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한 시기의 경기」, 「후한 시기의 경기」 세부도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譚其驥 지도에서는 「司隸(校尉)部」에 해당하는데 전한대는 경조운(12)·우부풍(21)·좌풍익(24)·홍농군(11)·하내군(18)·하남군(22)·하동군(24) 등으로 현·읍·도·후국 132개가 있었고, 후한대는 하남윤(21)·하내군(18)·하동군(20)·홍농군(9)·경조운(10)·좌풍익(13)·우부풍(15) 등으로 현·읍·도·후국 106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前漢 時期의 경기 기원전 208~2년」 지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부풍·경조운·좌풍익의 표시가 너무 조밀해서 구분하기 어렵고, 좌풍익이 실제 위치에서 내려와 경조운 부분에 기입되어 있다.
- 2) 경조운 12개 현 중에서 文帝의 陵邑으로 설치되었던 霸陵이 縣名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 3) 좌풍익 24개 현 중 首縣이자 治所인 高陵縣의 위치에 左輔都尉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 4) 우부풍 21개 현 중 首縣인 渭城縣 옆에 惠帝의 능읍인 安陵이 縣名으로 표기되

어 있지 않다. 또 郿縣의 위치에 右輔都尉의 치소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5) 『한서』지리지에 홍농군이 11개 현이고 博山(侯國)은 남양군에 속하는데, 지도에는 홍농군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 漢代 新·舊의 函谷關 2곳을 모두 표기하고 있으므로 역사 丹水를 따라 내려오면서 商縣과 丹水縣 사이에 위치하는 武關도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6) 『한서』지리지에는 河東郡 24개 현에 端氏縣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상당군 경계 내로 들어가 있다. 지도 상으로 端氏는 沁水를 끼고 하동군 경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또 하동군 치소인 安邑縣 위쪽으로 聞喜縣과 左邑縣이 위치하는데, 비록 거의 동일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지도 상으로 하나의 점에 두 개 현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 하남군 22개 현 중 지도에는 형양현과 경현 사이, 지금의 정주시 동북 교외 지점에 위치하는 故市縣이 누락되어 있다. 전한 시기 설치되었던 故市縣이 후한대에는 폐지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또 緱氏縣 옆으로 영천군에 속하는 綸氏縣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綸氏縣은 위치를 다시 비정하여 영천군 경계 내로 옮겨서 표시해야 한다.

「後漢 時期의 경기 23~220년」지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한대 지도에도 영천군 소속인 綸氏縣이 여전히 하남군 경내에 포함되어 있다. 후한대 綸氏縣은 章帝 建初4년(79년)에 설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분명히 영천군 소속으로 해야 한다.

2) 후한대 지도에도 하동군 소속인 端氏가 상당군 경계로 들어가 있어서 수정되어야 한다.

3) 경조윤의 長安縣에 왕망 때 잠시 바꾸었던 常安이 기입되어 있어 삭제해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霸陵이 현명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4) 우부풍 美陽縣 옆에 安定郡을 잘 못 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漢代 邊郡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요동 지역의 세부도를 살펴보았다.

1) 「前漢 時期의 요동」 「後漢 時期의 요동」지도가 포괄하는 한대 요동은 譚其驥 지도에서는 「幽州刺史部」에 해당하는데, 『동북아역사지도』는 右北平郡의 일부는 「전한시기의 북방」 「후한시기의 북방」지도에 포함시키고 요동 지도에는 右北平郡의 일

부와 요서군, 요동군, 현토군, 낙랑군을 포괄시키고 있다. ‘요동’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요동 지도와 북방 지도 사이에서 右北平郡이 양 쪽으로 갈라져서 郡 전체 영역이 한 지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요서군 14개 현에서 柳城에 西部都尉, 交黎에 東部都尉 치소를 각각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文成縣이 右北平郡의 경계 내로 들어가 있는데 군 경계선을 조정해서 요서군 경내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3) 요동군 18개 현에서는 無慮에 西部都尉, 候城에 中部都尉, 武次에 東部都尉 치소를 각각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동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는 番汗縣은 『한서』지리지의 “沛水出塞外, 西南入海”라는 설명에서 현재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비정해서 譚其驥는 평안북도 지역까지 요동군의 경계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비해 「동북아역사지도」는 西安平縣이 인접한 압록강으로 요동군의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番汗縣이 낙랑군 경계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전한 요동지역의 현토군 3개 현 중 首縣인 高句麗 이외에 上殷台와 西蓋馬가 현토군 경계를 벗어나 표시되어 있다. 아마 현토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굵게 표시한 선은 고구려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무런 명칭 없이 비워두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5) 『한서』지리지의 기록에 따른다면, 낙랑군 25개 현 중에서 昭明에 南部都尉, 不而에 東部都尉 치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 蠶台는 양양 지역, 東隴는 강릉 지역에 표시한 것은 담기양 지도와 일치하지만, 그러면서도 담기양 지도에 비해 낙랑군의 남쪽 경계선을 더 위쪽으로 올리고 있어서 두 현이 낙랑군 경계를 벗어나 있다.

한편 漢四郡, 특히 낙랑군의 위치 문제는 한국사에서 오랫동안 논쟁해 온 예민한 문제여서 현행 한국사 관련 역사지도는 한4군을 일체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낙랑군에 대해 연구논문을 쓰는 것과 이를 시각적인 지도에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지역에 낙랑군 예하 25개 현들을 표기하고 있는 지금의 「전한시기의 요동」, 「후한 시기의 요동」지도가 실제 국내에서 역사지도로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5) 『後漢書』郡國5을 보면 無慮縣이 遼東郡과 遼東屬國에 각각 중복해서 기술되어 있다. 이를 담기양은 요동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후한시기의 요동」지도는 요동속국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 상 無慮는 요동속국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반면 『後漢書』郡國에서 요동군에 속하는 望平縣은

현토군의 경계 내로 표시하고 있다. 『後漢書』郡國의 관할 현을 기준으로 요동속국-요동군-현토군의 경계를 그리게 되면 담기양 지도에서 보이듯이 요하를 따라서 다소 이상한 모양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후한시기의 요동」지도는 경계선을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後漢書』郡國의 군-현 관할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그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전수 검수에 이어 그 밖의 다른 지도들은 무작위로 몇 개 군을 선별해서 아래와 같이 표본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전한시기의 북방」지도에서 渤海郡 26개 현·후국 중 重平縣은 군 경계를 벗어나 아래쪽 平原郡에 들어가 있고, 侯國인 修市는 누락되어 있으며, 河間國에 속하는 候井縣은 발해군 내로 들어와 있다.

2) 「전한시기의 장강유역」지도에서 豫章郡 18개 현·후국 중 首縣이자 郡治所인 南昌의 명칭이 지도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그 외 都尉 치소인 新淦 및 彭澤鄱陽柴桑宜春雩都鄴陽 등은 아예 지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18개 현·후국 중 7개가 지도에 아예 표시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오류라기 보기 힘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도 제작 상의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3) 「후한시기의 중원 남부」지도에서 汝南郡 37개 현·후국 중 征羌 侯國이 누락되어 있다.

3. 『동북아역사지도』 兩漢 시기 행정지명 세부도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이상의 개별 검수 작업 결과에 바탕 하면서, 『동북아역사지도』의 兩漢시기 지방 행정지명 세부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기준년도의 문제: 『동북아역사지도』의 전한시기 지도 기준연도는 2년, 포괄연도는 기원전208년~2년으로 되어있다. 이는 『漢書』地理志의 平帝 元始2년 호구통계에 따르는 것으로 譚其驤의 지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만 『한서』지리지에 나열되는 郡·國과 예하 현·읍·도·후국이 元始2년이라는 동일한 해의 문서에 근거하는 지는 오랫동안 쟁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清代 錢大昕은 일찍이 『二十四考異』(卷9「侯國考」)에서 이 문제에 대해 郡·國은 元始2년 戶口籍을 기준했지만 侯國은 成

帝 元廷 末에 기준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이어서 周振鶴은 『西漢政區地理』(人民出版社, 1987년)에서 『한서』지리지의 평제 원시2년 郡國의 戶口籍과 成帝 元廷 綏和(기원전 12년~기원전 7년) 연간의 郡國 版籍이 혼합된 것으로 특히 縣은 成帝 元廷 綏和 연간의 자료에 기준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漢書』地理志에 기초하는 전한 행정지리의 기준년도를 반드시 元始2년(2년)을 고수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한 가지 더한다면, 『한서』지리지의 前漢 郡國 103개는 한 고조에서 무제 때까지 일련의 增置가 일단락되고 昭宣·元帝 시기 일련의 조정 정비과정을 거친 후 元帝 初元3년(기원전 46년) 珠崖郡이 폐기되면서 이후 평제 원시2년까지 별 다른 변동 없이 고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한 시기 균형 행정지리의 기준 연도는 『한서』지리지에 따라서 평제 원시2년(2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난하기는 하지만, 이 시점이 거의 전한 왕조가 멸망할 때이면서 포괄연도(기원전 208~2년)의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成帝 元廷 綏和 연간의 마지막 해인 綏和2년(기원전 7년)이나, 元帝 初元3년(기원전 46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2) 세부도의 명칭 문제 :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은 양한시기 지도의 세부도를 무제 때 설치되는 13부 자사를 기준으로 각각 나누는데 비해, 『동북아역사지도』는 대략 포괄하는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기·산동반도·중원남부·요동·북방·장강 유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리 공간적인 개념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단위의 구획으로 명확하게 세부도를 나눌 수 있는 담기양의 지도에 비해 각 지도 별로 중첩되거나 명칭과 지도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들도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양한 시기 「중원 남부」지도의 ‘중원 남부’라는 명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른바 ‘中原’의 범주 자체가 황하 중하류 일대인 오늘날의 섬서성·하남성·산서성·호북성·산동성 등을 포괄하면서 다소 애매한 지리적 개념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지도의 범위를 보았을 때 ‘전한 시기 중원 동부’라든지 ‘전한 시기 황하 중하류’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지도가 주로 전한 시기 지방 행정 지명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州·郡의 경계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획선을 구분해 주어야 당시 행정지리를 이해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지도는 「전한 시기의 경기」에 들어가 있는 흥농군·하동군·하내군·하남군과 「전한 시기의 장강 유역」에 있는 남양군이 중복되면서, 주 자사부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곁

은 실선의 경계선과 군의 영역을 표시하는 가는 실선의 경계선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어 역사지도의 ‘可讀性’이라는 점에서 당시 행정지명과 구획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담기양의 해당 부분 지도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점이 좀 더 분명한데, 따라서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4군 부분을 생략하고 예주·연주·기주 부분만을 묶어서 ‘중원 동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밖에도 양한 시기의 「산동반도」지도도 산동반도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서 그 명칭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3) 인문·자연지명의 문제: 지도 내에 인문·자연지명으로 표출했다고 생각되는 빨간 점에 작은 글씨의 표기는 전체적으로 지도의 독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문·자연지명을 표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해당 시대의 지도에 들어가야 하는 명칭인지 불명확한 것들도 보이면서 지도를 난잡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 현 상태로 이 부분들을 지도에 표출할 필요는 없을 듯하지만, 굳이 표출하고자 한다면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서』지리지에 “京兆尹... 華陰, ..., 集靈宮, 武帝起”라는 설명이 있다면 해당 지도의 京兆尹 華陰縣 위치에 ‘集靈宮’을 표기해 주는 것이다.

4) 군현 지명의 표기와 함께 漢代에는 ‘都尉’도 표출해서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도위는 대개 내군 지역에 1명을 두고, 변군 지역은 해당 지역의 형세에 따라서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도위 및 농도위·기도위 등 복수의 도위가 설치되었고 또 군 치소와 달리 별도의 도위 치소를 두었기 때문에 군명·현명과 함께 도위 명도 지도 위에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삼보지역을 보면 좌풍익은 首縣이자 治所인 高陵縣에 左輔都尉의 치소를 두지만 경조윤의 京輔都尉와 우부풍의 右輔都尉는 별도의 지역(경조윤→華陰縣, 우부풍→郿)에 치소를 두고 있어서 각각 구분해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이상으로 『동북아역사지도』의 전한~신~후한 시기 지역 별 행정지명 세부도에 대한 검수작업을 정리하였다. 『동북아역사지도』는 적어도 漢代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존 譚其驥의 『中國歷史地圖集』에 비해 지명의 위치 비정과 경계선의 설정 등에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해 졌다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한 勞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 군현의 위치와 경계선 등의 검수에서 확인된 크고 작은 오류가 적지 않았으며, 또한 언급했다시피 지도의 기준연도와 명칭 등 여전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 이 밖에도 중복된 지명 표기나 난삽한 경계선의 구획과 같이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구태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도의 ‘可讀性’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兩晉南北朝 시대 역사지도 속 境界와 地名

김 성 희*

역사학과 지리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고, 지리학은 공간의 학문이라는 점일 것이다. 인간사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지도란 역사학과 지리학의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한 작업인 동시에 史實을 과거의 지역적 공간에 표현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時空의 遭遇가 있어야만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장구한 역사와 방대한 강역, 그리고 정치, 사회경제적 부침이 잦은 중국사의 특수성은 그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지도의 제작 과정에서 종종 합의되지 못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지도 편찬자들의 의도가 반영되면서 역사지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했다. 20세기 이후 중국에서 적지 않은 수의 중국역사지도가 발간되었지만 구독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찬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조차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팀(이하, 편찬팀)의 수 년에 걸친 역사지도 편찬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역사지도들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방대한 원문 사료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라는 역사학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작업이라 하겠다. 여기에 인간간의 상호관계의 변화 과정을 동시대의 공간에 그려낸다는 지리학의 본질에도 충실하고자 했다. 행정 경계와 여러 지명의 정확한 표출에 고심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양진남북조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경계와 행정 지명의 변화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편찬팀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양진남북조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총 21장의 지도를 지도상에 반영된 기준년도별로 검수하였다. 편찬팀이 향후 중국역사지도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편찬팀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十六國, 東魏,

* 한양대학교

西魏, 北齊, 北周 시기의 경계와 행정지명의 고증 및 중국과 인접국과의 경계의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1. 양진남북조 시대 역사지도의 현황

해당 시대의 역사지도는 총 21장으로, 지도상에 반영된 기준년도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수 대상은 * 표시하였다)

- ①서진대의 행정구역 ; 299년(기준년도)- 265~299년(포괄년도, 이하 동일) *
- ②서진시대의 화북와 요동 ; 299년 - 265~299년
- ③서진시대의 하남 ; 299년 - 265~299년
- ④서진시대의 강주 ; 299년 - 265~299년
- ⑤서진시대의 광주 ; 299년 - 265~299년
- ⑥서진시대의 익주 남부 ; 299년 - 265~299년
- ⑦서진시대의 익주 북부 ; 299년 - 265~299년
- ⑧동진 ; 348년 - 300~350년 *
- ⑨북위와 유송의 남북조 정립 ; 450년 - 441~478년 *
- ⑩북위의 화북 ; 450년 - 441~478년)
- ⑪북위와 유송의 경계1 265~299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기로 판단된다. ; 450년 - 441~478년 *
- ⑫북위와 유송의 경계2 ; 450년 - 441~478년 *
- ⑬북위의 하서 ; 450년 - 441~478년 *
- ⑭유송의 강주와 양주 265~299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기로 판단된다. ; 450년 - 441~478년
- ⑮유송의 광주 ; 450년 - 441~478년
- ⑯유송의 익주 남부 ; 450년 - 441~478년
- ⑰북위와 남제 ; 497년 - 479~502년 *
- ⑱북위 :497년 - 479~502년 *
- ⑲남제 :497년 - 479~502년
- ⑳동위 서위와 양 ; 546년 - 535~546년

㉑북주 북제와 진 ; 577년 - 547~580년

편찬팀이 이상의 역사지도 편찬 과정에서 활용한 기본 자료는 正史 地理志와 州郡志 등의 원사료를 포함한 문헌 사료와 사위락, 『歷史地名大辭典』 등이다.

특기할 것은, 편찬팀은 의도적으로 중국사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三冊 三國·兩晉 時期, 第四冊, 上海, 地圖出版社, 1982(이하 譚, 地圖集)를 처음부터 저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나름의 기준을 갖고 史實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2. 분석의 틀 ; 역사지도 속 境界와 지명

필자는 위의 지도들을 검수한 방법은, 1. 譚, 地圖集 중 최대한 해당 지도의 기준 연도와 일치하거나 인접한 지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境界와 행정 지명의 타당성을 비교하였다. 2. 지도상에 표출된 境界와 행정지명을 『晉書』, 『魏書』 등 정사에 수록된 지리지와 주군지에 표출된 그것과도 비교하였다.

필자가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검수 결과를 정리하겠다.

1. 지도 제작 방식의 실제 ; 境界선 및 행정 지명 설정의 문제이다.

검수 대상 지도들은 노랑색과 파랑색을 사용해 지도상의 해당 시대와 현재의 행정 境界 및 해안선을 표시하였다. 지도에 따라서는 선의 굵기를 달리해 각급 境界를 구분해 표시하고자 했으나 아직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각급 행정 境界와는 달리 남북조를 포함한 국가간 境界는 ⑰, ⑱ 지도에서는 비교적 식별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도들에서는 식별이 어렵다. ⑳, ㉑ 지도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남북조간의 境界는 전반적으로 譚, 地圖集에 비해 남하하여 그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境界 보다는 왕조 자체의 행정 지명의 고증과 설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譚, 地圖集과 같이 국가간 境界와 강역의 표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지명 설정의 일관성에 관한 부분이다. 위의 지도들은 주, 군, 현급의 행정 지명과 고고유적지를 포함한 인문사회(자연)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행정지명의 급간

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 크기나 색의 농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특히 기호를 사용해 행정지명의 급간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몇몇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2. 전체도와 세부도의 항목 설정의 타당성 ; 행정지명 표출의 편차 문제

총 21장의 지도 중 전체도는 총 6장이다. ①서진대의 행정구역 265~299년, ⑧동진 300~350년, ⑨북위와 유송의 남북조 정립 441~478년, ⑰북위와 남제 479~502년, ⑳동위 서위와 양 535~546년, ㉑북주 북제와 진 547~580년이다. 이 중 ① 지도를 세분화해서 ②,③,④,⑤,⑥,⑦의 지도를 그렸고, ⑨ 지도와 ⑰ 지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각각 ⑩, ⑪, ⑫, ⑬ 지도와 ⑱, ⑲ 지도를 그렸다.

兩晉 시기를 다룬 총 8장의 지도 중 西晉 시기가 7장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조 시기를 그린 11장의 지도는 南朝와 北朝의 비중을 비슷하게 그렸다. 다만 ⑪, ⑫ 지도는 北魏와 劉宋間 경계를 보다 자세하게 표시하기 위해 2장의 지도를 가로로 연결해 제작하였다. 필자는 1장에서 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⑪, ⑭ 지도의 경우 범례에서 제시한 포괄년도와 지도 제목에서 제시한 연도가 다르다. 입력상의 단순 오류라고 판단된다.

한편, 행정지명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전체도, 세부도를 막론하고 국가간, 지역간 편차가 크다. ⑨ 지도의 경우, 산동과 하북, 하서 일대는 비교적 행정 지명을 상세히 표기한 반면, 肆州와 并州 관할은 소략하게 표기되었다. ⑰ 지도와 세부도인 ⑱, ⑲ 지도 역시 지역별 행정 지명 표출의 편차가 크다. 恒州를 포함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특히 ⑩, ⑰ 지도는 동일 지명을 중복적으로 표출한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수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또한 세부도 항목 설정의 일관성도 고려의 대상이다. 서진, 남조 시기의 지도들은 州 단위로 세분화해 그렸으나, 북위는 河西와 華北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 세부도를 그렸다. 譚, 地圖集에서 州 단위로 세부도를 그렸던 정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 하서와 화북의 경우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준연도와 포괄연도 설정의 타당성 검토

검수 대상 지도들은 265~580년까지의 양진남북조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譚, 地圖集을 포함한 일련의 중국역사지도가 왕조의 교체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구분한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진, 동진 시기, 송-북위, 제-북위, 양-동·서위, 진-북제-북주의 대치 국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기별 강역은 각 왕조의 극성기이거나 반대로 쇠퇴기 혹은 대외 전쟁 등으로 경계선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먼저 서진 시대 지도를 보면, ①~⑦ 지도는 299년을 기준으로 265~299년까지를 포괄한다. 譚, 地圖集 第三冊의 35-36 지도가 281년을 기준으로 그려진 것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265~299년은 진 武帝 泰始 원년(265)에서 惠帝 元康 9년(299)까지로 서진의 건국에서 八王의 亂으로 대변되는 쇠퇴의 징조가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포괄한다. 이에 반해 譚, 地圖集이 설정한 281년 시점은 吳의 멸망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⑧동진 ; 348년 - 300~350년 지도는 진 혜제 永康 원년(300) - 穆帝 永和 6년(350)까지를 포괄한다. 서진말에서 동진 건국 이후를 포괄하고 있다. 기준연도인 348년은 환온이 정치적으로 부상해 대내외적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던 시점과 맞닿아 있다. 譚, 地圖集 第四冊에서는 동일 시기를 다룬 2장의 지도가 있는데, 5-6 지도는 382년, 7-8 지도는 327년을 각각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327년은 流寓 정권인 동진 내부에서 군단의 반란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고, 382년은 前秦과의 비수지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였다.

필자는 동진 시기를 다룬 지도의 포괄연도를 국지적이긴 하나 북벌 및 비수지전 등의 전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로 좀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 싶다.

남북조 시기를 다룬 지도를 보자. ⑨~⑯까지의 지도는 45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441~478년까지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譚, 地圖集 第四冊에서는 17-18 지도가 449년을, 25-26 지도가 46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있다. 두 기준연도 모두 송과 북위간의 대규모 전쟁의 결과를 반영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450년과 46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 것은 여러 중국역사지도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 구분이다. 북위는 太武帝 太平眞君 11년인 450년을 전후해 송의 徐兗州 일대를 점령하고, 그보다 앞선 422-423년, 427-431년에 걸쳐 虎牢를 포함한 河南 및 長安, 高平, 統萬鎮 등을 강역에 편입시킨다. 이상의 사실들이 검수 대상인 지도들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이 시기 동안 토욕혼과 고구려와의 대외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북위의

동·서쪽 경계 및 강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논외로 하였다.

⑰~⑲ 지도는, 497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북위와 남제가 대치했던 479~502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譚, 地圖集에서도 497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497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위가 제의 沔北 일대를 공격하자 예주자사 裴叔業이 이에 대항했으나 결국은 패하여 이 일대가 북위의 강역에 편입된다. 해당 지도들은 양국간의 전쟁의 결과를 반영해 북위의 강역이 예주 경내의 懸瓠까지를 포괄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譚, 地圖集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502년은 양의 淮北, 漢中 점거 이후 양의 최대 판도가 되는 시점이라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 같다.

다음으로, ⑳ 지도는 546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535~546년 사이를 포괄하고 있다. 譚, 地圖集 第四冊 61-62, 63-64과 같은 기준년도를 적용하고 있다. 동위의 侯景이 河南의 13개 州를 들어 양에 투항한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위의 지도는 譚, 地圖集 第四冊에 비해 동위의 남쪽 경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남하해 그렸다. 향후 동·서 위, 양간의 좀 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㉑ 지도는 577년을 기준으로 547~580년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譚, 地圖集 第四冊 65-66 지도가 57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譚, 地圖集 第四冊이 설정한 572년은 서위의 실권자 宇文護가 武帝에게 주살된 바로 그 시점인 반면 ㉑ 지도가 기준년도로 설정한 577년은 북제가 북주에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준년도를 譚, 地圖集 第四冊을 비롯한 여러 중국역사지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72년 혹은 573년으로 설정하여 국가간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573년은 陳이 북제의 江淮 지방을 탈환해 양자강-淮水 일대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4. 기준연도별 행정 지명의 정확성 및 경계의 적합성 검토 ; 원 사료, 譚, 地圖集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했다. 필자가 검수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지명의 누락 여부

원 사료나 譚, 地圖集에서는 표출되었으나 지도에서는 누락된 경우도 있고, 譚, 地圖集에는 표출되지 않았으나 지도에는 표출된 경우가 있다. 원 사료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도나 譚, 地圖集에는 누락된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는, 지도에는 표출되었으나 譚, 地圖集에는 표출되지 않은 경우였다. 지역적으로는 북위의 서쪽 경계에 인접한 지역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⑬ 지도의 涼州 경내와 ⑱ 지도의 秦州, 南秦州 경내가 특히 그렇다. 다음으로는, 원 사료상에는 표출되었으나 지도상에는 표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① 지도의 경우, 『晉書』 州郡志에 의거해, 다수의 郡名이 누락되었다. 幽州의 경우는 州名이 누락되었다.

2. 시기별, 지역별 경계 및 행정 지명의 편제상의 혼선

각 급 행정 지명의 표출 과정에서, 지도와 원 사료, 그리고 譚, 地圖集이 동일 지명을 다른 행정 급간으로 표출한 경우이다. ① 지도에서 표출된 益州의 蜀郡을 예로 들면, 지도상에서는 成都國으로 표출된 반면, 『晉書』 州郡志에서는 蜀郡 경내에 成都縣이 편입되어 있다. 특히 『晉書』 州郡志에는 州 관할에 郡과 國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도에서는 이 부분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표출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 지명의 편제상의 혼선에 관해서는 별도의 표를 활용하였고, 상대적으로 ⑱ 지도에서 많이 보인다. 지도와 『魏書』 地形志의 행정 지명의 급간이 다르게 표출된 것이다. 지도상에서는 현급 행정 지명이 『魏書』에서는 군급 행정 지명으로 표출된 경우가 제일 많았다.

3. 행정지명의 위치 정정 문제

⑱ 지도에서 平州 경내에 표출된 遼西郡과 北平郡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관할하는 현을 감안할 때 위치를 서로 바꾸어 표기해야 할 것 같다. 譚, 地圖集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 외 행정 경계 내에서 현급 행정 지명의 위치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다.

4. 동일지명의 중복 표기 문제

동일 지명이 중복 표기된 경우는 전체 지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술상의 문제이다. 수정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고, 지도상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5. 한자어 표기가 譚, 地圖集이나 원 사료와 다르게 표기된 부분

⑱ 지도를 예로 들면, 平州 경내의 新昌縣을『魏書』地形志에서는 昌新縣으로 적었고, 靑州 경내의 新樂縣의 경우 譚, 地圖集에서는 新鄉縣으로 적었다.

3. 제안

여러 왕조의 세부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譚, 地圖集과 같이 전체도 내에서의 해당 지역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식을 고려했으면 한다.

위진남북조 지리 관련 문헌

崔 珍 烈*

1. 魏晉南北朝 史書와 지리 문헌 검토

주지하듯이 『漢書』 이후 한 왕조의 史書를 편찬하는 紀傳體 斷代史 서술이 관례화 되었다. 紀傳體는 역사기록을 황제의 기록인 本紀, 각종 典章제도를 다룬 志, 혹은 書, 여러 인물들을 다룬 列傳(줄여서 傳이라고도 함) 등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역사 기록 방식이다. 司馬遷의 『史記』가 기전체의 시초이며, 本紀 12卷, 表 10卷, 書 8卷, 世家 30卷, 列傳 70卷 등 총 130卷으로 구성되었다. 班固의 『漢書』는 本紀 12卷, 表 8卷, 志 10卷, 列傳 70卷 등 100권으로 이뤄졌다. 『漢書』는 『史記』의 8書를 10志로 바꾸어 분류사인 ‘志’라는 명칭을 처음 만들었다. 『後漢書』는 范曄이 죄로 구속되어 죽어 10志를 완성되지 못하자, 梁의 劉劭가 『後漢書』에 注를 달면서 司馬彪의 8志를 취하였다. 현존 『後漢書』의 本紀와 列傳은 范曄의 原文과 章懷太子의 注로 구성되고, 志는 司馬彪가 펴내고 劉劭가 주석을 단 志이다. 志는 흔히 『續漢書』라 칭한다. 이처럼 역사서에 따라 表, 書, 世家, 載記 등이 첨가되거나 빠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三國志』,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 등은 분류사에 해당하는 志가 없다.

본고에서 中國史學史를 언급한 것은 魏晉南北朝時代를 다룬 史書에 志가 없기 때문에 역대 왕조의 史書에 있는 「地理志」 혹은 「州郡志」 등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에 「地理志」 혹은 「州郡志」가 없기 때문에 州郡縣의 통속관계나 경계 등을 설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魏書』의 지리와 州郡縣 戶口 등을 다룬 「地形志」는 北魏洛陽時代의 州郡縣이 아니라 東魏시대의 州郡縣이다. 『魏書』 「地形志」는 上·中·下로 나뉘며 광역 지역별로 나뉜다. 열거된 州의 이름과 분포를 살펴보면, 上卷은 黃河 이북, 즉 山西·河北 2省과

* 서울대학교

河南省의 황하 이북 지역, 遼寧省 遼河 서쪽 등의 지역을 다루고 있다. 中卷은 黃河 이남, 즉, 현재의 黃河 이남의 河南省, 山東省, 江蘇省과 安徽省 북부 지역이다. 下卷은 關隴과 河西回廊지역, 즉 현재의 陝西·甘肅 2省과 寧夏回族自治區, 내몽골의 오르도스 지역이다. 이어서 『魏書』 「地形志」의 행정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上卷과 中卷은 北魏洛陽時代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東魏의 행정구역이다. 京畿를 지칭하는 司州는 洛陽이 아니라 鄴과 그 주변지역이었다. 『魏書』 「地形志」 序文에서 밝힌 것처럼 『魏書』 「地形志」는 東魏 孝靜帝 시기 武定년간(543-550)의 행정구역과 戶口를 기록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魏書』 「地形志」의 기록만으로는 洛陽遷都 이후 北魏後期 지방행정과 州郡縣의 통속관계와 戶口를 알 수 없다.²⁾

唐初 편찬된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에 志가 없는 것은 梁·陳·北齊·北周 4史의 志를 『隋書』에 통합했기 때문이다. 본래 唐初 편찬된 『梁書』, 『陳書』, 『周書』, 『北齊書』, 『隋書』는 本紀와 列傳만 있었고, 志는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적으로 『五代史志』를 편찬하였다. 원래 단독으로 완성하였지만 후에 『隋書』에 편입시켰다. 『隋書』의 「天文志」와 「律曆志」는 魏晉 이래, 특히 南北朝時代 유명한 천문학과 역법학자의 성취와 유과를 기록하였고 비교하며 평론하였다. 祖沖之의 원주율 연구, 張子信과 劉焯의 日行盈縮 검토, 漢魏 이래 역대 도량형 변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地理志」는 隋煬帝 大業 5년(609)의 지리 상황을 기준으로 전국 郡縣의 戶口, 산천형세, 建置沿革, 지역의 풍속, 물산을 기록하여 당시 국내외 교통 상황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다. 隋 이전의 지리 상황에 대해 附注에 설명하였다. 「食貨志」와 「刑法志」는 隋의 기록이 상세하여 토지, 戶籍, 부역제도와 화폐 상황은 다른 왕조는 隋代보다 간략하다. 「刑法志」는 五代 律書의 편찬을 열거하였지만, 隋代의 立法과 毀法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樂志」 3卷은 隋代 기록이 절반을 차지하며 그 중 鄭譯과 쿠차인 蘇祇婆의 七調를 기록하여 唐代 燕樂의 본원이 되었다. 隋煬帝가 정한 九部樂의 원류, 가곡, 악기 등을 소개하였는데, 中外 문화교류의 중요한 사료이다. 「經籍志」는 隋 東都 觀文殿 장서 목록에 의거하여 서적을 經·史·子·集의 네 분야로 나누어 당시 古籍 보존과 散佚 상황을 기로 하고 각종 학술원류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漢隋之際 古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隋書』 「地理志」는 梁·陳·北齊·北周 네 왕조의 영역이나

1)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55쪽, “今錄武定之世以爲志焉. 州郡創改, 隨而注之, 不知則闕.”

2) 崔珍烈, 「『魏書』의 北齊 정통성 粉飾과 그 장치」(未刊).

州郡縣 통속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隋代의 地理 상황만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 魏晉南北朝時代 중국 지도 편찬을 맡은 서강대의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작업팀의 작업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2. 魏晉南北朝 史書와 지리 문헌 검토

魏晉南北朝時代의 주요 地理 관련 문헌에는 常璩의 『華陽國志』, 酈道元の 『水經注』, 宗懔의 『荊楚歲時記』 등이 있다. 『水經注』는 당시 地名과 河川의 흐름 등을 복원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州郡縣의 통속관계 등을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하다. 『華陽國志』는 巴蜀 지역의 地理 상황을 살펴보는 데 편하지만, 南朝 劉宋 이후의 州郡縣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리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清代 고증학자와 20세기 학자들은 지리 문헌 고증과 「地理志」류가 없는 史書의 「地理志」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洪亮吉의 『十六國疆域志』, 溫日鑑의 『魏書地形志校錄』이 이러한 성과의 산물이었다. 洪亮吉의 『十六國疆域志』는 북방 十六國의 영역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魏書』 「地形志」에 北魏가 아닌 東魏시대 州郡縣의 명칭과 戶口 등이 표기되어 北魏時代 州郡縣의 통속관계와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 勞榦이 「北魏州郡志略」에서 州郡縣 복원작업을 시도하였다.³⁾ 母有江도 비슷한 작업을 시도하였다.⁴⁾ 이는 『魏書』 「地形志」의 東魏 武定년간 州郡名과 통속관계를 바탕으로 注記한 州郡縣의 改廢 沿革을 바탕으로 洛陽遷都 이후의 北魏後期 州郡縣을 복원한 것이다. 洛陽을 중심으로 한 北魏後期の 司州에서 鄴를 수도로 한 東魏시대의 司州 改置를 소거하면 비교적 복원이 용이하다.

王仲榮은 『北周地理志』⁵⁾를 편찬하였다. 1장에서 말한 것처럼 北周를 다룬 史書 『周書』와 五代史志에는 北周의 地理志에 대한 설명이 없다. 王仲榮은 『隋書』 「地理志」의 州郡 沿革 細注를 이용하여 北周시대의 州郡縣과 통속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였다. 王仲榮은 『隋書』 「地理志」뿐만 아니라 『舊唐書』와 『新唐書』의 「地理志」, 『元和郡縣圖志』의 기록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고증하였다. 따라서 『北周地

3) 勞榦, 「北魏州郡志略」, 『中央研究院歷史於焉研究所集刊』 32, 1961, 181-283쪽.

4) 母有江, 『北魏政區地理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5) 『北周地理志』(王仲榮, 北京: 中華書局 1980[2007重印]).

理志』는 1차 사료는 아니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다.

『三國志』와 『梁書』, 『陳書』에도 「地理志」類가 없었다. 宋代 이후 학자들은 正史의 기사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재정리하였다. 이를 會要라고 한다. 三國時代의 州郡縣을 다룬 「地理志」는 『三國會要』⁶⁾에 수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梁書』와 『陳書』에는 「地理志」가 없지만 『梁會要』⁷⁾와 『陳會要』⁸⁾에 「地理志」를 복원하여 梁과 陳의 강역과 州郡縣, 통속관계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洪亮吉의 『十六國疆域志』, 勞榘의 「北魏州郡志略」, 王仲犛의 『北周地理志』, 『梁會要』, 『陳會要』는 魏晉南北朝時代 1차 사료는 아니지만, 해당 왕조의 영역과 지방조직, 州郡縣의 통속관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작업 지도 검토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작업팀이 작성한 지도는 현존하는 중국사 지도 가운데 공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가 발견된다. 발표자는 西晉과 南朝의 검토를 맡았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東晉 300-350년」 지도의 현재 江蘇省 북부, 下邳 옆의 濟岷이란 지명은 이상하다. 현존하는 「地理志」와 『中國歷史地圖集』을 보면 下邳郡 옆에 「濟岷」이란 郡級 행정기관이 없다.

「北魏와 劉宋의 南北朝 정립 441-478년」에서는 渦州(淮水 지류), 殷州(漢水 이북), 東益州(梁州 서쪽), 征平(北魏 영토, 汾水 하류), 南雍州(雍州 서쪽) 등의 명칭 오류가 발견된다. 참고로 殷州는 효창2년(526) 北魏末 相州와 定州 4郡을 분할하여 세운 州이다.⁹⁾ 渦州는 『隋書』 「地理志」에는 “後魏에서 渦州와 渦陽縣을 설치하였고 또 譙郡을 설치하였다. 梁은 渦州를 西徐州로 바꾸었다. 東魏시대에는 譙州로 바꾸었다.”¹⁰⁾ 라고 하여 後魏, 즉 北魏가 渦州를 설치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魏書』 「地形志」에는 渦州가 보이지 않고 勞榘이 재구성한 北魏後期 州郡名에도 渦州가 보이지 않고 渦陽郡이 있던 상위 州는 南兗州였다.¹¹⁾ 東益州는 北魏가 仇池氏(武興氏) 楊集起·楊

6) 『三國會要』(楊晨 撰, 世界書局, 1975).

7) 『南朝梁會要』(朱銘盤 撰, 上海古籍出版社, 1984).

8) 『南朝陳會要』(清 朱銘盤 撰, 上海古籍出版社, 2006).

9) 『魏書』 卷56 崔辯傳附楷傳, 1255쪽, “未幾, 分定相二州四郡置殷州, 以楷爲刺史, 加後將軍.”

10) 『隋書』 卷30 「地理志」中 豫州·譙郡山桑縣條, 836쪽, “後魏置渦州·渦陽縣, 又置譙郡. 梁改渦州曰西徐州. 東魏改曰譙州.”

集義의 반란을 평정한 후 武興에 설치한 州이다.¹²⁾ 『魏書』 「世宗紀」에 따르면 楊集起·楊集義의 반란은 正始 2년(505) 十一月戊辰朔에 일어났고,¹³⁾ 正始 3년(506) 正月己卯에 평정되었다.¹⁴⁾ 이 시기 北魏에 맞선 南朝 국가는 劉宋이 아니라 梁이었다. 이 부분의 수정을 요한다.

「北魏와 劉宋의 경계1 265-299년」 지도에서는 劉宋시대에 보이지 않는 渦州, 殷州, 南雍州 등의 명칭이 보인다. 그리고 표제어 연도표기도 잘못되었다.

「北魏와 劉宋의 경계2 441-478」 지도에서는 東益州가 어색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東益州는 506년 이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北魏와 南齊 479-502년」 지도에도 東益州, 南雍州, 渦州, 殷州 등의 오류가 되풀이 되었다. 또 北魏의 영역이긴 하지만 ‘東中’과 ‘南中’의 표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東中’은 東中郎將府, ‘南中’은 南中郎將府의 약칭으로 州郡縣 행정조직의 명칭이 아니었고 주둔지의 治所였다. 따라서 이를 지도에 표기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魏書』에는 이 四中(東·西·南·北中郎將) 설치 논의가 있었다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다.¹⁵⁾ 이 부분은 사료 비판과 고증이 필요하다.

「南齊 479-502년」에 南中과 殷州가 잘못 표기되었다.

「東魏 西魏와 梁 535-546년」에서는 後梁(西魏北周的 附庸國)의 영역이 애매하게 표시되었다. 鄴州가 두 개 표기되었는데, 남쪽의 鄴州는 ‘荊州’의 誤記로 생각된다. 그리고 後梁에는 4州(鄴州·基州·平州·荊州)가 있었다. 嚴耕望은 이 기록과 陽雄이 江陵總管에 임명되었다는 기록¹⁶⁾에 주목하여 江陵總管府가 江陵 등 5防과 基州·鄴州·硤州·平州 4州를 관할하였다고 고증하였다.¹⁷⁾ 「東魏 西魏와 梁 535-546년」에서는 平州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부분과 비교하면¹⁸⁾ 淮水 유역과 江漢 지역 州名의 오류와 누락이 심하다. 이 부분은

11) 勞幹, 「北魏州郡志略」, 『中央研究院歷史於焉研究所集刊』 32, 1961 참조.

12) 『魏書』 卷101 「氏傳」, 2232-2233쪽, “集義見梁益既定, 恐武興不得久爲外藩, 遂扇動諸氏, 推紹先僭稱大號. 集起·集義並稱王, 外引蕭衍爲援. 安西將軍邢巒遣建武將軍傅堅眼攻武興, 克之, 執紹先送于京師, 遂滅其國, 以爲武興鎮. 復改鎮爲東益州.”

13) 『魏書』 卷8 「世宗紀」 正始二年十一月戊辰朔條, 201쪽, “冬十有一月戊辰朔, 武興國王楊紹先叔父集起謀反, 詔光祿大夫楊椿討之.”

14) 『魏書』 卷8 「世宗紀」 正始三年春正月己卯條, 201쪽, “己卯, 楊集起兄弟相率降.”

15) 『魏書』 卷19中 任城王雲傳附澄傳, 475쪽, “時四中郎將兵數寡弱, 不足以襟帶京師, 澄奏宜以東中帶滎陽郡, 南中帶魯陽郡, 西中帶恒農郡, 北中帶河內郡, 選二品·三品親賢兼稱者居之, 省非急之作, 配以爲兵, 如此則深根固本·強幹弱枝之義也. 靈太后初將從之, 後議者不同, 乃止.”

16) 『周書』 卷44 「陽雄傳」, 797쪽, “遷江陵總管·四州五防諸軍事, 改封魯陽縣公. 宣政元年, 卒於鎮.”

17)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中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3, 478쪽.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北周 北齊와 陳 547-580년」에는 長江 이북에 ‘晉州’라는 지명이 오류인 것 같다.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北齊 부분¹⁹⁾과 대조하면 江州의 오류인 것 같다. 晉州는 참고로 汾水 유역(山西省)에 있던 지명이다. 또 洞庭湖 서쪽의 衡州는 ‘沅州’의 誤記로 보인다.²⁰⁾ 그리고 전반적으로 陳의 강역 지명 표기가 소략하다.

18)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地圖出版社, 1982, 42-43쪽.

19)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地圖出版社, 1982, 65-66쪽.

20)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地圖出版社, 1982, 44-45쪽.

수당시기 역사지도의 구성과 구역획정에 관한 探論

- 河南道를 중심으로 -

류 준 형*

1. 머리말

근대 학문 분야의 성립과정에서 中國史學界는 歷史地理라는 독특한 학문분야를 설정하고 전근대시기 학문의 전통을 현대의 그것과 연결시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분야의 학문 연구가 한층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중 역사지도의 제작은 학문으로써의 歷史地理가 일궈낸 중요 성과물 중 하나로 일반적인 논문, 저술서 및 地名辭典¹⁾ 등의 사전류 편찬과 아울러 역사지리 분야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역사지도의 제작은 1956년 顧頡剛, 章巽에 의해 편찬된 『中國歷史大地圖集』이 그 시작에 해당되며 이와 아울러 1954년부터 毛澤東의 지시로 추진된 역사지도편찬 사업이 30 여년의 작업 끝에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8冊)으로 출간되며 전환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郭沫若 主編의 『中國史稿地圖集』(2冊), 編輯委 主編의 『中國歷史地震圖集』, 張海鵬 等 主編의 『中國近代史稿地圖集』 등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중국역사지도의 연구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중 가장 자세하고 고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譚其驤 主編의 『中國歷史地圖集』은 비록 300여 장의 지도와 총 7만 여개의 地名이 수록되었지만 일부 지명의 누락과 행정구역 분할선의 부정확함이 아쉬움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특히, 이른 바 中原王朝와 외부 정치세력간의 영역획정에 대한 비판이 일정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관련 사료의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전산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역사지도집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따

* 영남대학교

1) 대표적인 것으로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上海辭書出版社, 1996年)이 있다.

라서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역사지도의 제작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2. 새로운 역사지도의 구성 편제와 명칭

한국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역사지도 중 隋唐시대에 한정해 살펴보면, 그 체제가 다음과 같다.

- 1) 수의 통일 581-618
- 2) 당의 성립 618-626
- 3) 당 전기 행정개편과 都護府 626-683
- 4) 측천무후 시기의 당 왕조 684-712
- 5) 현종 시기의 당 왕조 713-755
- 6) 번진체제하의 당 왕조 626-683³⁾
- 7) 당의 행정구역: 경기, 도기도 713-755
- 8) 당의 행정구역: 관내도, 하동도 713-755
- 9) 당의 행정구역: 하북도 713-755
- 10) 당의 행정구역: 하남도, 회남도 713-755
- 11) 당의 행정구역: 산남동도, 산남서도 713-755
- 12) 당의 행정구역: 룡우도 713-755
- 13) 당의 행정구역: 강남동도, 강남서도 713-755
- 14) 당의 행정구역: 검남도, 검중도 713-755
- 15) 당의 행정구역: 영남도 713-755

이처럼 수당시기 역사지도는 총 1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시대 별로 나누면 隋代의 것이 1개(1번 지도), 唐代의 것이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隋代의 지도를 포함해 唐代 5개의 지도(2번부터 6번 지도)가 전체지도로 되어 있으며 이중 唐代지도는 각 지도가 나타내는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외에 나머지 7번부터 15번까지의 지도는 741년(開元 29年)을 기준으로 각 행

2) 이하 각 지도의 지칭은 이 번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ex. 1번 지도, 2번 지도.....)

3) 756-906의 誤記로 修正이 필요하다.

정구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별 세부지도의 순서에 특별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보인다. 행정구역의 규모(면적 혹은 인구 등) 차이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방법과 향후 지도집의 편찬을 염두에 둔다면 閱覽의 편의성을 위해 행정구역의 가나다순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인접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도의 각 장을 작성한 듯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은 10번 지도에서 淮南道 전체가 표시되지 못하고 일부가 절단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외에 3번 지도의 경우 제목이 “당 전기 행정개편과 도호부”로 되어 있는데 앞뒤의 시기별 전체지도의 제목과 비교해 통일성이 떨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626년에서 683년이라는 시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3. 역사지도 제작에 있어서의 표기와 표시 관련 문제

지도의 제작 형태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할 것이 확인된다. 이는 명칭을 기재하는 방식인 표기의 문제와 모양을 나타내고 시각적인 이해도를 돕는 형태의 표시에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표기의 문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대 지명의 표기 문제. ‘山西’와 ‘陝西’를 모두 ‘산시’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해남도의 ‘五指山’은 ‘우즈산 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동일한 중국어 발음에 대한 표기가 불일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울러 두 자로 된 고유명사(산이나 호수 등)의 이름을 표기할 때 두 자일 경우는 ‘原名’+‘산’ 혹은 ‘原名’+‘호’의 방식(예, 타이산 산, 타이후 호)을 택하고 세 자일 경우는 ‘原名’만을 적어주고 있는데(예, 둥팅 호, 우타이 산) 반해 五指山의 경우는 ‘우즈산 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표기의 원칙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두 자와 세 자의 이름을 두가지 별도의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명칭에 대한 통일적 표기 문제. ‘海州灣’은 ‘하이저우 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渤海灣’은 ‘보하이’로 되어 있다. 특정 지명의 知名度의 차이에 의해 생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는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 하천의 명칭 문제. 하천의 명칭 표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하천에 대한 표시가 불분명한 것이 적지 않다.4) 지명도가 높은 山들이 明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하천

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구역의 경계선 확정 문제. 지도에서 볼 때 지역 간 구분 선이 현재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위치나 형태가 현재와 달랐던 호수와 하천은 당시 실제 영역 경계와는 다소 다른 확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호수가 3등분된다든지(예를 들어, 楚州의 永泰湖 등) 특정 행정구역이 호수에 의해 별개의 동떨어진 두 개 지역으로 나뉜다든지(예를 들어, 兗州의 거야택 등), 특정한 州의 경계선이 일부 구간에서 수차례 渡河하게 되는 등(예를 들어, 濟州의 북부 경계선 등) 행정적 불합리성이 예상되는 형태가 확인된다. 경계선의 확정 기준을 현재의 행정구역 구분뿐만 아니라 당시의 자연지리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해안선의 확정 문제. 해안선의 기준을 과거와 현재의 그것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지도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동반도 이남 지역의 경우, 전체지도 중 1번 지도, 2번 지도, 3번 지도, 4번 지도, 6번 지도는 현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듯 보이지만 전체지도인 5번 지도는 과거의 해안선을 기준선으로 한 듯 여겨진다. 때문에 현재의 連雲港市에 해당하는 지역에 섬 모양의 해안선이 표시되기도 하고(과거 해안선기준) 사라지기도 한다(현재 해안선 기준). 세부지도인 10번 지도는 과거 해안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섬모양의 구획도 표시되어 있다.

3) 경계의 표시 문제. 州의 경계와 달리 道의 경계는 불분명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해당되는 道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색 혹은 투명도를 주어 識認性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7번 지도에서 京畿, 道畿지역에 대한 구역 표시가 결여되어 있어 주변지역과의 분계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체 지도 중 5번 지도에만 국가(정치집단) 간 영역 표시가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도들에는 없다.

4) 추가로 표시를 고려해볼 문제. 자연지형의 경우, 하천과 호수를 표시해 둔 것과 아울러 사막지역에 대한 표시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조건축물인 만

4) 하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하천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정보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河南道 淄州의 속현인 濟陽와 高苑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濟水在(濟陽)縣南, 又東北入高苑縣界...濟水北去(高苑)縣七十步.”(『元和郡縣圖志』)라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다.

리장성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4. 개별 지도의 검토 사항

총 15개의 지도에 대한 全數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지도의 분류에 속하는 1번 지도(수의 통일 581-618)와 5번 지도(현종 시기의 당 왕조 713-755)를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고 세부지도의 경우는 검출되는 논의사항이 상대적으로 頻見되는 10번 지도(당의 행정구역: 하남도, 회남도 713-755)를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A. 1) 수의 통일 581-618

일견 미완의 지도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거나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지도상의 위치 문제. ‘東海’가 바다에 표기되어 있다.
- b. 명칭 표기의 문제. ‘齊郡’, ‘魯郡’, ‘靈武郡’, ‘安陸郡’은 다른 행정구역의 명칭 표기의 기준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되어야 할 듯하다.
- c. 오탈자의 문제.
 - a) ‘曆陽’으로 되어 있는 지명은 ‘歷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 b) ‘武都’가 두 번 표기되어 있다.⁵⁾
 - d. 시간의 선후에 따른 명칭 표기 문제.
 - a) 6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峰州’, ‘費州’, ‘杞州’, ‘揚州’의 표기가 제외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⁶⁾
 - b) ‘衡陽’은 지도 표시의 기준점을 616년으로 삼는다면 ‘衡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c) ‘房陵’과 ‘遷州’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이중 ‘遷州’은 이전의 명칭으로 보여진다.⁷⁾

5) 武都郡은 將利, 建威, 覆津, 盤堤, 長松, 曲水, 正西로 이루어져 있다.(『隋書』 권29 「지리지」)

6) 예를 들어 ‘峰州’의 경우, 『隋書』 권31 「지리지」에 “(開皇)十八年, 改曰峯州, 大業初州廢.”라 기록되어 있다.

7) 『隋書』 권29 「지리지」. “後周國廢, 置遷州. 大業初改名房州.” 616년 기준으로 遷州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듯 보인다.

B. 5) 현종 시기의 당 왕조 713-755

형식과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지도는 전체지도 중 당 왕조의 全貌를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고려 사항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a. 영역의 표시 문제. 서북지역의 唐朝 영역을 구획하는 방식에 있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이 모두 唐朝의 세력 범위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b. 동일 지명의 위치 불일치 문제. 登州의 경우, 동일한 지명이 지도에 따라 각기 그 위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확인된다. 전체 지도에 해당되는 5번 지도(현종 시기의 당 왕조 713-755)와 세부지도인 10번 지도(하남도, 회남도 713-755)에서는 현재의 烟臺로 보이는 지점에 표기되어 있는 반면, 전체지도인 6번 지도(번진체제하의 당 왕조)에는 현재의 蓬萊市 지역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등주는 蓬萊市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지명의 위치가 지도에 따라 다른 지점에 표기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c. 개별행정구역명의 처리문제. 지도에서 軌州都督府가 토번 지역에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貞觀2년(673) 당에 귀의한 黨項의 細封步賴部를 안치하고 설치한 행정기구이다(細封步賴는 靺鞨 靺鞨에 제수된다). 이와 관련해 ① 이민족의 귀의에 의해 설치된 행정구역에 대해 당의 영역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⁸⁾ 만약 이것을 당 왕조 중심의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그 屬州 또한 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② 이와 아울러 靺鞨도독부의 경우, 설치의 기록만 있고 폐치 혹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이후 사료에서 靺鞨도독부를 언급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어느 시기까지의 지도에서 靺鞨도독부를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토번의 세력 범위를 구획할 때 당항족 등 여타 민족들과의 영역선을 구분할 것인가 再考가 필요해 보인다.

C. 10) 당의 행정구역: 하남도, 회남도 713-755

河南道는 唐의 중심지역 중 하나로 전체 행정구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자못 크다. 아울러 東都 낙양과 함께 편제되어 있어 그 행정구역 체계상의 복합성이 드러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역사지도의 제작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확인될 것

8) 唐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영역 표시선을 다시 그리거나 색이나 굵기를 서로 달리하는 형태의 경계선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a. 영역 경계선의 확정문제
 - a) 濮州와 曹州의 영역 경계선이 빠져 있다.
 - b) 鄆州와 濟州 사이의 영역 경계선이 빠져 있다.
- c) 豫州와 潁州 사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이 두 州 사이에 新蔡縣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독립된 행정구역처럼 검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豫州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 d) 汝州와 許州 사이의 행정 구역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두 州 사이에 위치한 襄城이 독립된 행정구역처럼 표시되어 있다. 許州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
- e) 懷州와 河南府 사이의 영역이 분할되는 지역에 濟源, 河陰이 포함된 독립된 행정 구역이 있는 것처럼 불분명하게 구획되어 있다. 이중 일부는 懷州에 일부는 河南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f) 兗州와 鄆州 사이의 경계선 확정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鉅野澤을 이분하는데 있어 이분선이 큰 각도를 갖는 포물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
 - b. 특정 지역의 행정구역 귀속문제
 - a) 鄆城은 許州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원 말기에는 豫州의 관할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¹⁾
 - b) 陽翟은 許州에 속해 있는데 龍朔 연간에 洛州으로 관할이 이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²⁾
 - c) 鄆州에 포함되어 있는 平陸은 貞元14년에 鄆州으로 歸屬되기 때문에 兗州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¹³⁾
 - d) 臨黃縣이 濮州의 관할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관련 사료에 따르면 魏州에 포

9) 『구당서』 권132 「李芄傳」. “間一年, (李芄)爲節度使路嗣恭之副, 加檢校左庶子, 河陽三城懷州節度觀察使, 以東畿汜水等五縣隸焉.”

10) 『구당서』 권38 「지리지」. “(개원)二十八年, 又以襄城來屬(許州).”

11) 『구당서』 권38 「지리지」. “鄆城, 本屬豫州. 長慶元年來屬.”

12) 『신당서』 권38 「지리지」, ‘陽翟’의 注文, “初隸嵩州, 貞觀元年來屬, 龍朔二年隸洛州, 會昌三年復來屬.” 『구당서』 권38 「지리지」, “龍朔二年, 又以許州之陽翟, 鄆州之密縣, 絳州之垣縣來屬.”; “會昌三年, 割屬孟州, 陽翟還許州, 濟源還懷州, 王屋還懷州.” 따라서 개원 28년에는 洛州에 속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13) 『구당서』 권38 「지리지」. “平陸, 隸兗州... 貞元十四年來屬.”

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e) 衛南顯이 魏州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滑州의 관할지역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f) 汜水가 懷州에 속하게 되는 것은 德宗 연간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河南部 관할지역으로 보인다.
- g) 沂州와 泗州의 근접지역에 있는 郟城은 玄宗시기에 縣이 설치되지 않아 그 영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沂州로 포함되어 영역이 확정되었는데 관련 사료의 정확을 미루어 볼 때 泗州에 속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¹⁴⁾
- h) 虹縣이 徐州에 예속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泗州의 屬縣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¹⁵⁾
- i) 臨渙縣의 경우 徐州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貞觀 17년의 행정구역 정비 과정에서 亳州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¹⁶⁾
- j) 濠州가 河南道의 屬州로 구획되어 있는데 관련 史料를 검토해 보면 淮南道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¹⁷⁾

c. 지도상의 위치 문제.

- a) 海州가 唐代의 해안선 기준으로 바다에 표기되어 있다.
- b) 青州의 北海縣 주변에 黃縣이 표기되어 있는데 황현은 登州에 관할 縣으로 파악되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14) 『원화군현도지』 권10에 泗州의 下邳縣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구당서』 권38 「지리지」에 “貞觀元年, 廢邳州, 仍省郟, 良城二縣, 以下邳屬泗州. 元和中, 復屬徐州.”라고 되어 있어 泗州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5) 『구당서』 권38 「지리지」. “虹, 漢縣...武德四年, 屬仁州...貞觀八年, 廢仁州, 以虹縣屬泗州, 移治夏丘故城. 元和四年, 割屬宿州.”

16) 『구당서』 권38 「지리지」. “臨渙, 隋置...貞觀十七年省, 以臨渙, 永城, 山桑屬亳州, 蕪縣屬徐州...元和九年, 割屬宿州.”

17) 『신당서』에 『구당서』 권40 「지리지」에 淮南道로 되어 있고, 『당육전』 권3 「尙書戶部」에서 “淮南道, 古揚州之境, 今揚, 楚, 和, 滌, 濠, 壽, 廬, 舒, 蕪, 黃, 沔, 安, 申, 光, 凡一十有四州焉.”라 기재되어 있어 濠州는 회남도 隸下의 州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현종 이후에 徐泗節度使를 두면서 濠州가 그 관할지역으로 편입되면서 河南道의 일부처럼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원화군현도지』 권10은 徐泗節度를 河南道의 편제 안에서 서술하면서 “按濠州本屬淮南”라고 明記해두었다. 徐泗節度使의 정확한 설치 연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杜佑가 검임한 것으로 알려져 德宗시기에 이미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金石萃編』 권72 「修孔子墓碑」의 題記에 “徐泗節度掌書記殿中侍御史內供奉賜緋魚袋杜兼童子高箕, 大唐貞元七年辛未歲二月八日, 謁拜奠”라는 기록이 있어 늦어도 貞元 7년 이전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된다. 『신당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 c) 淄州의 屬縣인 濟陽縣, 鄒平縣이 같은 지점에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이 둘은 별개 지역의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¹⁸⁾
- b) 懷州에 붉은 점만 찍혀 있고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5. 맺음말: 몇 가지 제언을 포함하여

새로운 역사지도는 인문지리적, 자연지리적 정보에 대한 총괄적 처리를 통해 작성되었다.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과 활용은 역사지도의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지도를 제작하는 연구자들의 부담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작업 성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기존의 성과를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¹⁹⁾ 此際에 확보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국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서로 상충되는 기록에 대한 판단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河南道 長清縣의 경우는 동일한 사료 안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그 구체적인 행정관할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²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

18)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해 『元和郡縣圖志』卷13, 淄州條에 각각 鄒平縣“上東南至州一百一十里”, 濟陽縣“上東南至州九十四里”라고 별개의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19) 예를 들어 담기양의 지도집에서 보면(5권 35쪽) ‘瓊州’의 내용이 빠져 있는 반면 새로운 역사지도 5번 지도에는 ‘瓊州’가 표기되어 있다. 瓊州는 貞觀 3년에 설치되었다가 정관 13년 폐지를 겪고 얼마 후 다시 復置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天寶 元年(755)에 郡으로 명칭이 바뀌는 사실에서 755년 이전에 復置되어 瓊州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도의 작성기준인 741년 당시는 ‘瓊州’로 표기되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평가된다.

20) ① “盧縣, 漢舊, 隋置濟北郡. 武德四年改濟州, 領盧, 平陰, 長清, 東阿, 陽穀, 范六縣. 又置昌城, 濟北, 穀城, 孝感, 冀丘, 美政六縣. 六年, 廢美政, 孝感, 穀城, 冀丘, 昌城五縣. 八年割范縣屬濮州. 貞觀元年, 又廢濟北縣入長清. 天寶元年, 改爲濟陽郡. 乾元元年, 復爲濟州. 十三載六月一日, 廢濟州, 盧, 長清, 平陰, 東阿, 陽穀等五縣並入鄆州.”(『구당서』 권38 「지리지」)

② “長清, 隋置, 屬濟州. 貞觀十七年, 屬濟州. 舊志有豐齊縣, 古山莊邑也. 天寶元年, 改爲豐齊. 元和十五年, 以戶口凋殘, 併入長清縣.”(『구당서』 권38 「지리지」)

③ “盧, 緊. 本濟州, 武德四年析東平郡置. 隋曰濟北郡, 天寶元年更名濟陽郡. 領盧, 平陰, 長清, 東阿, 陽穀, 范六縣, 又置昌城, 濟北, 穀城, 孝感, 冀丘, 美政六縣. 六年省美政, 孝感, 穀城, 冀丘, 昌城, 八年以范隸濮州, 貞觀元年省濟北, 天寶十三載郡廢, 以長清隸濟州, 以盧, 平陰, 東阿, 陽穀來屬.”(『신당서』 권38 「지리지」)

④ “長清, 中. 本隸濟州, 貞觀十七年來屬.”(『신당서』 권38 「지리지」)

⑤ “(長清)貞觀十七年, 廢濟州屬濟州.”(『원화군현도지』 권11)

⑥ “濟州, 至天寶十三載, 州爲河所陷廢...天寶十三載, 濟州廢縣屬鄆州.”(『원화군현도

를 들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를 해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역사지도는 州級의 행정단위가 중심이 되어 작성되어 있다. 역사 지도가 갖는 정보를 확대하고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州의 이름 옆에 당시의 주 별 등급(望, 雄... 上, 中, 下)을 併記해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도의 내용을 입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전체지도의 경우는 공간의 협소함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부지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도에 표시된 현지 지명의 경우 모두 현대 중국어의 발음에 기초한 한글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認知性이 높지 않아 보인다. 현대의 地名에 대해 현대 간체자 중국어 표기를 한국에서 사용되는 漢字(번체자)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²¹⁾ 새로운 역사지도가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어 발음에 기초한 순수 한글 지명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서 표기한다고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중국어 발음에 기초한 한글 지명을 영어 혹은 간체자 중국어와 併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 권11)

21) 실제로 10번 지도에서 西湖의 서쪽에 위치한 瀾湖에 대해서 ‘瀾湖’라고 직접 표기하고 있다.

수당오대시기 지명의 변천과 경계

김 종 섭*

1. 머리말

수당오대 시기 역사지도 검수와 관련해서 방대한 작업과 세밀한 고증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일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당 현종(713-755) 시기 각 道의 행정지도 경우 상위로는 都護府 하위로는 縣과 鎭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古城, 심지어 다리까지도 표현되었다. 이것은 한 명이 황제가 재위했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황제가 재위했던 시기에도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가 검수작업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더 나은 역사지도가 탄생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검수자는 부여받은 내용 전체를 모두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검수 내용의 대체로 다음 몇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같은 지점을 여러 번 표기한 부분. 둘째, 누락된 부분. 셋째, 지역명이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부분. 넷째, 중국어 표기 문제. 다섯째, 기타 등등이다.

2. 검수 내용

1) 589년에서 618년까지

수나라의 지방 단위는 郡과 縣인데, 郡이 표기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병존하므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같은 지점을 여러 번 표기한 부분

* 서울시립대학교

武都郡, 熙平은 두 번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누락된 부분

① 근거 : 『隋書』권29.

馮翊郡, 敦煌郡, 鄯善郡, 臨洮郡, 特犍郡, 譙郡, 汝陰郡, 上洛郡, 浙陽郡, 清陽郡, 濟北郡, 武陽郡, 河陽郡, 長平郡, 離石郡, 定襄郡, 樓煩郡, 趙郡, 博陵郡, 上穀郡, 漁陽郡, 安樂郡, 江都郡, 鬱林郡, 交趾郡, 比景郡, 林邑郡, 南郡, 清江郡, 丹陽郡, 海陰郡

遼西郡에는 柳城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3) 지역명이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

① 근거 : 『隋書』권29.

- 安東郡은 오나라 孫權 때 임시로 설치한 것이므로 吳郡으로 정정해야 함.
- 安定郡과 涇州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데, 涇州는 이전에 설치한 것이므로 안정군으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지역명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

① 근거 : 『隋書』권40

後漢湘南縣地, 屬長沙郡, 吳分湘南立, 衡陽縣屬衡陽郡, 隋廢郡縣, 屬潭州.

② 근거 : 『舊唐書』권41

峰州下 隋交趾郡之嘉寧縣, 武德四年置

峰州는 당대 명칭이며, 수대에는 교지군의 가녕현임.

③ 근거 : 『舊唐書』권40

費州下 隋黔安郡之涪川縣。貞觀四年分思州之涪川，扶陽二縣置費州。

費州는 당대 명칭이며, 수대에는 검안군의 배천현임.

④ 근거 : 『舊唐書』권40

揚州大都督府

隋江都郡，武德三年杜伏威歸國於潤州，江寧縣置揚州，以隋江都郡爲兗州，置東南道行臺，七年改兗州爲邗州，九年省江寧縣之揚州，改邗州爲揚州，置大都督

⑤ 근거 : 『隋書』권31

江都郡梁置南兗州，後齊改爲東廣州，陳復曰南兗，後周改爲吳州，開皇九年改爲揚州，置總管府，大業初府廢

揚州와 관련해서 『隋書』와 『舊唐書』의 내용이 다르므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지역명을 삭제해야 하는 부분

衡陽郡은 수대에 폐지되었으므로 표기하지 않아야 할 것 판단됨.

(6) 기타

弘億郡은 弘化郡의 오기로 보임.

袍罕은 枹罕의 오기로 보임.

2) 당 고조 연간(618-626)

이 시기 검수는 都督府를 대상으로 함.

(1) 같은 지점을 여러 번 표기한 부분

北燕州, 蔚州, 營州, 蓬州, 連州, 陵州,

(2) 같은 지명을 여러 지점에 표기한 부분

榮州는 세 곳, 武州는 두 곳, 蘇州는 두 곳, 睦州는 두 곳, 黔州는 두 곳.

(3) 누락된 부분

① 근거 : 『舊唐書』 권39

幽州大都督府 : 遼州

延州中都督府 : 南平州, 北武州, 廣州, 達州

秦州中都督府 : 洮州

② 근거 : 『舊唐書』 권40

涼州中都督府 : 沙州, 伊州

揚州大都督府 : 廬州

越州中都督府 : 嵊州, 麗州

③ 근거 : 『구당서』 권41

桂州下都督府 : 燕州, 晏州.

廣州中都督府 : 廣州, 宋州, 建州, 齊州, 威州, 扶州, 義州

④ 근거 : 『舊唐書』 권38

武德二年復於此, 置北連州, 領義鄉齊明二縣

武德二年移治於金城鎮, 改爲金城縣, 又於界內置永州, 領金城洛盤新昌土塹四縣

隋廢縣, 武德二年置北武州, 領開遠金義崇德永定安義五縣, 復分膚施置金明

隋舊縣 武德四年於此, 僑置雲州及雲中榆林龍泉三縣

八年廢雲州及三縣, 以龍泉併入臨真, 以雲中榆林併入豐林延水

武德二年分延川縣置西和州, 領安人脩文柔原三

延川 隋舊縣 武德二年置南平州, 領義門縣, 四年廢南平州及縣併入延川

延昌 武德二年置北平州, 貞觀三年廢十年於廢州, 置罷交縣, 天寶元年改名爲延昌縣

이상에 따르면, 北連州, 永州, 北武州, 雲州, 西和州, 北平州가 지도상에 빠짐

⑤ 근거 : 『구당서』권38

勝州下都督府

隋置勝州, 大業爲榆林郡, 武德中平梁師都, 復置勝州.

勝州는 史爲樂 주편, 『中國歷史地名大辭典』, 1940쪽에 지금 내몽고 準格爾旗 동북 황하 남쪽 연안 12연성 고성에 치소가 있었다고 함.

승주는 무덕 연간 폐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도에 표기해야 된다고 판단됨.

⑥ 근거 : 『舊唐書』권38

靈州大都督府

隋靈武郡, 武德元年改爲靈州總管府, 領迴樂, 弘靜, 懷遠, 靈武, 鳴沙五縣, 二年以鳴沙縣屬西會州

靈州大都督府가 고조 무덕 연간에 폐지되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으므로 첨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지역명이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

① 근거 : 『舊唐書』권41

[太宗貞觀]六年又以尹, 藤, 越, 白, 相, 繡, 鬱, 姜, 南宏, 南方, 南簡, 南晉十二州隸桂府. 其年置冀州都督亦隸桂府. 其年廢龍鬱二州. 八年改越州爲廉州, 南簡爲橫州, 南方爲登州, 南宏爲潘州, 南晉爲邕州, 尹州爲貴州, 靜州爲富州, 樂州爲昭州, 南昆爲柳州, 銅州爲容州

태종 정관 8년(634) 越州를 廉州로 고침. 지도상의 일주는 없애고 廉州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근거 : 『舊唐書』권38

麟州下 天寶元年王忠嗣奏請, 割勝州連谷, 銀城兩縣置麟州.

麟州는 현종 천보 원년(742)에 설치한 것이므로 지도에는 삭제해야 함.

③ 근거 : 『舊唐書』권39

營州上都督府 隋柳城郡, 武德元年改爲營州總管府, 領遼燕二州, 領柳城一縣, 七年改爲都督府, 管營遼二州

營州는 고조 무덕 7년(624)에 도독부가 되었으므로 영주도독부라 표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5) 다른 도독부에 속해 있는 지역

① 근거 : 『舊唐書』권40

隋武威郡 武德二年平李軌置涼州總管府 管涼, 甘, 瓜, 肅四州. 涼州領姑臧, 昌松, 番禾三縣. 三年又置神鳥縣. 七年改爲都督府督涼, 肅, 甘, 沙, 瓜, 伊, 芳, 文八州

지도상에는 芳州는 秦州都督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지역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

① 근거 : 『舊唐書』권38

延州中都督府

隋延安郡, 武德元年改爲延州總管府, 領膚施, 豐林, 延川三縣, 管南平, 北武, 東夏三州. 四年又管丹, 廣, 達三州.

東夏州는 지도에 東和州로 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隋江都郡, 武德三年杜伏威歸國, 於潤州江寧縣置揚州, 以隋江都郡爲兗州, 置東南道行臺.

七年改兗州爲邳州. 九年省江寧縣之揚州, 改邳州爲揚州, 置大都督, 督越, 揚, 和, 滁, 楚, 舒, 廬, 壽七州

월주는 지도에서 월주중도독부 소속으로 인데, 근거 자료에는 양주대도독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확인이 필요함.

(7) 기타

관내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표기해 놓은 商州, 宜州, 稷州, 麟州는 무덤 연간에 보이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당 태종에서 고종 연간 까지(626-683)

(1) 지명의 오기

泉州는 福州로 바꾸어야 함

(2) 두 번 이상 표기된 부분

媯州, 蔚州, 武州, 陵州, 榮州, 黔州, 連州

(3) 지명의 첨가

① 근거 : 『舊唐書』권38

靈州大都督府 隋靈武郡, 武德元年改爲靈州總管府, 領廻樂, 弘靜, 懷遠, 靈武, 鳴沙五縣, 二年以鳴沙縣屬西會州, 貞觀四年於廻樂縣置廻環二州並屬靈武都督府, 十三年廢廻環二州, 靈州都督入靈填二州, 二十年鐵勒歸附於州界置阜蘭, 高麗, 祁連三州並屬靈州都督府, 永徽二年廢阜蘭等三州, 調露元年又置魯, 麗, 塞, 含, 依, 契等六州, 總爲六胡州, 開元初廢復置東阜, 蘭燕, 然燕山, 雞田, 雞鹿, 燭龍等六州並寄靈州界, 屬靈州都督府

영주도독부는 현종 시기에도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지도에는 영주도독부를 표기해야 함.

4) 당 현종 연간(713-755) 關內道와 河東道

(1) 경계가 모호한 부분

靈州와 安樂州의 경우 주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지명을 두 번 기재한 경우

蔚州, 恒州

(3) 지점은 찍혀 있지만 지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는 부분

河州, 太原, 朔州 등

(4) 수대부터 계속 표기되어 오는데 확인이 필요한 지명

媯州의 경우 간자체와 계속 함께 표기되어 있음

(5) 기타

黨項은 党項으로 표기해야 함.

5) 당 현종 연간(713-755년) 河北道

(1) 같은 지명이 여러 지점에 표기된 경우

安次는 모두 세 번 표기되어 있음

(2) 지점은 하나인데 지명이 둘인 경우

淄州의 濟陽과 鄒平은 지점이 하나임.

(3) 바다 위에 지점이 찍혀 있는 경우

海州의 胸山의 경우 지점과 지명이 모두 바다에 찍혀 있음.

섬인지 확인하거나 위치 조정이 필요함.

3. 맺음말

역사지도의 검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중국어의 한국어 표기에서 타이산 산으로 할 것인지 타이산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이후 호로 할 것인지 타이후로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오타이산이나 등팅 호 등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같은 지점에 두 곳 이상의 지명이 있거나 같은 지명이 두 곳 이상에 찍혀 있는 현상이 발견되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지역명이 시기적으로 다른 사례가 보이므로 이 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관내도, 하북도의 예를 보면 작은 지점이 찍혀 있는데 지명이 표기되지 않은 곳이 보이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東北亞歷史地圖』 隋·唐 前期 부분의 현황과 과제

- 7세기를 중심으로 -

이 기 천*

머리말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편찬사업은 동북아 관계사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기획되었다.¹⁾ 편찬사업의 주제는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경계와 영역’이며, 가시적인 목표는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동북아 역사지도의 제작이다. 궁극적으로 ‘경계’와 ‘영역’에 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정립하여 一國史의 관점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동북아역사지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東北亞歷史地圖』의 대상 범위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며, 그 접경 지역인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까지도 포함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편찬사업은 제작기반 구축, 기본자료 수집, 시안본 제작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기존의 동북아 관련지도들과 차별되는 점은 자료의 전산화이다. 최종적인 결과물을 통해서는 지명의 층차, 예컨대 州·郡·縣를 각각 필터링할 수 있으며, 지명의 변천과정을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경계’와 ‘영역’이라는 편찬사업의 주제와 편찬사업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편찬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명과 행정 경계의 검수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발표자 외에 隋·唐代 검수를 맡은 2분의 연구자는 각각 唐後期和 唐末·五代를 세부 전공으로 삼고 있다. 검수 대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발표자는 7세기를 중심으로 지명, 비정된 위치, 설치시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1) 김유철, 「동북아역사지도의 편찬 현황과 방법」, 『문화역사지리』 22-3, 2010; 윤병남·박성현,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참조.

1. 『東北亞歷史地圖』 隋·唐代篇의 구성

두루 활용되고 있는 역사지도에는 譚其驥 主編의 『中國歷史地圖集』(이하 譚其驥의 약칭)처럼 강역과 경계,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강역지도’가 있는가 하면, 郭沫若 主編의 『中國史稿地圖集』(이하 郭沫若으로 약칭)과 같이 전쟁이나 농민반란과 같은 사건, 인구분포 등을 지도 위에 표시한 이른바 ‘주제지도’가 있다. 『東北亞歷史地圖』가 전술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3종의 역사지도 집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 지도의 구성 비교

지도명	구분	기준년도	지도명칭
『東北亞歷史地圖』 隋·唐代篇	全	616	隋의 통일 581~618년
	全	626	唐의 성립 618~626년
	全	683	唐 前期 행정개편과 都護府 626~683년
	全	712	則天武后 時期的 唐王朝 684~712년
	全	741	玄宗 時期的 唐王朝 713~755년
	全	820	藩鎮體制下的 唐王朝 626~683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경기, 도기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관내도, 하동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하북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하남도, 회남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산남동도, 산남서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룡우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강남동도, 강남서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김남도, 김중도 713~755년
地域	741	唐의 행정구역: 영남도 713~755년	
『中國歷史地圖集』5 (譚其驥,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全	612	隋時期全圖
	地域	612	河南諸郡(附:洛陽附近)
	地域	612	關隴諸郡
	地域	612	河西諸郡
	地域	612	巴漢諸郡
	地域	612	岷蜀諸郡
	地域	612	河北諸郡
	地域	612	河東諸郡
	地域	612	遼西諸郡(附:室韋靺鞨等部)
	地域	612	淮南江表諸郡
	地域	612	淮南江表諸郡北部
	地域	612	嶺南諸郡

	地域	612	江漢浣湘諸郡
	地域	612	南寧地區
	主題	612	東突厥
	主題	612	西突厥
	全	669	唐時期全圖1
	全	741	唐時期全圖2
	全	820	唐時期全圖3
	全	820	元和方鎮圖
	地域	741	京畿道·關內道(附:長安附近)
	地域	741	關內道北部(附:安北·單于都護府)
	地域	741	京畿道·河南道(附:洛陽附近)
	地域	741	河東道
	地域	741	河北道南部
	地域	741	河北道北部
	地域	741	山南東道·山南西道
	地域	741	淮南道
	地域	741	江南東道
	地域	741	江南西道
	地域	741	黔中道
	地域	741	隴右道東部
	地域	741	隴右道西部(附:安西都護府)
	地域	741	劍南道北部(附:成都附近)
	地域	741	劍南道南部(附:姚州附近)
	地域	741	嶺南道東部(附:桂州·容州附近)
	地域	741	嶺南道西部
	主題	741	突厥
	主題	820	回鶻
	主題	820	吐蕃
	主題	820	渤海
	主題	879	南詔
『中國歷史地圖』上 (程光裕·徐聖謨, 臺北: 中國文化學院出版部, 1980)	全	不明	隋代統一圖
	全	640	唐代十道圖(附:六詔(八詔)圖)
	全	806-820	唐代藩鎮圖
	全	不明	隋唐時代之東亞圖
『中國歷史地圖』下 (程光裕·徐聖謨, 臺北: 中國文化學院出版部, 1980)	地域	不明	隋唐之臺灣圖
	主題	不明	唐代長安圖(附:唐大明宮殿分布圖)
	主題	不明	唐代洛陽圖(附:唐洛陽主要宮殿圖)
	主題	不明	隋唐主要農木地區分布圖
	主題	不明	唐代鑛山分布圖
	主題	不明	唐代工商業分布圖

	主題	不明	唐宋蠶桑司業分布圖
	主題	不明	隋代漕運圖(附:唐以前中日交通路線圖)
	主題	不明	唐代交通圖
	主題	不明	中國高僧入印路線圖
	主題	不明	隋唐東南亞交通圖
	主題	不明	唐代人口分布圖
	主題	不明	唐代名人分布圖
	主題	不明	隋與唐書畫家分布圖
	主題	不明	隋代北伐突厥圖
	主題	不明	隋文帝平陳圖
	主題	不明	隋末羣雄割據圖
	主題	不明	唐由太原定關右圖
	主題	不明	唐破東突厥圖
	主題	不明	唐征高麗圖
	主題	不明	唐代安史之亂圖
	主題	不明	唐代黃巢之亂圖
『中國史稿地圖集』 下 (郭沫若, 上海: 中國地圖出版社, 1990)	全	612	隋代形勢圖
	地域	不明	隋代大運河和黃河長江中下游地區圖
	主題	611-623	隋末農民起義圖
	主題	613-616	隋末農民起義圖:南部地區
	主題	611-618	隋末農民起義圖:瓦崗軍活動地區
	主題	611-621	隋末農民起義圖:海黃地區
	地域	640-669	唐代貞觀·總章年間安東·東夷·安北·單于·安西都護府圖
	地域	741	唐代大運河和黃河長江中下游地區圖
	全	741	唐代前期形勢圖
	主題	不明	唐代商業城市與手工業物產分布圖(附:長安·洛陽)
	主題	不明	唐代中外交通圖
	主題	629-645	玄奘西行取經圖
	主題	748-754	鑑真東渡日本圖
	主題	755-763	安祿山之亂圖, 史思明之亂圖
	主題	755-757	洛陽長安地區戰爭形勢圖
	全	812	唐代中期形勢圖(附:渤海圖)
	全	806-820	唐元和年間藩鎮割據圖
	主題	859-860	裘甫起義圖
	主題	868-869	龐勛起義北上路線圖
	主題	868-869	龐勛起義主要活動地區圖
主題	874-884	王仙芝·黃巢起義圖	

隋唐時代로 한정하면 『東北亞歷史地圖』는 隋代 1장의 全圖, 唐代 5장의 全圖, 9장의 地域圖로 이루어져, 구성면에서는 ‘강역지도’로 분류할 수 있다. 譚其驤은 隋代 1장의 全圖와 13장의 地域圖, 唐代 4장의 全圖와 17장의 地域圖로 구성하였다. 譚其驤의 지도가 중국을 특화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東北亞歷史地圖』는 隋代의 지역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강역지도’로서 손색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唐代 全圖는 譚其驤의 그것보다 오히려 1장이 많다. 한편 程光裕와 郭沫若의 지도는 ‘주제지도’의 성격이 강하다. 程光裕는 4장의 全圖와 1장의 地域圖, 21장의 主題圖를 배치하였고, 郭沫若도 4장의 全圖, 3장의 地域圖, 14장의 主題圖로 지도를 구성하였다. 요컨대 구성상 『東北亞歷史地圖』는 ‘경계’와 ‘영역’이라는 편찬사업의 주제에 맞는 ‘강역지도’로서 全圖와 地域圖 사이에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隋代 지도에서는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 현재 郡에 해당되는 점만 구현되어,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 이는 隋代 地域圖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인했을 것이며, 지면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唐代에 집중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사와 중앙아시아 영역과의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편찬의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한반도 인근의 동북지역과 突厥·吐谷渾과 인접한 북방지역의 세부 지역도를 추가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예컨대 程光裕의 「隋代北伐突厥圖」는 ‘사건지도’이지만, 군대의 경로를 표현하지 않고 突厥과 隋의 격전지역의 구체적인 행정지명을 중앙아시아 연구자와 공동으로 검토·논의하여 고증한다면, 충분히 세부적인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程光裕의 「隋唐時代之東亞圖」는 축척의 문제로 인해 소략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지도의 초점을 동북지역으로 옮겨서 확대한다면, 隋·高句麗·突厥·吐谷渾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각 시대별 행정지명, 경계, 영역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 검토이다. 隋代 지도와 관련하여 『東北亞歷史地圖』에서는 616년을 기준연도로 사용한 반면, 譚其驤과 郭沫若은 612년을 기준으로 隋代 지도를 작성하였다. 譚其驤의 프로젝트가 1954년 11월 「改繪楊守敬地圖工作委員會」를 기초로 장기간 다수의 학자가 참여하여 ‘역사상 중국’을 구현하고자 했던만큼²⁾, 강역과 경계 그리고 지명에 대한 고증 등의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譚其驤이 612년을 隋代 지도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고증 작업 역시 유의미하

2) 吉開將人, 「歷史學者と國土意識」, 『シリーズ20世紀中國史』 2,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9.

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 『東北亞歷史地圖』에서 616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불분명하지만, 唐代의 사례를 준용해 본다면 아마도 隋末을 설정하기 위해 煬帝 大業 12年(616)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隋代 행정지명은 ‘十羊九牧’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大業 3年(607) 州·郡·縣의 3級制에서 郡·縣의 2級制로 전환되었다.⁴⁾ 지명 고증의 기초 자료인 『隋書』 「地理志」와 『通典』 「州郡典」 등에 열거된 190郡, 1,252縣은 모두 吐谷渾을 평정한 大業 5年(609)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⁵⁾ 사료상의 기록과 史爲樂이 주편한 『中國歷史地名大辭典』(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에 따르면, 610년 이후 隋代 郡·縣 가운데 廢置되거나 改置된 사례는 없다. 그렇다면 기존 지도집의 기준인 612년과 『東北亞歷史地圖』에서 설정한 616년 간의 차별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명의 변천을 구현할 수 있다는 『東北亞歷史地圖』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改州爲郡”이 단행된 607년 이전과 郡·縣 2級制가 정착된 609년 이후를 대비시켜 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唐代의 경우 『東北亞歷史地圖』는 626, 683, 712, 741, 8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譚其驥은 669, 741, 820년을, 程光裕는 640, 806-820년을, 郭沫若은 640-669, 741, 812, 806-820년을 기준년도 설정하였다. 唐 後期에 대해서 741년과 憲宗 元和年間(806-820)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唐 前期의 기준연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東北亞歷史地圖』는 626년, 683년, 712년 등 다양한 기준시점을 도입함으로써 지명과 경계의 변천을 보다 다양하게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도와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도의 표제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626-683-712년은 각각 高祖·高宗·睿宗의 마지막 재위년으로서 지명과 경계의 변천을 구현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舊唐書』 「地理志」 序文에서는 唐 前期 지리변천을 각각 10道 체제가 완성된 貞觀元年(627), 定簿하여 州·府·縣의 수를 파악한 貞觀 13年(639), 高昌을 평정한 貞觀 14年(640), 郡·縣과 24都督府로 재편한 睿宗 景雲 2年(711), 15道 체제가 시행된 開元 21年(733)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 羈縻支配體制의 성립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초로 북방에 燕然都

3)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 東北卷,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처럼 지도집 편찬과정의 기초자료도 존재하므로, 고증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4) 『通典』 卷171 「州郡典」1 序, p.4469, “(大業)三年, 改州爲郡, 乃置司隸刺史, 分部巡察.”

5) 『隋書』 卷29 「地理志」上, p.808 校勘記4; 『通典』 卷171 「州郡典」1 序, p.4469 참조.

6) 『舊唐書』 卷38 「地理志」1, pp.1384-1385.

護府가 설치하여 예하에 羈縻府州를 통제했던 貞觀 21年(647)을 하나의 기준연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 아울러 주변민족의 발흥으로 唐의 대외확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儀鳳 3年(678), 唐의 기미지배가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突厥第二帝國의 건국시기(682) 등도 기준연도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東北亞歷史地圖』에 구현되는 행정지명의 등급을 살펴보자. 『東北亞歷史地圖』 隋唐 부분의 지역도는 唐 開元 29年(741)을 기준으로 한 9장이 전부이다. 비록 300여장의 지도에 동북아의 전시대를 구현해야 한다는 지면상의 문제가 있지만, 譚其驤이 당대에 한해서만 17장의 지도를 작성한 것에 비하면 소략하다는 인상이 든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隋代 지도는 단지 郡을 가리키는 점만이 구현되어, 구체적으로 隋代 지명이 현재의 어디에 비정되는지도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현재의 작업단계에서 각 郡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이미 縣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지면의 한계가 있다면, 다른 지도들의 작성방법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程光裕의 「唐代十道圖」에서는 동북지역의 都護府 변화에 대해 연도를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응용하면, 『東北亞歷史地圖』의 626, 683, 712년의 행정지명을 각기 색상을 달리하여 하나의 지도에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지도에서는 지도하지 않았던 741년과 9세기 지명의 변천을 색상의 차이를 통해 구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명과 경계에 대한 세밀한 고증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지명의 계통적 변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東北亞歷史地圖』의 편찬의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郭洙若은 「隋代大運河和黃河長江中下游地區圖」와 「唐代貞觀·總章年間安東·東夷·安北·單于·安西都護府圖」에서 각각 運河 관련지역과 북방의 도호부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을 구체화했다. 『東北亞歷史地圖』에서 이미 9장의 지역도를 구현한 741년 이외에, 그 이전시기에 지명의 변천이 특기할만한 범위를 선정하여 지역도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집중한다면, 현재의 郡(隋代), 州(唐代)와 함께 그 하부 행정단위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993, p.177.

2. 隋代 지도의 행정지명에 대한 검토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위치의 고증은 필수불가결하다. 더구나 ‘강역’, ‘경계’ 검토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 지도에 표기된 행정지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지도제작에 중요한 발판을 삼고자 한다.

『東北亞歷史地圖』隋代 부분에서 보이는 전산상의 문제로 인한 단순한 오기, 표기의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 지점의 중복 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表 2>와 같다. 지도편찬 작업이 간체자로 기록된 중국서적을 저본으로 한 스캔파일을 통해 이루어져, 간체자와 번체자의 호환문제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甘肅省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弘化郡의 ‘化’자가 史爲樂 사전의 스캔파일에서 ‘億’으로 읽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表 2> 隋代 지도 상의 오기 및 중복 표기

구분	현재 구역(省)	현황	수정	비고
단순 오기	山東	타이산산	타이산	唐代 지도도 동일
	北京	安東	安樂	간체자 변환의 문제
	河北	上穀	上谷	간체자 변환의 문제
	甘肅	弘億	弘化	史爲樂 스캔상의 문제(p.1050)
	安徽	曆陽	歷陽	간체자 변환의 문제
	河南	浙陽	浙陽	오기
표기의 통일성	湖北	安陸郡	安陸	-
	山東	齊郡	齊	-
	山東	魯郡	魯	-
지점 중복 표기	甘肅	武都	(삭제)	-
	廣東	熙平	(삭제)	-
	四川	清化	(삭제)	湖北省의 清化는 삭제

※ 이하 페이지 표시는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현재 『東北亞歷史地圖』隋代 부분은 616년 당시 隋의 ‘영역’을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축척과 지면상의 이유, 즉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 설치되었던 交趾郡, 林邑郡 등은 기초자료만 구비되어 있다면, 차후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西로는 且末郡, 北으로는 五原郡을 경계로 했다는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⁸⁾

『隋書』 「地理志」에 등장하는 지명(郡)과 『東北亞歷史地圖』에 구현된 점을 대조하여, 지도상에 누락된 행정지명을 정리하면, 아래 <表 3>과 같다. 현재 구역은 수정작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省級 단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시기와 현재 비정되는 위치는 史爲樂의 사진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鄯善, 且末 등 廢置시점이 隋末로 불분명하게 기록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도의 작성 기준연도를 조절하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表 3> 隋代 지도 상의 누락된 행정지명

구분	현재 구역(省)	누락된 지명(郡)	시기	위치	근거 (史爲樂)
행정 지명 누락	陝西	馮翊	607-617	大荔縣	p.830
	陝西	上	607-617	富縣	p.181
	甘肅	敦煌	607-618	敦煌市 西	p.2588
	新疆	鄯善	585-隋末	若羌縣 東北 羅布泊 西岸	p.2810
	新疆	且末	609-隋末	且末縣城 西南	p.741
	青海	西海	609-隋末	共和縣 石乃亥鎮 西北 鐵齒卡古城	p.939
	青海	河源	609-隋末	海興縣 東南 黃河西岸	p.1661
	甘肅	臨洮	607-618	卓尼縣 西 洮河南岸(一說即今甘肅 臨潭縣)	p.1860
	安徽	譙	549-開皇初	蒙城縣	p.2824
	安徽	汝陰	大業初-620	阜陽市	p.1089
	陝西	上洛	大業初-617	商州市	p.181
	河南	洧陽	大業初-隋末	南召縣 東南	p.2450
	河南	淮安	607-617	泌陽縣	p.2443
	山東	濟北	大業初-617	茌平縣 西南 50里	p.1990
	河北	武陽	607-武德中	大名縣 東北 大街鄉	p.1429
	山西	長平	大業初-617	晉城市 東北 30里 高都鎮	p.422
	山西	離石	607-618	離石縣	p.2188
	內蒙古	定襄	大業初-唐初	和林格爾縣 西北 土城子鄉	p.1692
	山西	樓煩	608-620	靜樂縣	p.2673
	河北	趙	大業初-武德初	趙縣	p.1758

8) 『隋書』 卷29 「地理志」上, p.808, “東西九千三百里, 南北萬四千八百一十五里, 東南皆至於海, 西至且末, 北至五原, 隋氏之盛, 極於此也.”

	河北	博陵	大業初	安平縣	p.2497
	天津市	漁陽	大業初-大業末	天津市 漁縣	p.2446
	江蘇	江都	大業初-619	揚州市	p.1084
	江蘇	丹陽	大業初-619	南京市 清涼山	p.459
	廣東	高涼	606-620	陽江市西	p.2174
	廣西	鬱林	大業初-武德初	桂平縣	p.1504
	베트남	交趾	大業初-?	越南 河內市	p.1062
	베트남	比景	607-?	越南 平治天省 宋河 下遊 高牢下村	p.378
	베트남	海陰	607-?	越南平治天省廣田縣東香江與 蒲江合流處	p.2215
	베트남	林邑	607-?	越南 峴港省 維川縣 南茶驛	p.1485
	湖北	南	大業初-?	荊沙市 荊州區 故江陵縣城	p.1810

약 560만: 1의 축척과 현재 지명이 병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위치의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도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甘肅省 지역에 위치한 武都·漢陽·宕昌·同昌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각의 郡의 위치를 지도제작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어떤 지점을 설정했는지 불분명하지만, 程光裕는 武都郡보다 남쪽에 同昌郡을 위치시켰고, 譚其驤의 지도에서는 漢陽郡이 宕昌郡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이 4郡에 대한 경도도 지도집마다 혼란이 있는만큼 위치를 비정한 기본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唐 前期 지도의 행정지명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地圖』에서 唐 前期를 다룬 지도는 「唐의 성립 618~626년」(기준: 626년), 「唐 前期 행정개편과 都護府 626~683년」(기준: 683년), 「則天武后 時期의 唐王朝 684~712년」(기준: 712년) 등 3종이다. 행정지명의 중복 표기나 통일성에 맞지 않는 표기를 정리하면, 아래 <表 4>와 같다.

<表 4> 唐 前期 지도 상의 오기 및 중복 표기

구분	현재 구역(省)	현황	수정	비고
표기의 통일성	陝西	朔方	(삭제)	626년 지도 (朔方郡, 朔方縣, 朔方節度使)
	內蒙古	榆林	(삭제)	626년 지도 (勝州 榆林縣)
지점	河北	北燕州	(삭제)	626년 지도

중복 표기	河北	媯州	(삭제)	683년, 712년 지도
	山西	蔚州	(삭제)	626년, 683년, 712년 지도
	河北	恒州	위치재검토	626년, 683년, 712년 지도
	山東	莒州	(삭제)	626년 지도
	江蘇	蘇州	위치재검토	626년, 683년, 712년 지도
	浙江	睦州	위치재검토	626년, 683년, 712년 지도
	甘肅	武州	위치재검토	626년, 683년, 712년 지도
	甘肅	涼州	(삭제)	712년 지도
	甘肅	甘州	(삭제)	712년 지도
	甘肅	肅州	(삭제)	712년 지도
	甘肅	瓜州	(삭제)	712년 지도
	四川	蓬州	(삭제)	626년, 683년, 712년 지도
	四川	陵州	(삭제)	626년, 683년, 712년 지도
	四川	榮州	위치재검토	626년, 683년, 712년 지도
	重慶	黔州	(삭제)	626년, 683년, 712년 지도
廣東	連州	(삭제)	626년, 683년, 712년 지도	

626년 지도에 등장하는 ‘朔方’이라는 지명은 唐代에는 朔方郡, 朔方縣, 朔方節度使 등이 검색된다.⁹⁾ 朔方郡과 朔方縣의 위치가 현재 陝西省 靖邊縣 東北의 白城子 古城으로 비정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현재 지도상의 지점은 이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하지만 唐 前期 全圖에서 구현하는 행정단위가 ‘州’라는 점을 상기하면, 朔方郡(혹은 縣)이나 榆林縣은 현재 지도 상에는 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

隋代 지도에 비해 중복되는 지점의 표기가 많다. 唐代 행정지명이 隋代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기에, 입력상의 오류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隋代 지도에서는 하나의 점에 두 개의 지명이 표기된 반면, 唐 前期 지도에서는 복수의 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恒州, 蘇州, 睦州, 武州, 榮州 등이 그 사례이다. 전산상 어떠한 오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治所의 이동이나 改置 등의 기록이 동일한 데이터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恒州는 武德 4年(621) 治所가 石邑縣(지금의 石家莊市 서남)에서 眞定縣(지금

9)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2194.

의 正定縣: 石家莊市 동북)으로 옮겨졌다.¹⁰⁾ 지도상 현재 石家莊市의 서남·동북 방향에 각각 恒州가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각각 石邑縣과 眞定縣을 비정한 것으로 보인다. 蘇州 역시 大業初에 吳州, 吳郡 등으로 바뀌었다가 武德 4年(621)에 蘇州로 改置되었고 3년 뒤에 치소가 지금의 蘇州市로 옮겨졌다.¹¹⁾ 서남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지도상의 점은 589-623년에 治所였던 吳縣의 위치를 가리킨 것이다.

다음으로 唐 前期 지도 상의 행정지명 위치의 문제를 살펴보자. 626년, 683년, 712년 행정지명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비교해보면, 위치가 변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실제로 위치가 변화하지 않았던 사례를 아래 <表 5>로 정리하였다.

<表 5> 唐 前期 지도 상 행정지명의 위치 변화 문제

비교 지도	현재 구역(省)	비교 지명	위치변화	비고
626→683	河南	許州/汝州	許州를 기준으로 汝州의 위치: 西南→西北	史爲樂, pp.1088-1129
626→683	山西	潞州/澤州	潞州를 기준으로 澤州의 위치: 西南→南	史爲樂, pp.1676-2926
626→683	四川	翼州	汶江의 지류에 연접 → 汶江의 동쪽 내륙	史爲樂, p.2949 茂縣 西北 120里 較場鄉 → 茂縣 西北 較場鄉

許州와 汝州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683년 지도에서는 許州를 기준으로 汝州가 西南에서 西北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汝州나 許州 모두 지도작성 기준 연도인 626년, 683년 사이에 治所의 이동을 발견되지 않는다. 澤州와 潞州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현재의 四川省에 위치한 翼州는 626년 지도에서는 汶江의 지류에 연접하여 표기되었으나, 683년 지도에서는 동쪽 내륙으로 이동되었다. 史爲樂의 고증에 따르면, 626년, 683년 사이에 治所의 이동이 있었지만 기준연도에는 각각 茂縣 西北 120里 較場鄉과 茂縣 西北 較場鄉으로 비정되어 있다. 지도상에 표현된 거리보다는 실제로는 더 인접한 지점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譚其驥은 汶江의 지류에 연접하여 표기하였다.

한편, 唐代에는 행정지명의 변경과 治所의 이동이 복잡하여 지명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위해서도 계통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베트남 지역에 위치했던

10)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1953.

11)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1213.

驪州는 改置와 治所의 변동으로 다소 복잡한 변화를 보인다. 史爲樂의 고증에 따르면, 越南 義靜省 安城으로 비정되는 驪州가 622년부터 626년까지 존재했다가 627년 濱州로 바뀌었다. 그리고 626년까지 德州라는 지명으로 존재했던 지역이 627년부터 驪州로 바뀌었다. 그곳은 현재 越南 義靜省 榮市로 비정된다.¹²⁾ 626년 지도와 683년 지도를 비교하면, 驪州가 다소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만, 626년 지도의 驪州, 德州는 각각 683년 지도에서 濱州, 驪州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현재에는 濱州가 누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지명의 변경과 그에 따른 경계의 변화를 일차적 자료상 재검토하고, 지도에 계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이상으로 『東北亞歷史地圖』隋·唐 前期 지도를 구성과 구체적인 행정지명의 오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성면에서 『東北亞歷史地圖』는 ‘경계’와 ‘영역’이라는 편찬 목적에 맞게 ‘강역지도’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譚其驤이 唐代 全圖의 작성 기준연도를 669, 741, 820년 세 시기로 한정하는데 반해, 『東北亞歷史地圖』에서는 626, 683, 712, 741, 82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행정지명의 변화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隋代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 기준연도 설정에 설득력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행정단위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東北亞歷史地圖』가 기존의 역사지도집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인 ‘자료의 디지털화’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唐代 복잡한 행정지명의 변화를 지명에 대한 다양한 색상 부여를 통해 행정지명의 변천을 계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四川省과 重慶市로 비정되는 萬州는 619-626년까지 四川 達縣의 西北에 위치한 橋灣鄉에 존재했으나, 618년 폐치되었다. 그러다가 634년 浦州에서 改置되어 현재의 重慶市 萬縣市에 治所를 두었다가 742년 南浦郡으로, 758년에는 다시 萬州로 고쳐졌다.¹³⁾ 夷州는 621년에서 637년 사이에 治所가 貴州省 鳳岡縣의 서쪽, 鳳岡縣의 동남쪽, 鳳岡縣의 북쪽 餒陽鎮으로 3차례 변경

12)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2984.

13)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165.

되었다.¹⁴⁾ 이처럼 복잡한 행정변화를 시간대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표현한다면 독자들이 특정 지명의 계통적인 변화상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¹⁴⁾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966.